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12 04



서울문화재단

04



4월의 문화+서울

책, 지속가능한 미래를 말하다

책이 진화하고 있다. 다양한 낭독공원에서 각종 첨단 기기 속으로 들어간 전자책들까지. 딱딱하고 두꺼운 종이와 활자의 이미지를 벗고, 독자의 입맛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책은 이제 지성의 권위와 함께 친근함과 첨단 이미지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

22



문화인

지금 우리 앞의 생과 마주하는 법

지난해 소설 <흑산>으로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킨 작가 김훈. 한 시대를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그의 소설 속 등장인물들처럼, 세상을 더 뜨겁게 살 수는 없을까? 담백한 문장으로 비장한 역사를 그려내는 소설가 김훈이 전하는 삶과 인간, 그 직접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46



이슈 2

대학로, 공연예술 시장의 바로미터!

서울연극센터에서 '2011 대학로 연극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공연예술의 아이콘인 대학로와 그 시장에 대해 구체적인 규모와 현황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낸 것은 이번이 처음. 연극은 해가 갈수록 그 양과 질이 풍부해지고 있지만, 과연 연극 종사자들은 행복할까? 연극 종사자들과 관객 모두에게 들려주는 대학로 연극계 이야기.

C O N T E N T S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12.04 VOL.62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일 2012년 03월 25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발행인** 조선희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편집기획** 서울문화재단 홍보교류팀 | 홍보교류팀장 이현아 | 박영도, 정경미, 김수연, 신동석 | 오니트(주) **발행**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el** 02.3290.7000 **Fax**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편집·디자인** 오니트(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02 아트 갤러리
이달의 표지 작가

4월의 문화+서울

책, 지속가능한 미래를 말하다

06 COLUMN
스마트 패드, 서점을 대신하다

10 REPORT
대한민국 전자출판 옴트기 시작하다

14 INTERVIEW
책의 미래를 여는 파수꾼들

18 TREND
전자책 트렌드를 읽는 몇 가지 키워드

사람과 사람

22 문화 人
지금 우리 앞의 생과 마주하는 법
소설가 김훈

30 영아티스트
연극 〈878미터의 불〉 극작가 한현주

36 나의 서울생활기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샘 베르메르쉬

40 서울 단상
영화평론가 정성일의 서울 노스텔지어

지금 서울은

42 이슈1
서울, 주말이 즐거워진다

46 이슈2
대학로, 공연예술 시장의 바로미터!

50 이슈3
향수병에 걸린 대중문화

54 이미지 서울
골목, 피어나다

56 리뷰1
뮤지컬 〈서편제〉

58 리뷰2
영화 〈말하는 건축가〉

62 연재
백담파(白塔派)의 슬픔과 예술, 벼를 사귀다

서울 너머로

66 해외 트렌드
런던의 공정무역, 착한 소비 이야기 II

70 해외 뉴스
리스본 | 파리

문화@서울

72 좌충우돌 문화 체험
홍은예술창작센터 미술실기 프로그램
〈감(感) 좋다〉

76 문화 캘린더

78 SFAC 뉴스

82 현장 인터뷰

84 독자의 소리

이달의 표지 작가

몸에 비춘 욕망의 지형도 전수경

2012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 시각예술분야 선정작가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동양화 실기를 공부했고 동 대학원 서양화와 미술이론을 전공했다.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작품을 발표해왔으며 2002년 뉴욕과 파리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또 2003년에는 마카오 정부 민정총서의 초대로, 2005년에는 학교재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주로 몸이 지닌 원초적 감각을 상징적 암시와 명확한 대상의 재현 사이의 관계로 구현하는 실험을 한다.

대부분의 작품을 한지로 작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지는 숨 쉬는 종이다. 한지는 닥나무 껍질의 장(長)섬유들이 서로 얽혀있는 구조이며 그 사이로 공기과 수분의 투과를 충분히 허용한다. 따라서 한지는 질기면서도 통기성이 좋다. 먹이나 수성안료 등 물을 미디엄으로 사용하는 회화의 재료기법을 한지에 사용할 때에 양지에 비해 농담표현의 폭이 훨씬 넓고 섬세하다. 또한 질기고 강한 종이의 성질과 특유의 흡수성으로 여러 겹의 채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채롭고 깊은 색감을 표현할 수가 있다.

작품의 분위기가 독특하다. 사물에 신체의 일부가 투영되어 있기도 한데 어떤 의미인가.

나는 '몸(Body)'을 주제로 삼아 인간의 실존적 상황을 표현한 이른바 인체풍경(bodyscape)을 탐구해 왔다. 인체드로잉, 사물 등으로부터 모아진 다양한 '몸'의 이미지를 결합하고 재해석하여 화면에 구성한 <Body Complex> <Duality> 연작이 있다. 더불어 나는 페티시(fetish)적 요소, 즉 인격체가 아닌 물건이나 신체특정부위에서 성적 판타지나 만족감을 얻으려는 경향을 인간의 자연스럽고

창의적인 시지각적 반응으로 해석하고 발전시키고자 한다. 어떤 사물이나 형상을 보고 떠올리게 되는 형태 심리적 반응의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몸(body)이라고 생각한다. '몸'이 만들어내는 실루엣과 표정은 어떠한 시각적 대상보다 인간의 상상력과 본능을 자극하여 생(生)의 긴장과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요즘 주력하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2010년부터 <Duality> 연작을 제작하고 있다. 올해는 하반기에 금호미술관에서 개인전이 있으며 <Body Complex> <Duality> 신작과 처음 시도한 입체작품을 전시할 계획이다.

- 01. 표지 <Configuration in Bed> | 한지에 먹 채색 콜라주 | 162×130cm | 2010
- 02. 뒤표지 <Body and Talk> | 한지에 먹 채색 | 80×100cm | 2007
- 03. <the Fruit of Good and Evil in Green> | 한지에 채색 | 80×100cm | 2009
- 04. <Pandora Box> | 한지에 먹 채색 콜라주 | 111×144cm |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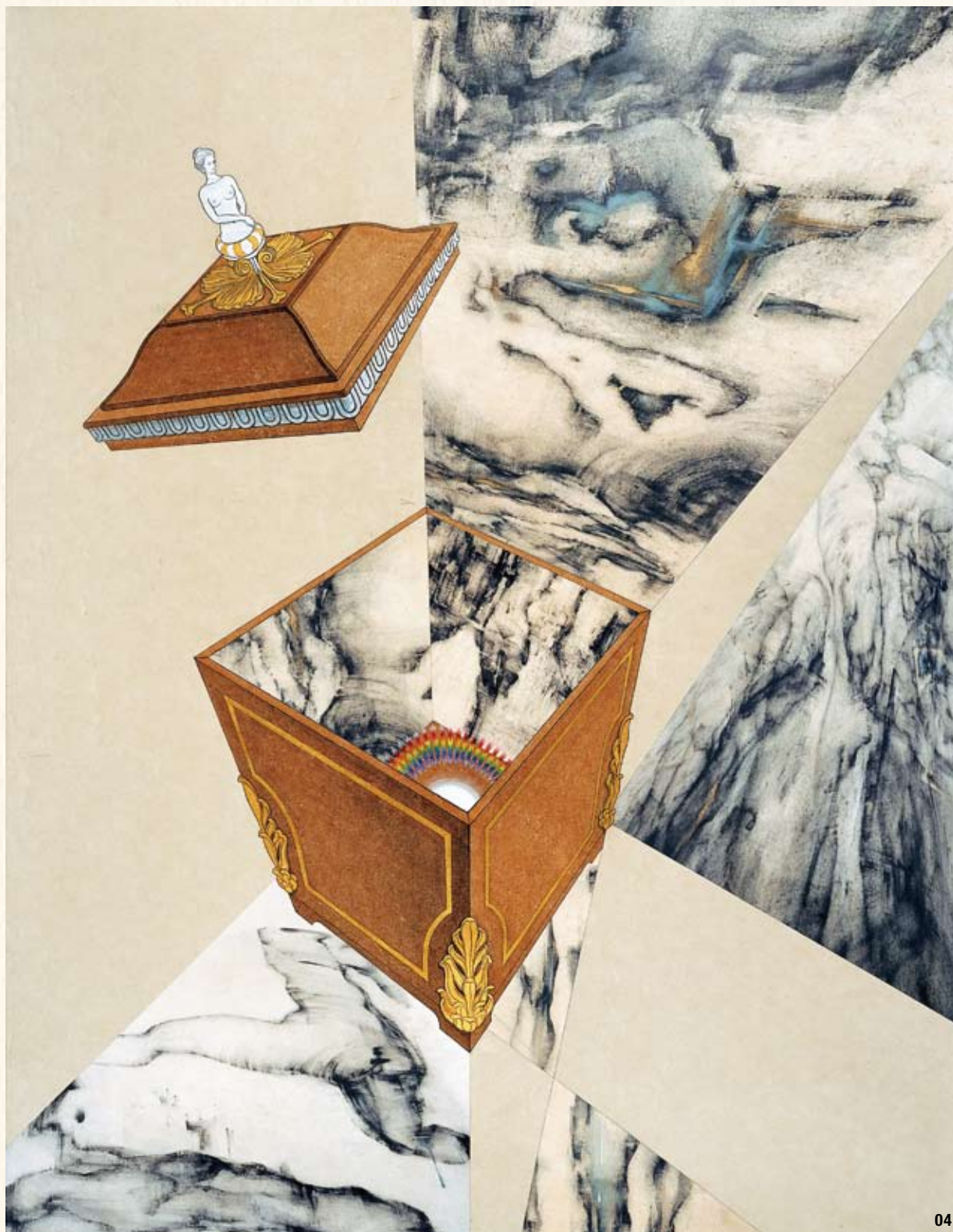
01



02



03





책, 지속가능한 미래를 말하다

사사키는 전자책 플랫폼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책의 세계는 더욱 편평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평범한 개인이 직접 출판해서 판매하는 일이 가능해지고, 유명작가와 무명작가의 구분이나 구간과 신간의 차별이 사라지는 등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펴내고 읽을 수 있는 새로운 문화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의 등장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세상의 도래를 확실하게 알렸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책'이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한 가지 고정된 이미지를 떠올렸다. 손때 묻은 종이의 펄럭거림이나 도서관의 매캐한 먼지냄새 같은 것들 말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발상 속에 책은 고정된 하나의 그릇 속에 담겨 있지 않다. 책은 잉크를 툭툭 털고 일어나 우리의 일상 속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지하철 속 잠시의 여유가 필요한 이를 위해 휴대폰 속으로, 더 즐거운 책 읽기가 필요한 아이들과 살아 숨 쉬는 매거진이 보고픈 이들을 위해 아이패드 속으로 들어갔다. 아날로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과 다른 방식의 책 읽기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활자를 벗고 목소리와 음악 속으로 흐르기도 한다.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린 구텐베르크의 활자는 이제 21세기 속으로 왔다. 과거를 벗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말하는 풋풋한 모습으로.

전자책, 탄생에서 세대교체까지

스마트패드, 서점을 대신하다

2012년 독서의 해를 맞이해 책이 달라지고 있다. 종이에 인쇄된 활자로만 읽혔던 책은 한때는 낭만의 상징이자 지성의 보고였다. 그렇기에 손때 묻은 책의 권위는 휴대의 편리 유무에 상관없이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책 속의 활자들이 종이 프레임을 벗어나 세상 밖으로 마음껏 날개를 펼치고 있다.

2000년 무렵,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난 의욕을 내보이며 스티븐 킹의 <총알에 올라타기>를 활용한 대대적인 이벤트를 벌이자 전자책이 곧 종이책을 대체할 것이라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빛바랜' 종이에 담겨 있던 정보를 '빛나는' 전자공간으로 장소만 이동시켜 놓으면 전자책의 시장성이 크게 열릴 것이라는 생각이 만연하자 그 해 교육방송(EBS)은 '10년 후 종이책이 사라진다'를 주제로 찬반토론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0년에도 국내 출판시장에서 전자책의 매출은 전체 책 매출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종이책은 여전히 건재하다.

전자책 단말기, 새로운 시장을 예고하다

2000년과 2012년 사이에 전자책의 '원년'이라고 할 만한 때가 몇 번 있었다. 2004년에 일본의 소니와 마쓰시다 같은 대형 전자회사까지 나서서 '리브리에'나 '시그마북' 같은 전자종이 액정화면의 단말기를 내놓았을 때도 그랬다. 하지만 아마존이 킨들을 출시하기 전까지의 모든 전자책 단말기는 '실패'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 전자책 단말기는 참패했다. 단말기가 힘을 쓰지 못하는 사이에 전자책의 매출을 키워온 것

은 휴대전화였다. 전자책 전체 매출의 85%는 독자가 휴대전화로 내려받는 전자책이었다. 만화, 휴대전화 소설, 사진 등이 대부분이었는데 휴대전화의 작은 화면으로도 쉽게 볼 수 있는 만화가 그중 80% 이상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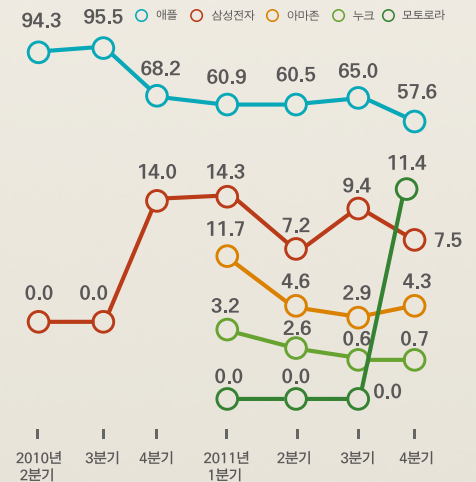
애플의 아이패드가 등장했을 때도 전자책의 '원년'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했다. 주식 시가총액이, 미국 최대 오프라인서점 체인인 반즈앤노블스의 60배나 되는 아마존닷컴이 전자책 리더 킨들로 위기를 돌파한 직후에, 아이팟과 아이튠스로 휴대형 음악 시장의 지배자가 되고 아이폰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돌풍을 일으킨 애플은 2010년 4월 초에 태블릿PC인 아이패드를 출시해 다시 한번 충격을 던져주었다. 전자책만 읽을 수 있는 킨들과 달리 아이패드는 동영상이나 음악, 게임 등도 즐길 수 있는 다용도 전자책 리더였다.

2010년 5월 28일부터 아이패드를 시판한 일본에서는 킨들과 아이패드를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타고 나타나 문호 개방을 강요하던 흑선(黒船·구로후네)에 비견할 정도로 아이패드의 등장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했다. 아마존, 애플, 구글 등의 대형 IT 기업 같은 '신대륙'이 신문, 텔레비전, 출판 등의 전통기업('구대륙')을 어떻게 변모시킬 것인지가 그 당시의 최대 관심사였다.

애플, 아마존, 구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미디어 산업에서 군림하기 시작하면서 책 시장도 영향을 받았다. 사사키 도시나오(佐々木俊尚)는 2010년 4월에 펴낸 <전자책의 충격>에서 킨들, 아이패드 같은 전자책을 읽는 데 적합한 기기, 쾌적하게 책을 구입해 읽을 수 있는 플랫폼, 자가(自家)출판과 책의 플랫폼화, 그리고 콘텍스트를 매개로 책과 독자가 얹히는 새로운 매칭의 세계라는 퍼즐 조각이 전부 맞춰져 이제 새로운 전자책의 생태계가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흥분된 결론을 내렸다.

글로벌 스마트패드 시장점유율(단위: %)

자료 |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



쾌적한 전자책 시장의 조건

사사키는 전자책 플랫폼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책의 세계는 더욱 편평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평범한 개인이 직접 출판해서 판매하는 일이 가능해지고, 유명작가와 무명작가의 구분이나 구간과 신간의 차별이 사라지는 등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펴내고 읽을 수 있는 새로운 문화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의 등장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세상의 도래를 확실하게 알렸다. 따라서 누구나 책을 쉽게 펴낼 수 있는 세상에서 전자책의 부흥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워보였다.

<전자책의 충격>이 출간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2011년 10월, 사사키 도시나오는 <eBook저널> 6호에 게재된 인터뷰 기사에서 “최근 1년 반 동안의 상황을 돌이켜보자. 2010년 5월에 아이패드가 발매되자 흑선이 출몰했다며 일본 출판계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기존의 출판사는 위기감이 고조되었고, 아마존 일본판 킨들스토어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전자책을 무시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다. 일본 국내에서도 KDDI나 도코모 등의 통신업자나 샤프 등 메이커가 주도한 플랫폼이 등장했다. 하지만 모두 기대에 못 미치며 매출이 신통치 않았고, 전자책을 유통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전자책도 팔리지 않았다. 딱 잘라 말해서 전자책 업계에는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



았다”고 상황을 정리하면서 여전히 열리지 않은 전자책 시장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아이패드는 8개월 만에 1000만 대 가까이 팔려나갔지만 킨들을 죽이지는 못했다. 아이패드로 읽을 수 있는 콘텐츠가 별로 없자 구입한 책을 절단한 다음 스캔해 자신의 아이패드에 보관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절단기와 스캐너만 팔려나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미국을 제외하고는 한때 전자책에 대한 비판론이 우세했던 것이 사실이다.

국내 상황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교보문고·에스24·인터파크·알라딘·리브로 등의 온라인서점, 네이버·삼성전자·신세계i&c·LG전자·텍스트어 등의 포털 및 콘텐츠물, KT올레·LG070·SK네트웍스·리디북스·Y2BOOK·북큐브·웅진OPMS·네모이북·스캔북·OeBOOK 등의 통신사 및 이북스토어 등이 모두 전자책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아이패드로 인한 기대감이 무척 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전자책 시장의 성장은 여전히 지지부진했다. 전자책 업계가 매출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지만 단말기 매출을 제외한 2011년의 국내 전자책의 매출은 300억원 미만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자책 매출의 성장이 이렇게 더딘 것은 독자들의 미미한 디바이스 확보, 전자책 변환 솔루션의 낮은 수준, 한글 폰트의 미확보, 얼리어답터들의 ‘선발대 효과’ 미진, 출판사들의 소극적인 태도 등이 작용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디바이스로 내려받아 볼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전자책의 변화는 계속된다

이런 미미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전자책은 이미 대세다. 디지털 기술은 이미 책의 정의부터 바꾸고 있다. 이제 책은 시각 일변도에서 시각과 청각과 촉감까지 아우른 책으로 거듭나고 있다. 글과 그림의 결합, 애니메이션, 동영상은 기본이고 터치 화면으로 모든 영역을 연결해 정보를 소비할 것이기에 내용의 수준뿐만 아니라 색감이나 목소리의 질로도 경쟁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물론 하나의 콘텐츠로 종이책과 웹과 앱을 아우르는 일은 기본이 될 것이다.

그런 일은 영세한 규모의 출판사가 난립한 우리 현실에서는 개별 출판사가 홀로 할 수는 없다. 여러 차례 ‘전자책 원년’을 외치며 전자책을 부양시키려 했던 사람들로서는 애플과 아마존, 구글이 주도하는 미국과 달리 전자책 시장이 훨훨 날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다. 국내 출판계도 하드웨어(디바이스), 소프트웨어(디지털 콘텐츠), 네트워크가 웹상에서 삼위일체로 구동되어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업자, 도서관 사서 등 책의 논리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미래의 확실한 대안인 전자책 시장이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전자책은 송신 방법이나 플랫폼, 결제, 스토어 등을 포함한 하나의 네트워크로 파악하고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는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번 선언을 주도한 한국출판콘텐츠(KPC)는 국내의 중요한 단행본 출판사 300여 개사를 협력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다. KPC는 창립 후 2년 동안 전자책이 성장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만드는 데 전념해왔다. 판매정산금에 대한 상호 불신 해소와 불법 다운로드 방지를 위한 ‘출판계 공용 DRM(디지털저작권관리)’과 ‘실시간 거래 종합 정산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전자책 변환·제작

솔루션'과 한글을 제대로 구현하는 서체를 개발해 출판사와 유통업체에 무료로 공급하는 일을 해왔다. 또 전자책을 생산한 저자와 출판사, 유통업체 모두의 이익이 보장되는 가격 시스템도 마련했다. KPC는 전자책 정가를 종이책 정가의 70%로 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정도를 지속 가능한 출판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여긴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전자책 시장은 B2C가 아닌 B2B로 성장해왔다. 도서관이나 기업, 학교에 전자책을 납품하는 것으로 명맥을 겨우 유지해왔다. 이렇게 한 번 구매로 전자책의 소유권을 도서관에 완전히 넘겨서는 전자책이 활성화되었을 때 출판사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KPC는 이번 선언에서 25회 대출되거나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도서관의 권리가 소멸되어 재구매해야 하는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출판사와 도서관이 합의해 20회 정도 빌리면 도서관의 권리가 소멸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니 KPC의 모델이 미국보다 진일보한 모델로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전자책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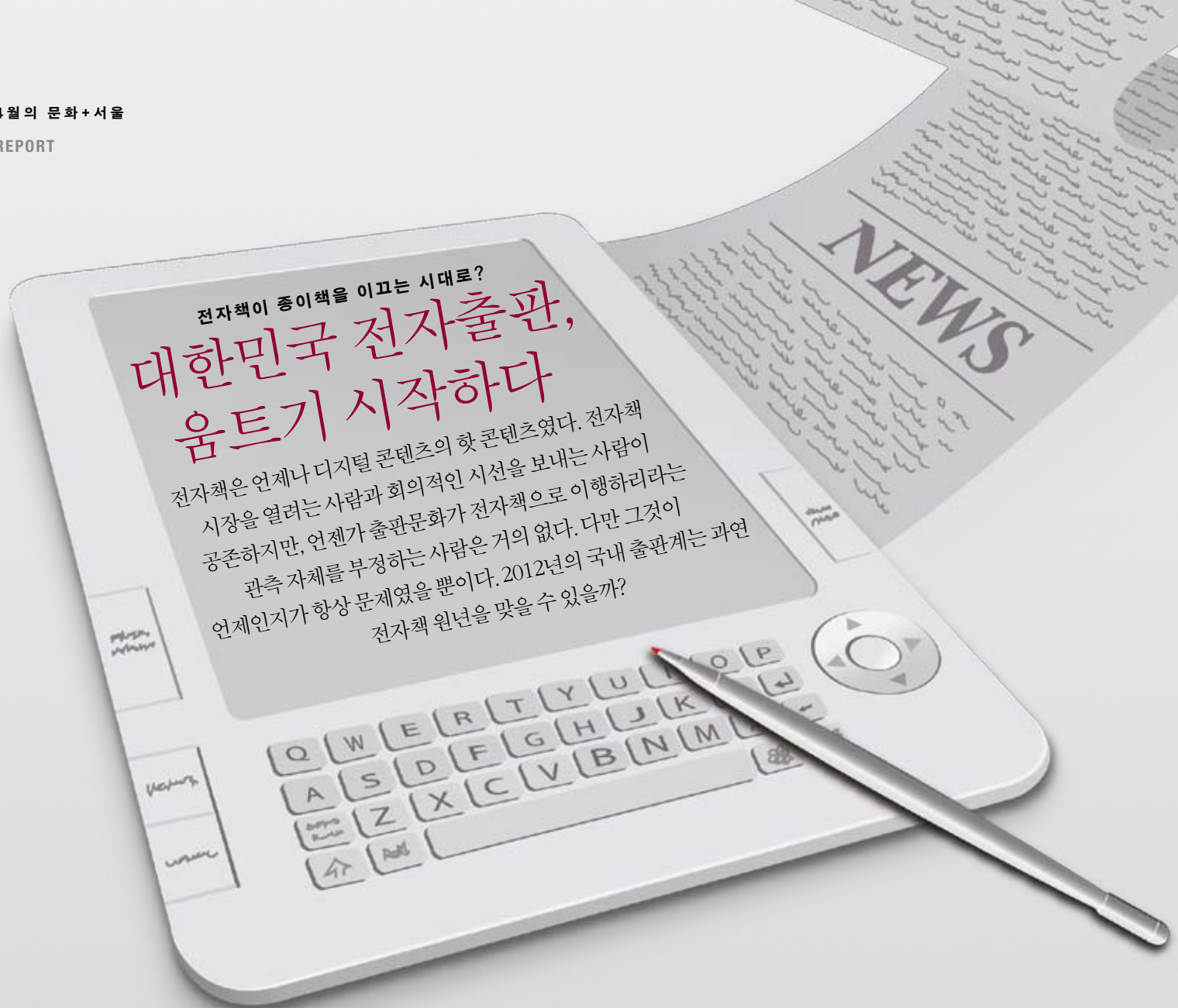
최근 일본에서는 아마존의 킨들이 4월부터 서비스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전자책의 충격>의 저자인 사사키 도시나오는 앞의 인터뷰에서 "(전자책) 시장은 역시 킨들스토어의 일본 서비스 개시에 달렸다. 얼마 전 발표한 최신 킨들 단말기에는 HTML5라면 단말기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화면표시가 가능하다. 또한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보관하고 ID와 연동하면 단말기를 바꿔도 책이 사라질 일은 없다. 지금으로서는 이상적인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외국자본에 기대하면 어떨까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킨들에 의해 비로소 일본의 전자책 시장의 막이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의 한 출판인도 아마존이 "킨들을 들고 한국시장에 진출한다면 한국 전자책 시장은 활짝 열릴 것"이라고 단언했다.

애플은 아이클라우드를 이미 서비스하고 있다. 누구나 자신의 방에 음악과 사진, 문서 등의 파일이나 메일, 스케줄 데이터를 만들어놓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 컴퓨터, 킨들 같은 독서 전용 단말기 등에서 자유자재로 다운로드해 볼 수 있다. 전자책 또한 마찬가지다. 글을 쓰다가 미진해지면 저장해놓았다가 아무 곳에서나 장소를 이동하면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로 글을 쓸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다. 정말로 스마트한 세상이 왔다. 따라서 전자책은 엄연한 우리의 미래다.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출판이 가능한 기반 조성에 주력하던 출판계가 이번에 '전자책 출시 본격화 선언'을 한 것은 출판인들 스스로가 미래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글 한기호

출판평론가.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 월간 <학교도서관저널>과 격주간 출판전문지 <기획회의> 발행인. 지은 책으로 <e-북이 아니라 e-콘텐츠다> <디지털과 종이책의 행복한 만남> <디지로그 시대 책의 행방> <책은 진화한다> <위기의 책, 길을 찾다> <베스트셀러 30년> 등이 있다.



금방 올 듯 오지 않는 전자책 시대

사회 초년병 무렵, 월급이 통장에 스쳐가기 바쁜 처지에도 불구하고 꼭 갖고 싶은 기기가 있었다. 어찌다가 PDA라는 기기에 마음을 뺏겨 20만 원이 넘는 거금을 주고 기어이 장만했던 기억이 난다.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라는 해도 그때 그렇게 큰 맘 먹고 질러야 했던 PDA 가격은 지금 스마트폰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렇게나 갖고 싶었던 기기의 성능이나 사양은 또 어떠한가. 그림이나 동영상을 본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된 기기가 나온 것도 시간이 꽤 지난 후의 일이었다. 하지만 흑백 화면에 조악한 서체들, 지금 생각하면 꽤 불편했던 인터페이스에도 불구하고 장장 열 권의 대하소설을 작은 기기에 넣어 가지고 다니며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꽤나 매력적이었다. 비록 당시는 불법 다운로드로 파일을 구해 읽는 상황이었지만 머잖아 전자책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PC통신 시절에도 그랬다. 기존 문단의 등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PC통

신을 통해 소설을 연재하는 작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 독자들은 새로운 출판 매체의 등장을 반겼고 출판사들은 환경 변화에 긴장했다. PDA 등장 이후로 전자책 솔루션, 유통업체들을 중심으로 언젠가 대세가 될 전자책 시장의 선발주자로 자리 잡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돼왔고 때마다 한 번 씩 전자책 원년이 선포됐으나 꽃을 피우지 못한 채 10여 년이 흘렀다.

전자책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나?

아이폰의 등장과 스마트폰의 폭발적 보급은 전자책 시장 개화에 대한 기대감을 또다시 높였다. 스마트폰 보급 대수가 2000만 대를 향하면서 PDA 이후 수많은 업체가 전자책 단말기 보급을 시도하다 실패했던 과거가 무색할 만큼 단번에 전자책 인프라가 구축됐다.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 사용자까지 전자책을 볼 수 있는 2000만 명의 잠재적 이용자가 확보된 셈이다.

아마존닷컴의 성공이 아니었다면 출판계는 여전히 전자책 시대의 도래에 의구심을 갖고 관망하 기만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위기의 아마존닷컴은 킨들을 통해 부활하면서 단말기와 콘텐츠가 존재한다면 수요도 얼마든지 촉발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또한 아마존닷컴이 미국 시장에 이어 세 계 2위의 도서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일본 상륙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은 다시 국내 출판계에 경중 을 울리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2015년 전자교과서 도입이 예고돼 있다. 종이 교과서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종이책보다 전자책에 더 익숙한 세대가 도서 구매층의 주류를 이룰 날이 머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한국출판인회의와 KPC, 2012 전자책 원년 선언

지난 2월 한국출판콘텐츠(이하 KPC)와 한국출판인회의는 2012년 전자책 원년을 선언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출판, 또 다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연 행사에서 KPC는 출판계의 전자책 출시를 본격적으로 서두른다고 선언, 앞으로의 계획과 전자책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다.

KPC는 은행나무, 김영사, 두산동아, 문학과지성사 등 국내 주요 출판사 60여 곳이 공동 설립한 회사로서 전자책 출판에서 콘텐츠 어그리게이터(Contents Aggregator)의 역할을 수행한다. 일 차적으로는 출판사들이 갖고 있는 콘텐츠를 디지털 콘텐츠로 가공,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자책 솔루션보다는 유통에 적합한 인프라를 만들고 출판계 공용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 솔루션)으로 패키징한 디지털 콘텐츠를 여러 유통업체에 배포하는 데 역점을 둔다. 정형선 KPC 사업팀장은 "2월에 주최한 행사는 전자책 배포를 위한 인프라를 완비했다는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출판인들의 모임을 중심으로 전자책 출시를 서두른다는 발표는 몇 차례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동안 출판사들이 전자책을 내놓는 데 대해 불안해하던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정상적인 유통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으니까요."

전자책 출시를 위한 제도적, 기술적 환경 변화

그동안 솔루션 개발업체와 플랫폼 사업자, 혹은 출판사 중심의 컨소시엄 등 수많은 주체가 전자책 시장을 선도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말해 한국출판인회의가 전자책 원년을 선언했던 2010년과 2012년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다른가. 한국출

판인회의는 크게 세 방향에서 전자책 시장 환경이 달라졌다고 보고 있다.

첫째는 미흡했던 전자출판의 질서가 잡히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책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 산업진흥법이 개정된 것이 지난해의 일이고 저작권법에 따라 전자책의 배타적 발행권이 인정된 것도 지난해 12월이다. 출판권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출혈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우려했던 출판사들이 전자책 출시를 서두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뒤늦게나마 마련됐다.

둘째는 출판사들이 좀 더 손쉽게 양질의 전자책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PDA로 불법 다운로드한 전자책을 보던 시절에는 오타자를 탓할 수도, 조악한 서체를 아쉬워할 수도 없었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전자책을 구매하는 상황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출판사들은 종이책에 비해 퀄리티가 떨어지는 상태로 전자책을 출시할 이유가 없다. KPC는 소규모 출판사라도 손쉽게 전자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출판계 공용의 전자책 솔루션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이 솔루션에 사용할 전자책 전용 서체까지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출판사와 독자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자책 유통과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

한국출판인회의와 KPC가 가장 자신감을 보이는 부분은 전자책 유통의 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유통 문제는 가격과 더불어 출판사들이 전자책 출시를 꺼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 무형의 디지털 파일에 대해서 배포와 정산의 문제를 유통업체에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출판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다. KPC가 제공하는 출판계 공용 DRM은 불법 복제나 배포를 막을 뿐 아니라 파일의 배포 현황을 실시간으로 리포트하고 정산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의 정중호 전자출판위원장은 출판계 공용 DRM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던 유통업체들을 설득했다고 설명한다. “유통업체들은 ‘우리를 믿지 못하느냐’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출판계 공용 DRM을 도입하는 문제는 전자출판의 주도권 다툼이 아니라 저자, 출판사, 유통 등 관련 주체들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모든 주체가 공생하자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고 꾸준히 설득했고 유통업체들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6월쯤에는 유통계도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출판인회의와 KPC는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단말기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환경에서 전자책 시장을 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출판사들이 시장에 뛰어든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2년 전자책 원년 선포는 ‘출판사들이 안심하고 전자책을 발행해도 좋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다.

전자책 가격의 적정선은 어디에?

출판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전자책의 가격 문제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은 전자책 구매를 좌우하는 큰 요인임에 틀림없다. 한국출판인회의가 권고하는 전자책 가격은 종이책의 70% 내외, 종이책 제작에 따르는 제반 비용을 제외한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소비자는 이 가격을 선택할 수 용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분야에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돼 있다.

종합 베스트셀러 <해를 품은 달>을 출간한 파란미디어는 지난해 소설 <왕은 사랑한다>를 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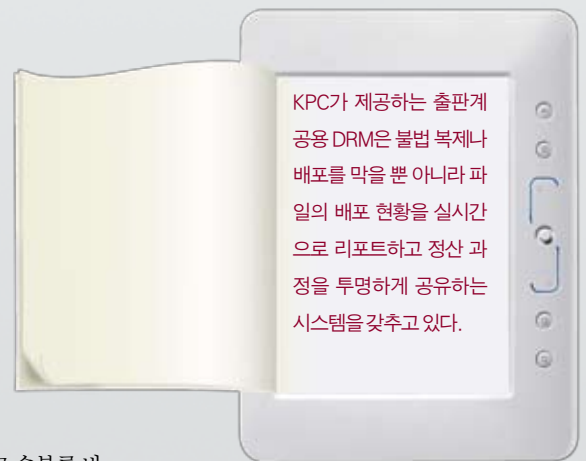
책으로 발행한 바 있다. 하지만 그 판매 실적은 매우 미미했다. 가격은 종이책 정가의 70% 수준인 9,000원이었는데 현재 전자책 시장에서 장르소설이 3,000~4,000원에 판매되는 것과 비교하면 가격 경쟁력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다고 3,000~4,000원에 판매한다는 것은 출판사의 이익뿐 아니라 저자의 이익도 침해하는 일이 된다.

정종호 한국출판인회의 위원장은 “전자책 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출판의 질 저하를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자책의 합리적인 가격 책정이란 저자와 출판사를 비롯한 출판계의 입장과 무형의 디지털 파일에 대가를 지불하는 데 대해 소극적인 소비자 사이에서 적당한 지점을 찾는 일이다.

전자책, 종이책과 공존할 수 있을까

이문영 파란미디어 주간은 전자책의 가격, 이익 문제와 더불어 전자책 출시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전자책 시장이 종이책을 잠식할 가능성을 꼽았다. 전자책이 종이책을 대체할 경우 출판편집과 디자인, 인쇄제작, 유통 등에 특화된 출판사의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솔루션이나 유통업체가 전자책을 주도할 경우 저자와의 직접 접촉에 따른 1인 출판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문영 주간은 “전자책 시대의 출판사는 저자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출판사의 기능이 단순히 종이책을 찍어내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출판의 내용과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가능한 한 많은 독자에게 책이 읽힐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출판사로서는 콘텐츠의 힘을 강화하면서 전자책 시장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전자책 시대에도 책은 솔루션이나 가격이 아니라 콘텐츠의 힘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러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출판사들이 전자책 시대의 도래를 전망할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형선 KPC 팀장은 “음반 시장의 변화에서 교훈을 얻자”고 주장한다. 그는 “음원권자들이 시장 변화에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유통업체에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기면서 디지털 음원의 수익 대부분이 유통사에 돌아가는 기형적인 시장 구조가 형성됐다. 저자, 출판사, 유통사들이 전자책 시장 구조를 정립해야 출판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으로서는 전자책이 도서 문화를 바꾸고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를 모색하면서 종이책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전자책의 시대를 여는 시기가 아니라 방법이라는 것이 출판계의 공통된 고민이다.



글 김문영

대학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문화교양지 <나이고 싶은 나>, IT 및 모바일 분야의 매거진 <싸이버저널> <엠톡> 등의 기자로 일했다. 현재 편집대행사 대표 겸 자유기고가로 일하고 있다. 사람, 예술, 디지털 등 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글을 쓴다.

독자 스스로 전자책의 가치 인정하고 책임감 느낄 때 '희망' 있어

책의 미래를 여는 파수꾼들, 전자책의 현재를 말하다

지금 '책의 위기 시대'라고 한다. 갈수록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으니, 책도 팔리지 않는 까닭이다. 사실 출판계의 불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종이책을 출간하는 대부분의 출판사는 전자책(e-book) 사업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렇다면 전자책이 출판계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문화+서울」편집팀은 현재 출판사에 몸담고 있는 실무자들을 초청해, 전자책을 중심으로 출판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특별 대담을 진행했다. 열린책들 디지털콘텐츠팀 김미래, 길벗출판그룹 디지털콘텐츠사업팀 이광희 대리, 위즈덤하우스 정은선 과장이 대담에 참석했다.



문화+서울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문화+서울」이 마련한 특별 대담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각자 출판사에서 펼치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위즈덤하우스(이하 위) 저희 위즈덤하우스는 전 분야의 도서를 종합적으로 기획 및 출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서 앱인 〈사소한 차이〉 〈하버드대 24주 행복 연습〉 〈김제동의 지금 만나러 갑니다〉와 같은 경제 경영 및 자기 계발 분야에 주력하고 있으며 전자책도 출판하고 있습니다.

길벗출판그룹(이하 길) 길벗출판사는 문학보다는 〈시나공 토익시리즈〉나 제2외국어 〈무작정 따라하기〉 시리즈,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 무작정 따라하기〉 같은 인문 경제나 철학, IT, 어학서적 출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열린책들(이하 열) 열린책들은 실용서보다는 고전문학 쪽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2011년 3월부터 세계문학 브랜드 중심으로 전자책 제작 사업을 시작했고 4월에는 〈도스토예프스키〉 전집을 발간했습니다. 별도의 전송권 계약이 필요하지 않은 도서의 경우 전자책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고, 프로모션으로 체험판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토대 마련되지 않은 전자책 시장에 적응해나가는 것이 급선무

길 전자책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어떤 디바이스나 뷰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콘텐츠의 외적인 요소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무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전자책 시장에 콘텐츠나 채널들이 새로 생겨날 때마다 적응해나가는 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 코딩의 경우,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지만 사소한 것들, 이를테면 폰트의 크기나 줄 간격 등 기본적인 편집디자인 업무에서 내부의 협력을 끌어내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종이책과는 매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서로 조율해나가는 것이 관건이었지요.

위 전자책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고충이었습니다. 수익 배분은 물론 저작권, 도서정가제 등 기본 출판 시장에 비해 기본적인 협의나 규율 등이 이뤄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위즈덤하우스에서는 처음 전자책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규정을 자체적으로 하나하나 마련해나갔습니다.

열 저희 출판사도 생소한 분야를 막 시작한 터라, 궁금한 점을 묻거나 조언을 얻을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전자책 분야의 중요성을 편집자나 디자이너에게 인식시키는 일도 어려웠습니다. 현재 전자책 분야가 열풍이라고 하지만, 종이책이 출판사의 가장 주요한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내부적으로 종이의 퀄리티나 편집의 중요성은 모두 신경 쓰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전자책의 디자인이나 편집 퀄리티에 쏟는 무게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길 예전에 썼던 프로그램은 '킵 익스프레스'였습니까. 예전에 출간된 도서를 PDF로 변환하면서 킵 익스프레스와 충돌이 발생해 글씨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위즈덤하우스
멀티콘텐츠사업부
정은선 과장



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페이지마다 수작업이 필요했죠. 과거의 책들을 끌어와 데이터베이스화도 해야 하고, 새로운 룰도 만들어야하고, 또 편집부와 협의하고 조율해야 할 사항도 많아지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다보니 아무래도 지금의 실무자들이 고생을 가장 많이 하고 있죠.

위 위즈덤하우스는 전자책 사업을 시작한 지 꽤 되어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전자책의 급작스러운 유입에 발맞추는 일에는 심리적 거부 기제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전자책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자책 출판에 뛰어든 새로운 IT인력을 위해서도요. 지금 출판사들이 당장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전자책보다는, 여전히 종이책에 주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전자책이 나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길벗출판그룹 디지털 콘텐츠
사업팀 이광희 대리

저렴한 가격, 편의성 고루 갖춘 전자책의 가치 높이 평가 받을 만

길 예전에는 정말 전자책 하면 망한다는 소리도 했습니다. 그전에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책 사업이 분명히 있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자책을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해요. 아마 체계적으로 잘 키웠으면 지금쯤 우리나라 전자책 시장이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문 해당 분야의 최전방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이다보니, 아무래도 고충이 많다는 점을 심분 이해합니다.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실무자들이니, 종이책보다 전자책을 더 많이 읽을 듯한데요, 실제 활용도는 어떠한가요?

길 저는 필요한 콘텐츠는 대부분 전자책으로 구입하는 편입니다. 자료가 필요할 때 바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 매우 편리해서 자주 이용합니다.

열 저는 오랫동안 소장하고 싶은 책이 있으면 하드커버를 구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페이퍼백을 구입했는데, 이제는 가볍게 읽을 책이라면 모두 전자책을 구입합니다. 앞으로 사용량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위 많은 사람이 김미래 대리님과 비슷한 방식으로 전자책을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또 독자의 성향에 따라 디바이스가 달라지고, 구입하는 책도 달라지고요.

길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디바이스가 달라지니까요. 태블릿 PC는 주로 30대에서 사용빈도가 높는데 목적인 텍스트의 도서를 주로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디바이스의 경우, 사용 층이 넓으니까 이야기가 또 달라지죠. 안타까운 건 안드로이드의 전체 점유율이 iOS보다 월등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에서는 그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블랙마켓이 활성화된 탓에 무료로 다운로드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유료 전자책이나 앱의 가치가 매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독자 스스로 전자책 출판 시장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위 오랫동안 변화가 없는 종이책에 비해, 전자책은 비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은 매출과 불안정한 정책 때문에 실무자들도 고충을 겪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저는 전자책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사실 가격은 종이책에 비해 훨씬 저렴하지만 동영상을 비롯해 풍부한 인터랙티브와 편의성을 고루 갖춘 것이 전자책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종이책, 미래를 말하다

문화+서울 앞으로 전자책이 종이책을 대체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길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대의 경우, 아이클라우드 등의 새로운 IT 기술에 대한 습득이 빠릅니다.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을 전자책으로 구입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가치를 넘어 '전자책'이라는 개념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죠. 과거에 MP3가 처음 시장에 선보였을 때 MP3파일과 CD의 음질을 비교하며, MP3를 폄하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음원 시장을 MP3가 장악한 상황입니다.

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직 미비하지만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그에 따라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저작권 등의 기본적인 정책 문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듯합니다. 앞으로 출판 시장의 판도가 전자책 쪽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따라서 마케팅을 비롯해 기존 유통사 및 새로 생겨나는 유통사와 어떻게 제휴를 맺을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장기적인 준비를 해나갈 것입니다.

열 열린책들은 앞으로 종이책으로 구현할 수 없는 양식의 편집 방향에 대해 고민할 것입니다. 전자책 산업이 종이책의 다른 플랫폼이라는 인식보다는, 전자책 문화를 향유하는 세대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콘텐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 세계적으로 전자책을 구매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자책은 물류비용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출판시장에 나설 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음악을 소유하려면 오프라인 앨범을 사고, 소비하려면 온라인 다운로드를 하는 것처럼 종이책도 저렴한 가격의 양질의 콘텐츠를 마음껏 소비하는 문화로 자리잡을 시기가 왔다. 전자책과 종이책은 보완재가 아니라 대체재로도 볼 수 있다. 게다가 출판시장의 열쇠는 출판인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손에 쥐어져 있으니, 우리 앞에 다가선 새로운 문화 혁명 앞에 주춤거리기 유는 없을 것이다. 바야흐로 꽃 피어나고 햇살 만연한 여유의 계절이 왔다. 독서의 해를 맞아 두 손에 가볍고 내용은 묵직한 전자책 한 권 담아 보는 것 어떨는지.

진행 및 정리 **허주희**

꿈을 펼치는 여행자가 겸 자유기고가. 2009년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 대상 개인상 부문 취재대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인터뷰집 <나의 삶, 나의 아침> <떠나라! 청춘아!> 등이 있다.

사진 **박정훈**

사람과 공간에 관심이 많아 그런 작업을 좋아한다. 박정훈사진작업실을 운영하고 있다.

열린책들 디지털콘텐츠팀
김미래



전자책 베스트셀러에서 1인 출판 시대까지

전자책 트렌드를 읽는 몇 가지 키워드



최초의 전자책 베스트셀러 작가 아만다 호킹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세계 전자책 역사에 기록될 만한 한 소녀가 미네소타 주 변두리에서 태어났다. 그녀가 어릴 때는 집이 너무 가난해 케이블 TV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책 읽기였다. 일곱 살 때 이미 제인 오스틴, 스티븐 킹, 셰익스피어 같은 작가의 작품을 탐독했다. 지루하고 심심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 소녀가 선택한 것은 장편소설을 읽는 것이었다. 열두 살에 이미 짧은 이야기를 50편 정도 썼고 열일곱 살에 첫 소설을 완성한다. 그리고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다. 하지만 실패. 그녀는 자그마치 8년 동안 지독한 가난과 싸워가며 글을 썼다. 그리고 그동안 단 한 권도 책으로 출간되지 않았다. 2010년 그녀는 스물다섯 살이 되었다. 그녀는 <머펫(the muppet)>이라는 TV 프로그램의 광팬이었다. 6개월 후에 시카고에서 열리는 머펫 전시회 소식을 듣고 너무 가고 싶었다. 비용은 300달러. 이 돈이 없어 아마존에 자신의 소설을 전자책으로 올린다. 이전까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출판사나 저작권 에이전시를 통한 종이책 출판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출판사에서 8년 동안 거절만 당해왔다. 이 때문에 셀프 퍼블리싱 혹은 개인 출

판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아마존의 개인 출판 솔루션인 'Kindle Direct Publishing'을 이용해서 자신의 첫 책을 등록한다. 작가인 그녀가 직접 출판을 한 것이다. 6개월 후, 그녀가 머릿 전사회를 보기 위해 필요했던 300달러를 포함해서 아마존으로부터 결제받은 수표는 2만 달러였다. 책은 총 1만 5,000카피가 팔려나갔다. 2011년에는 한 달에 10만 카피가 넘게 책이 팔려나갔고 아마존의 '킨들 백만부 작가 클럽'에 가입한다. 현재까지 200만 달러가 넘는 인세를 벌어들였다. 그녀의 작품 중 <트라이드 롤리지>는 할리우드에서 영화 제작 계약을 맺고 현재 시나리오 작업 중이다. 아마존 킨들 베스트셀러의 대표적인 작가이며 로맨스 스릴러, 판타지 로맨스 소설가. 그녀의 이름은 바로 아만다 호킹(Amanda Hocking)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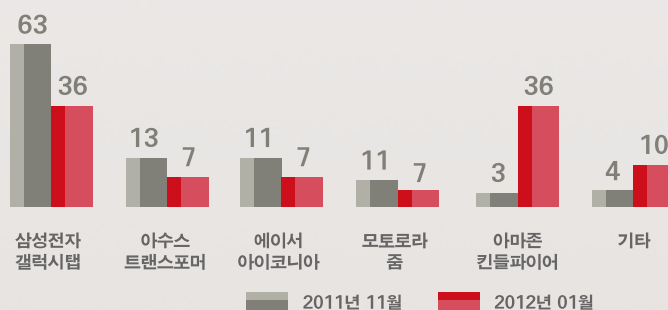
이 비슷한 작가로 유명한 사람으로 범죄 소설을 주로 쓰는 존 로크(John Locke)가 있다. 그는 한 때 킨들 베스트 10위 안에 자신의 소설을 6권씩이나 올려놓았다. 100만 달러가 넘는 인세를 벌어들였다. 호킹과 로크 말고도 몇몇 작가가 고수익을 올리며 킨들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자신의 책을 올리고 있다. 한국에는 스포츠 소설 <축구 이야기>를 쓴 JOON이라는 필명을 가진 작가가 10만 카피를 팔아서 범상치 않은 수익을 올렸다. 그들이 작품을 위해 쏟았던 노력은 말로 다할 수 없었을 것이다. 'Sorry'로 시작하는 출판사의 거절 편지를 수십 통 받아가며 좌절을 거듭했을 마음은 짐작할 만하다.

내 손으로 만드는 책, 독립 출판

저자들이 직접 출판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드문 일이었다. 출판사가 출간을 거절한 원고의 경우 저자가 제작비를 직접 대거나 출간 후 책의 일정 부수를 되사는 형태로 '자비 출판'이라는 방식이 있어왔다. 과거 많은 저자는 출간 자체에 의미를 두었다. 자신이 이름이 박혀 있는 책 표지와 출판사의 이름도 필요했다. 이것은 책을 쓴 저자라는 사람이 일종의 사회적 권위를 갖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출판사를 활용하는 자비 출판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출판 등록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 개인 출판이다. 기획, 저술, 편집, 교정교열, 표지 및 내지 디자인, 물류와 판매까지 모든 것을 한 명이 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일부 과정은 외주 형태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전체 과정을 한 사람이 다해야 한다. 아만다 호킹도 자신의 책의 표지 디자인을 직접 했다. 아마 디자이너에게 줄 돈이 없었을 것이다. 종이책으로 개인 출판을 하게 될 경우는 최소 1000만원 안팎의 돈이 들어간다. 그리고 유통과 마케팅도 무척 힘들다. 높은 비용 때문에 교육용 교재 즉 강사가 직접 써서 교재로 사용하는 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개인 출판은 전자책으로 출간된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패드 시장점유율 (단위: %)

자료 | 플러리



내 취향에 맞춰 고르는 전자책 기기, 그리고 앱

이 전자책 개인 출판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온라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편집과 디자인, 유통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만 가능하다. 이것을 제공하는 것은 출판사가 아니다. 출판사는 고정비와 제작비가 투자되는 전통적인 출간 시스템 때문에 모든 원고를 소화할 수 없다. 이 분야에 투자하는 쪽은 인터넷 서점이나 통신사, 애플 같은 디바이스 회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들이다. 이렇게 개인 출판을 위한 전자책 제작에서 유통까지 지원하는 e-book 플랫폼

숫자로 보는 iPad

2011년 4분기에 판매된 iOS 기반 기기

6200만대

iOS 기반 기기 누적 판매대수

3억1500만대

아이클라우드 사용자 수

1억명

아이패드2의 인하된 가격

399달러

(16GB, 와이파이 지원)

아이튠스 앱스토어 앱 다운로드 건수

250억건

아이패드용 앱 개수

20만 개 이상

앱스토어에서 파는 앱 개수

58만5000개

아이패드 누적 판매대수

5500만대

에는 20억~30억원씩의 개발비가 투자된다. 애플리케이션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투자되지는 않는다. 아마존은 앞서 이야기했던 KDP를 무료로 제공하고 애플은 한 달 전쯤 교과서와 교재 시장을 대비한 출판 플랫폼 IBOOK AUTHOR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도 KT의 올레이북과 SKT도 얼마 전 트레이드올북을 오픈했다. 교보문고의 pubple 서비스도 오픈해 작가들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한국의 개인 출판 시장은 10여 년 전 통신 소설과 인터넷 무료 연재 소설 사이트 조아라, 로망띠끄, 문피아 같은 사이트와 연계해서 전자책이 만들어진다. 주로 대중소설 즉 로맨스, 판타지, 무협, 추리, 공포 소설 등이 연재되고 종이책이나 전자책으로 출간되곤 했다.

현재는 2000만 대가 넘게 보급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기반으로 iOS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기반의 도서 앱들이 출간과 판매까지 겸할 수 있게 제공되고 있다.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게임 애플리케이션이 더 많을 것 같지만 실제 게임 앱과 비슷한 규모로 도서 앱이 제공되고 있다. 각각 점유율이 14%로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앱은 서점형 앱과 출판형 앱으로 나뉜다. 국내에서도 유명한 일본 작가 무라카미 류는 <노래하는 고래>라는 책을 종이책 없이 앱북으로만 출시했다.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 요시모토 바나나 등과 함께 G2010이라는 출판사를 창업해서 현재 앱북 제작을 직접 하고 있다. 서점형 앱의 경우 보통 여러 저자와 출판사의 많은 책을 판매하고 있다. 개인 출판은 이제 글과 사진만 있으면 별도의 앱을 개발하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아직 아마존에서 한국어 도서에 대한 개인 출판이든 일반 출판이든 전자책 판매 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나 내년 안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애플의 경우 한국 계정에서 전자책 등록이 안 되고 미국 계정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이 한계이나 이것도 곧 풀릴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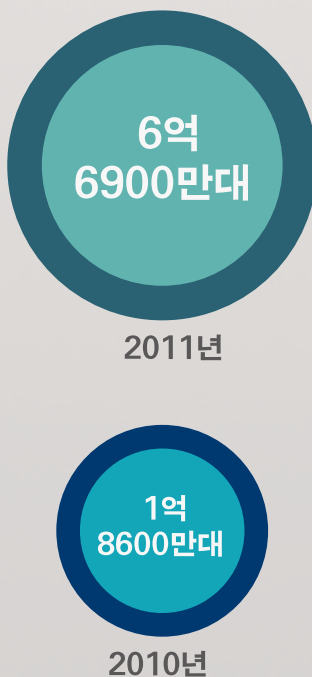
전자책 시장, 지금 뜨는 베스트셀러를 잡아라

이제까지 전자책의 저자와 제작 시스템을 알아봤다면 이번엔 시장에 대해 생각해보자. 미국출판협회(APP)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77개의 출판사가 2011년에는 총 9억 7000만 달러의 전자책 매출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 협회의 회원사는 총 300개다. 2011년 4/4분기에 아마존 킨드 파이어가 500만 대, 아이패드2는 154만 대가 판매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세계 5대 출판사의 하나인 펭귄출판그룹의 CEO인 존 매킨슨(John Makinson)은 2011년 4/4분기를 '먹구름(dark clouds)'이라고 불렀다. 예년에 못지않은 베스트셀러 예상 종이책들을 출간했으나 시장의 반응이 참혹할 정도로 냉담했다고 말한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2위 서점인 보더스가 도산했다. 1위 서점 체인인 반즈 앤노블스는 아마존에 독점으로 전자책을 제공하는 출판사의 모든 책을 자사의 1300개 전국 매장에서 빼버리기까지 하고 있다. 전자책과 종이책의 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미국은 전자책 때문에 실제 종이책 판매량이 줄고 있고 2011년 급격히 증가한 전자책 시장의 규모는 약 2조 5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체 책 시장 점유율이 2010년 4%에서 2011년 약 8% 내외로 높아진 것이다. 그렇다. 미국에서는 본격적인 전자책 시대가 열렸다. 전자책은 이미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2009년까지 미미한 규모의 전자책 시장은 2010년부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2011년과 2012년 향후 5년간 성장률을 예측해볼 때 2017년에는 미국 전체 출판 시장에 30%를 전자책이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시장은 주로 도서관에 전자책을 납품하는 공공 시장에서 시작되었다. 400억원 내외의 고정

된 전자책에 대한 도서관 구매가 매해 진행된다. 지난해부터 B2C 시장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교보 문고의 발표에 따르면 전자책 B2C 판매가 190% 증가했다고 한다. 〈스티브잡스 평전〉 한국어판 전자책이 전 세계 아이북스토어 베스트셀러 10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국내 시장은 베스트셀러를 전자책으로 변환해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시장과 종이책 없이 전자책만으로 출간하는 시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번역서에 경우 출판사에서 전자책 판권까지 계약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아직 저자들이 전자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에 국내 저작물도 전자책으로 다 전환되지 않고 있다. 대신 장르문학 중심으로 계속 커가는 시장을 볼 수 있다. 로맨스 전문 출판사 중에 하나는 종이책보다 전자책 매출이 높은 경우도 있다. 개인 출판 도서는 종종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한다. 〈센스&난센스〉(최광희의 사는 이야기, 영화 이야기)는 종이책 없이 교보문고에서만 팔리는 일종의 개인 출판 도서다. 6,000원에 판매되는데 출간 첫 주 167 카피가 판매되었다. 전자책 종합 베스트셀러 20위 안에 계속 올라와 있는 책이다. 베스트셀러 중 절반 정도는 종이책 없이 전자책으로만 출간된 책들이다. 이 책들이 바로 개인 출판 시장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체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반 정도는 개인 출판이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전체 스마트패드 판매량
자료 |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



지금부터 나도 작가, 개인 전자출판

전자책 베스트셀러 작가가 탄생하고 시장도 넓어지고 개인 출판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도 갖춰졌다면 이제 우리에게 저자가 되는 일이 남아 있다. 전자책 개인 출판을 하고 싶다면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우선 가격이다. 전자책은 보통 2,000원 내외로 가격이 결정된다. 낮은 가격이므로 원고의 양도 적은 편이 좋다. 적은 분량의 원고 예를 들어 원고지 200매 내외를 2,000원 정도의 정가를 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분야는 대중소설과 실용 즉 취미, 건강, 요리에서 경제경영, 자기계발류의 책들이 매출이 높은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책의 품질이다. 재미있고 감동적이며 유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종이책이나 전자책이 판매될 때 갖춰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다는 돈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어보자. 종이책의 인세는 정가 대비 10% 정도다. 개인 출판은 서점과 직접 거래하게 되므로 판매가 대비 60~70% 정도의 인세를 받을 수 있다. 정가 1만 2,000원짜리 도서가 한 권 팔릴 때 저자가 받는 인세는 1,200원이다. 개인 출판을 한 전자책 판매가가 2,000원이라고 할 때 1,200원 이상의 인세를 저자는 서점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비싼 책보다 박리다매로 전자책 출간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종이책은 선인세가 있어서 계약을 하고 출간하게 되면 인쇄되는 만큼 돈을 받게 된다. 앞의 경우에는 2,000부를 찍었다면 240만원을 선인세로 받게 된다. 하지만 전자책은 선인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팔리는 대로 인세를 결제받는다. 게다가 종이책은 전문 출판 기획자, 편집자, 디자이너, 마케터의 지원을 받아서 기본적인 책의 품질을 갖추지만 개인 출판 전자책은 그러기 힘든 경우가 많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세상 원리가 이곳에도 적용된다.

글 이동준

매월 한겨레문화센터 신촌점과 분당점에서 무료 특강 '전자책 저자되기 입문'을 진행하고 있다. 전자책 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timidbear@naver.com을 통해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소설〈흑산〉펴낸 소설가 김훈

지금 우리 앞의 삶과 마주하는 법

지난해 소설〈흑산〉으로 4년 만에 새 역사소설을 출간한 작가 김훈. 경기도 안산 선감도 경기창작센터에 칩거하며 손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 간 그의 소설에는 19세기 초 조선 사회의 전통과 충돌한 젊은 지식인들의 치열한 내적 갈등이 그려져 있었다. 역사 속 인물들을 통해 우리 시대의 영혼을 깨우는 작가 김훈, 그가 들려주는 삶과 사람, 그리고 세계관에 관한 이야기.

기억의 공간





지난해 스페인으로 자전거 여행을 다녀오셨죠? 요새도 자전거 즐겨 타시나요?

자전거는 봄에 주로 탑니다. 요사이는 주로 걷지요. 보통 여섯시쯤 일어나 여덟 시까지 산책을 합니다. 새벽운동이 몸에 맞아 눈이 잘 뜨여요. 잠 자리에서 꾸물대는 일이 체질에 잘 맞지 않거든요.

이제 곧 봄이니 자전거 타기도 수월해지시겠어요. 자전거는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일산에 이사한 지 15년 됐어요. 그땐 이 근처에 우리 집을 포함해서 집이 딱 두 채 뿐이었어요. 그때 자전거를 처음 탔죠. 처음 자전거를 탄 날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이 좋은 걸 여태 모르고 살았을까? 참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앞으로는 자전거만 타겠다고 결심했지요.

자전거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페달을 밟고 바퀴를 굴려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좋았어요. 외계(外界)와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기분이 온 몸으로 느껴졌죠. 현대인들은 자신과 삶 사이에 직접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사이를 차단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언론이나 컴퓨터, 텔레비전, 책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글로써 이것들을 걷어내고 인간과 삶이 직접적인 관계에 놓이도록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전거 말고 또 즐기시는 취미가 있으신가요?

제가 수집한 망원경이 다섯 개 정도 있는데, 각자 기능이 달라요. 군용도 있고, 새나 동물을 관측할 때 쓰는 것, 멀리 있는 것을 끌어 당기는 망원경도 있지요. 저는 이것들을 모두 배낭에 넣고 자전거를 타고 강 근처로 나가고는 합니다. 가서 망원경으로 강 건너편에 있는 것들을 보고는 하지요. 지나가는 사람들, 개, 아이들, 노인, 용달차나 여자들, 멀리 있는 걸 가까이서 직접 보는 느낌이 좋아요.

삶과 인간 사이, 보다 직접적인

직접 관찰하고, 경험하는 작업 방식이 요즘 사람들의 일상과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제 글이 일상성 위에 바탕 했으면 합니다. 제 모든 이야기가 삶의 구체성 위에 놓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들 중에도 웃자란 말들이 있어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풀들이 갑자기 웃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웃자란 풀들은 대부분 열매를 맺지 못하지요. 저는 제가 장악할 수 없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예컨대, 사전에서 '노랑다'를 찾으면 '개나리 꽃빛'이라고 나옵니다. 물론 이 말은 맞는 얘기지만 동시에 하나하나 한 이야기와 같지요. 이젠 새로 나온 사전에서 찾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나온 사전에는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전개되는 스펙트럼 중 세 번째 층이다'라고 나옵니다. 이것 역시 맞는 얘기인 동시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과 같죠. 사전을 쓴 사람을 비판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란 게 원래 그래요. 동어반복의 세계에서 빠져 나오기가 힘들지요.

서재에 사전이 많이 보이는데, 공구로 쓰시는 건가요.

집필을 하면서 사전을 많이 들여다봐요. 하지만 사전을 많이 본다고 해서 인식의 영역이나 표현이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영역을 넓히려면 동어반복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러려면 많은 노력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말이 갖는 추상성에서 벗어나야 해요. 제가 여기 '개'라고 쓴다고 가정해봅시다. 하지만 진짜 개는 저 길 위에서 짖어대고 있는 것이 진짜 '개'죠. 제가 쓴 '개'는 개의 기호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문제예요. 언어의 추상성, 간접성, 동어반복에서 벗어나 인식과 표현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이 글을 다루는 사람의 고통인 것이죠. 그에 비하면 음악이나 그림은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장르지요.

그래서인지 선생님 글의 매력은 과잉이 없이 절제된 맛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쓸 수 있는 말들이 점점 줄어요. 소설도 그렇지만 심포니처럼 구조가 완강한 장르가 저는 버거워요. 저도 젊었을 적엔 문장이 참 길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문장이 짧아졌죠. 더 짧고 급박한 문장으로 주어와 동사만 가지고 장편소설을 쓰고 싶다는 허영심이 있어요.

역사 소설 쓰시면서 좋아하는 역사적 인물들이 있으실 텐데요.

굳이 꼽자면 안중근이나 윤동주, 김대건 신부를 좋아합니다. 김대건 신부는 서른전에 죽었어요. 윤동주도 젊어서 죽었지요. 서른이 채 되기도 전에 세계의 악을 향해 자신의 몸을 던진 젊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요. 저기 벽에 걸린 안중근 사진은 그가 사형당하기 얼마 전 찍은 사진입니다. 표정이 참 편안하죠. 체포될 때 찍힌 사진보다 더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항소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편지와 함께 부쳐진 한복을 입고 있네요. 저들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쓸 수 있을지 고민 중입니다.

이순신은 어떤가요? (웃음) 대표작을 탄생시킨 인물이잖아요.

이순신 좋아하죠. 또 우륵을 좋아합니다. 우륵은 가야금 예술가예요. 우륵이 살던 가야는 작은 부족국가였어요. 하지만 곧 신라에 의해 멸망하고 말죠. 그때 우륵이 가야의 높은 관리였는데, 신라가 쳐들어 올 때 가야금을 들고 신라로 귀순했어요. 우륵은 악기를 들고 조국을 배반한 예술가에

요. 우륵의 가야금은 곧 신라를 장악합니다. 신라의 영혼을 지배하는 악기로 가야금을 빼놓을 수 없죠. 재미있는 건 가야금이 가야에서 신라로 넘어오기 전까지 그저 '금'이라고 불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금이 신라로 와서 가야금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우륵은 자신이 배반한 조국의 이름을 악기에 붙여 후세에 전한 거죠.

소설을 쓰시면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이를 테면 독자들에게 일컬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웃음)

저는 독자를 계몽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과 느낌, 내면을 글로 잘 드러냈는 지만 생각하지요. 그것이 독자와 소통해 이해를 받았다면 좋은 것이고,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요. 완벽한 표현이라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요. 다만 노력할 뿐입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걸 보면 그림이나 음악을 다루는 사람들이 참 복되어 보여요.

소리나 색은 발산하는 순간 자족하는 세계잖아요. 특히 음악이 그렇지요. 보충이 필요 없고 스스로 완벽한 장르예요. 그에 비하면 글은 결핍의 바탕에서 쓸 수 밖에 없습시다. '사랑'이라고 쓰면 그것은 동시에 사랑의 결핍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사랑이 충만하면 왜 사랑이라고 쓰겠어요. 전 내세엔 책이 한 권도 없는 세상에서 한대수처럼 살고 싶어요.

삶의 의문을 제기하는 글쓰기

가수 한대수씨 말씀이세요?

네. 한대수씨는 <행복의 나라로>라는 곡을 이십대에 썼어요. 그 후엔 미국에도 갔다가 일본에서 리사이틀을 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자유인의 기상을 가진 스타였죠. 또 김추자씨 목소리를 좋아합니다. 현실을 부정하면서 더 높은 세계로 올라가려는 듯한, 다른 세계를 지향하는 환각의 힘이 있어요. 한대수씨는 이런 모든 요소를 다 포함한 자유의 힘을 지녔죠. 가수의 음색이라는 건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마치 작가의 문체와도 같지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자주 다니던 음악감상실이 있어요. 세씨봉이나 디세네, 르네상스. 그 시절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음악이란 다 뻔하거든요. 그런데 종로나 무교동에 그런 음악감상실이 등장했으니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예쁜 여학생들도 있고. (웃음) 다들 마니아들 마냥 공연 시간표를 다 꿰고 있었어요. 그 시절 한대수씨가 나의 스타였죠.

한대수씨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자유'라는 화두를 빼놓을 수가 없는 가수죠. 음악 즐겨들으시나봐요.



전 소설가라면 자기 시대 대중가요를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중의 정서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대중가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대중의 정서를 직접 지배하는 사람들이지요. 이걸 대통령이나 소설가도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대중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장악하는 그 순발력을 따라갈 수는 없지요. 물론 나는 요즘의 대중가요를 다 알지는 못해요. 이젠 저도 나이를 먹어, 제 시대 가수들과 더불어 늙어가고 있지요.

자유로움을 추구하는데 글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걸까요?

안 된다고보다 음악만큼 직접적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글은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힘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와 시대 상황을 반성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힘이 있지요. 지금 제 삶이 정당한 삶인지 아닌지를 묻는 힘. 그림이나 음악에도 그런 힘이 있지만, 그것이 글처럼 논리화되지는 못하지요. 논리와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글의 좋은 점입니다.

선생님도 ‘나는 왜 쓰는가?’에 대해 고민하시나요?

사실 저는 ‘왜 쓰는가’하는 질문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쓸 뿐이지요. 이따금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아주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질문들을 합니다. ‘소설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하는 질

문들이지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온갖 거짓말을 다 동원해 대답할 수 있어요. 무엇을 말해도 답이 되거든요. 무언가 묻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묻지 않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가르쳐야 해요. 어떤 것을 어떤 방법으로 물어야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궁금해요. 글을 쓴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또 왜 쓰는 것일까.

글쎄요. 우선 밥을 벌어먹기 위해 쓰지요. 그리고 나를 표현하기 위해 씁니다. 조금 전 말했듯 세상엔 표현되지 않는 것이 많으니까요. 딱히 어떠한 답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학생들에게 구체적이고 내용이 있는 물음을 제기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자기 주변의 삶과 상황을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왜 이러한가, 이것과 저것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현실을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지요. 어떤 현상을 보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드는지, 내게 유리한 것인지, 저 사람은 내편인지 아닌지 먼저 따져보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해요.



최근에 쓰신 <흑산> 이야기를 해볼까요? <흑산>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5년 전부터 자유로를 오가면서 절두산 성당 절벽 앞을 자주 지나다녔지요. 그러다 그 작은 바위 덩어리 앞에서 150여 년 전 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끔찍한 학살의 현장인데 지금은 차들이 뺑뺑이 들어선 일상의 풍경이지요. 일상의 공간이 되어버린 절두산 절벽 앞에서 강한 억압을 느껴요. 그리고 그걸 글로 써야겠다고 생각한지는 꽤 오래됐어요. 그 후로도 절벽 앞을 지나가야 할 일이 많았는데 매번 답답함을 느껴요. 그리고 결국 펜을 들어 쓰게 되었습니다.

선감도, <흑산>에 관한 기억들

집필 과정 중에 특별히 기억하시는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책을 쓰면서 흑산도 여러번 갔는데, 그곳에 가도 옛날의 자취는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풍경과 느낌을 담아오는 과정이 중요했지요. 그런 구체성이 없으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곳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개들이 돌아다니는 것도 보지요. 풍경과 느낌을 얻으면 내가 쓰려는 것에 실체가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료가 준비되었다 싶었을 때, 선감도로 들어갔어요. 지금도 그때 선감도 작업실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좋았어요.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작센터 레지던스 시설이었는데, 그곳에서 7개월 가량 머물렀습니다. 자전거도 가져다 뒀죠. 작업실는 도배지를 바른 벽에 작은 책상 하나, 접시 하나, 나무젓가락이 전부였어요. 냉장고에는 찜갈비와 달걀, 소금, 소주 한 병을 두고 지냈지요.

내 방에서 갯벌을 따라 15분쯤 자전거를 타면 식당이 있는데, 매일 그곳에서 아침을 먹고 두끼 분량의 식사를 사오곤 했지요. 그리고는 온종일 글을 썼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비가 오는 날이면 방 안에서 라면을 끓이거나 끓는 물에 가래떡을 끓여 간장에 적어 먹곤 했지요.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주 좋았어요. 건강해졌고, 다만 그렇게 지내다 보니 사람을 만나도 말이 잘 나오지 않더군요. 할말이 생각나도 머릿속에서 말을 고르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나서야 말이 천천히 되돌아왔지요.

책은 따로 들고 가지 않으셨나요?

저는 책을 많이 읽었지만, 책을 많이 읽은 것이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좀 전에 말했듯 내세에는 책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지금은 책을 읽으면 대부분 버립니다. 작업실에는 사전이나 소설을 쓰는데 공구가 되는 책들만 소장해 뒀지요.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의 이런 모습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가끔 대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하다 보면 꼭 2차적, 3차적 자료를 이용해 과제를 해오는 친구들이 종종 있거든요.

저도 글을 쓰지만 책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남한산성>을 쓸 때도 많은 자료를 읽었어요. <조선왕조실록>도 여러 번 읽었는데, 정작 책을 쓰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지요. 임금이 성으로 들어오니까 사대부들이 다 따라 들어왔지요. 사관도 따라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지요. 문제는 왕 옆의 사관은 왕의 주변에 대해서만 쓴다는 점입니다. 성이 포위되었는데 사관은 성 밖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성 안에는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서당도 있고, 대장간도 있는 자족한 마을이었지요. 그런 마을에 임금이 들어오니까 청나라군이 따라와 포위를 한 것입니다.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임금 때문에 고향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지요. 임금이 오지 않았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그때 백성들이 임금을 어떻게 욕했냐는 거였어요. 백성은 애국심과 충성심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이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자료는 존재하지 않아요. 누가

그런 걸 기록하겠어요. 저에게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지요.

또 백성들은 임금을 따라 성 안으로 들어온 지식인 사대부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어떤 인식으로 그들을 바라봤는가. 결국 이젠 제가 지어낼 수 밖에 없어요. 물론 완전한 허구로 지어낼 수는 없지요. 일상성이 그 바탕에 있어야 합니다. 허무맹랑한 허구를 지어내는 건 상상력이 아니라 억지니까요.

선생님 글은 시각적인 상상력을 자극해요. 등장인물도 구체적이고,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그 이름들도 하나같이 재미있고, 인물의 성격을 연상시키죠.

등장인물의 이름은 제가 지어낸 것도 있지만 자료를 토대로 붙여진 것도 있어요. 정조임금이 수원 화성을 만들면서 그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한 <화성성역의궤>라는 책을 펴냈어요. 성을 지을 때 동원된 백성들의 이름과 역할, 노임까지 기록되어 있지요. 어떤 이는 이름이 ‘큰놈’, ‘작은놈’이기도 하고, 쉽고 재미있는 이름이 많아요.

예를 들어, <흑산>의 ‘마노리’라는 캐릭터도 그 생김새와 캐릭터, 이름이 참 잘 어우러져요.

마노리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아주 중요한 메신저 역할을 맡았죠. 저는 마노리를 스스로의 마음 속에 영성을 간직한 인물로 그려내려고 했습니다. 저는 인간이 꼭 종교를 접하지 않더라도 영성을 발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하층 계급의 사람들, 그 영혼의 빛을 표현할 때 참 행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상으로 영혼을 깨우다

선생님, 한 세대를 지날수록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자꾸 변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인류의 진화로 해석해도 될까요?

그건 진화라기보다는 삶의 새로운 전개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저는 전개의 방향 안에 반드시 선행 가치만 들어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윈의 진화론 역시 아직 완성된 단계는 아니지요. 진화론이야말로 진화하는 중이니까요. 진화론에서 중요한 건 개별적으로 창조된 생명이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미래의 시간 속에 생명을 전할 수가 없지요. 현존하는 모든 생명체는 멸종한 모든 생명체와 관련이 있다고 말해요. 다윈은 이것을 백 만년이 넘는 시간을 통해 증명해나가고 있어요. 참 놀라워요.

하지만 그 진화의 방향이 꼭 도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는 보지 않아요. 도덕적인 방향이라기보단 생존의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이겠지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을 바꾸는 것, 그 진화의 전개 안에서 도덕, 성스러움, 윤리적인 것을 구현해내는 것이 어려운 사명이겠지요.

그래서인지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나가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강한 것 같아요.

저는 <흑산>을 쓰면서 19세기 초, 시대와 인간의 야만성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이 야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일상이자 심지어 미풍양속이라고 생각했죠. 우리 시대 역시 자기 시대의 야만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이 부족해요. 우리 시대의 야만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약육강식’이죠.

그리고 이것을, 즉 자기 시대의 야만성을 들여다보고 해결해나가는 것이 진화의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야만성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야만성 안에서 약육강식을 도모하는 것은 진화하는 것이 아니죠.

<흑산>에 <소학(小學)> 이야기가 등장해요.

소학은 참 아름다운 글이에요. 아주 심플하면서도 자명하죠. 어린이들을 배움에 입문시키는 책인데, 아주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소학의 한 구절 중에 ‘물 뿌려 마당을 쓸고, 어른이 부르면 대답을 하는 것이 도리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아주 자명하고 아름다운 문장이죠. 그리고 일상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고요. 공자는 <논어(論語)>에서도 항상 일상적인 이야기를 해요. 구어체로 생활을 말하죠. ‘네 친구가 먼 곳에서 오는 일은 기쁜 일이다’거나 ‘모르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나’하는 이야기들을 구어체로 전해요. 동양의 경전들은 소박한 일상 속에서 구체적 진리를 말해요. 이게 큰 매력이죠. 사실 이런 기본적인 도덕만 있다면 세상은 아주 평화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마음에 직접 와닿는 진리들이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 시간이었네요.

직접 만져본 것들, 냄새 맡아본 것들, 느껴본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들은 말들, 읽어서 경험한 것들은 내 것이 아니니까요. 손으로 꼭 쥐어보는 것. 생생하게 말아보는 것. 요즘 젊은이들도 그런 기본적인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성장하길 바랍니다.

글 이주은

미술사학자이며, <그림에, 마음을 놓다> <다, 그림이다> 등의 책을 저술했다.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진 박정훈



우리의 일상은 충분히 고통스럽다
그리 스비극처럼
극적이지 않을지라도

전라 <878미터의 볼> 가작가 한현주





대체 어떤 행운이었을까.

이제 겨우 세 편의 희곡을 탈고했을 뿐인데 500석 규모의 남산예술센터 무대에 작품을 올리는 게 2010년 <우릴 봤을까>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3월 20일 시작한 새 공연에는 내용을 짐작하기 어려운 낯선 제목이 달려 있다. 폐광촌을 소재로 한 연극의 제목은 <878미터의 봄>. 숫자는 탄광 막장의 깊이를 상징한다고 했다.

현실과 환상의 간극을 메우는 글쓰기

‘괴물 작가’로 불리는 김지훈 씨의 <풍찬노숙>에 이은 남산예술센터의 2012년 시즌 두 번째 작품은 극작가 한현주 씨의 <878미터의 봄>이다. 지난해 ‘한국 연극의 발전과 극작가들의 창작 여건 토대 마련’을 모토로 벽산문화재단이 제정한 벽산희곡상의 첫 번째 당선작이다.

데뷔 4년 차 극작가로서 일찌감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썸이니 한 것 들며 있을 법도 한데 한씨는 꽤나 무덤덤했다. 느릿하고 나지막한 말투, 그렇지만 작품의 주제와 연관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 등 사회문제를 말할 때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는 “여느 30대 미혼 여성처럼 사랑도 내게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면서도 “그래도 당장은 내 작품이 욕망의 환상을 채우기보다 관객이 현실의 고통을 함께 고민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 당선으로 작품을 인정받은 것도 기쁘지만 무엇보다 제게는 이번 공연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재학 시절부터 오래 묵힌 주제인 폐광촌 이야기를 제대로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어요. 한 주제를 어떻게 잘 풀어갈 것인지를 고민하던 제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방점을 찍어준 무대가 된 썸이죠.”

카지노, 욕망의 지형도를 그린다

<878미터의 봄>은 강원 정선 카지노의 딜러 우영(박윤정 분)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다. 카지노는 과거 우영의 아버지 근석(박상준 분)이 광부로 일하던 탄광이었다. 17년 전 갱도 붕괴 사고로 동료 용만을 잃은 근석은 현재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 문득 사고 이후 탄광을 떠났던 용만의 아들 준기(김종태 분)가 고향을 찾는다. 준기는 타워크레인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방송은 외압으로 중단된 상태. 연극은 용만의 죽음에 숨겨진 과거의 비밀을 풀어가는 한편, 외

도한 아내의 죽음 이후 복잡한 심경으로 카지노를 찾은 석우(김동완)라는 인물, 그리고 준기가 만든 다큐멘터리 주인공인 타워크레인 농성 노동자의 삶을 함께 들여다봄으로써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

한씨는 작품의 모티프를 강원 정선 사북에서 일어난 광부들의 노동 항쟁인 ‘사북사태’에 관한 작가 조세희의 사진·산문집 <침묵의 뿌리>에서 얻었다.

“탄광산업이란 제한된 산업 활동을 일시적, 극단적으로 일으키는 것인 만큼 폭력적이 면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1995년 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허가하는 폐광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들어서게 된 카지노는 그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욕망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렇게 짧은 속성을 지닌 두 공간을 오감으로써 주인공들의 과거가 어떻게 현재의 상처로까지 이어지는지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 구조에 있는데 왜 개인이 죄책감의 벽 속에 스스로를 가둬야 하는지 말이지요.”



가장 좋은 건 암전의 순간이었어요. 빠르게 변하는 극장 밖 현실을 뒤로한 채 선택한 의미 있는 공간으로서 극장에 들어와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지점이랄까.

이렇게 작품을 통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관객과 함께 고민하고 싶어 하는 한씨는 원래 시로 글쓰기를 시작했다.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었던” 그는 고등학교 때 시문학 동아리 활동 중 전국 백일장에서 장원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중앙대 문예창작학과에 진학했다. 하지만 “시를 쓰면서 수용자와 거리감을 느꼈던” 그는 창작자와 관객이 직접 만나는 소극장 연극을 접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확정할 수 있었다.

“경북 경산 출신이라 대작의 지방 투어 공연이 아닌 소극장 연극은 볼 기회가 없었죠. 수용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것도 매력적이지만 가장 좋은 건 암전의 순간이었어요. 빠르게 변하는 극장 밖 현실을 뒤로한 채 선택한 의미 있는 공간으로서 극장에 들어와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지점이랄까.”

일상 속 우리, 그 안의 극단적 내면

그래서 그는 대학 졸업 후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에 입학했고 <우릴 봤을까>로 2009년 CJ문화재단의 창작 예술인 지원 사업인 CJ영페스티벌 연극 부문 최우수창작상을 받으며 공연계에 이름을 알렸다. 엄마와 옛 연인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끼는 여주인공 정연의 심리를 따라가면서 죽음을 대하는 현대인의 태도를 그린 작품으로 2010년 남산예술센터에서 김한내 씨의 연출로 무대화됐다.

지난해에는 국립극단의 청소년극 <소년이 그랬다>에 참여해 호평을 받았다. 호주 작품 <더 스톤즈(The Stones)>가 원작이지만 각색보다는 한국 현실에 맞춘 재창작에 가까웠다. 한씨 스스로 “겨우 세 작품째 하고 있는데도 모종의 자기복제가 우려돼 경계하고 있다”고 걱정할 만큼 <878미터의 봄>까지 그의 세 작품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된다. 크고 굵직한 사건보다는 이야기 안에 녹인 자잘한 균열을 통해 깊은 성찰의 문제를 제기하는 서사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답답하다가도 사회 구조적 모순에는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는 그의 말투와도 꼭 닮았다.

“저 스스로는 제가 쓰는 이야기에 세련되지 못하다고 할 정도로 폭발적인 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봐요(웃음). 고전적인 드라마 전개 방식에서 본다면 조금 다른 면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리스 비극처럼 극단적인 상황과 감정을 체험하는 일도 무척 매력적이고 아름답지만 현실에서는 누구나 일상화된, 뭔지 모를 과편화된 경험을 훨씬 더 많이 하지 않나요?”

그에 따르면 누군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퇴직금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이건 분명 현실에서는 아주 격렬한 사건이다. 그것이 죽음과 같은 파급이 큰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한 개인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태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그의 잣대로는 전작 <우릴 봤을까>만 하더라도 여주인공 정연의 경험이 매우 극단적이다. “엄마가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것 자체가 대단히 극단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연극에서는 그 사건을 더 확장하는 방식으로 극을 풀어가겠지만 ‘내가 본 게 뭐지, 왜 저런 시도를 한 거지’라고 정연의 내적 서술로 풀어간 게 제 방식인 거죠.”

그래도 이번 작품에는 연극적인 장치를 통해 관념적인 공연이 되지 않도록 애를 썼다는 게 그의 말이다. 언제부터인가 연출가뿐 아니라 극작가도 연극 형식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이다.

“서사와 형식이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작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즉 주제의 전달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연극의 한 장에서 과거와 현재, 현실과 초현실을 여러 차례 오가는 장면을 넣은 것도 그래서죠. 물론 이게 새로운 연극적 장치는 아니지만요.”

특히 그는 자신의 작품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는 좋은 선배, 동료들이 있어 고맙다고 한다. <878미터의 봄>의 경우 근석을 중심으로 한 과거 이야기에 끌려 있던 초고를 지인들의 조언으로 우영을 축으로 한 현재의 삶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갈 수 있었다. 아버지 세대의 상처가 주인공 우영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게 중요한데 완성된 원고에는 17년 전 탄광 이야기에 힘이 너무 실려 있었다.

“용만의 죽음을 둘러싼 근석의 과거가 우영의 삶, 그리고 직접적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게 중요했는데 처음엔 과거의 이야기를 지나치게 세세하게 설명해 놓았었죠. 그래서 타워크레인 이야기의 비중도 점점 늘리게 됐어요. 과거에 비해 지금은 노동 현장의 위험과 폭력성이 세련되게 감춰진 측면이 있어서 팬스레 고통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죄책감을 강요하고 있지 않나 싶었거든요. 과거 아버지 세대가 경험한 깊은 막장 안, 그리고 지금 높은 크레인 위에서 벌어지는 일 모두 분명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번 공연의 연출은 한씨와 마찬가지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탐구를 창작의 우선 순위에 두는 여성 연출가 류주연 씨가 맡았다. <경남 창녕군 길곡면>(2007), <기묘여행>(2010), <바람이 분다>(2011) 등을 통해 조용한 카리스마를 발휘하며 2010년에 동아연극상 신인 연출상을 수상한 연출가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시대 문제적 이야기

신인 극작가로서 직접 연출에 욕심을 내봄직도 한데 한씨는 “언제나 딱 1분 정도 생각했다가 난 아니야, 하고 만다”고 했다. 연출가는 작품의 미학만큼이나 인간관계 심리학을 충실히 익혀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나랑 잘 맞지 않는다 싶으면 극작가인 전 그냥 제방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연출자는 끊임없이 배우, 스태프와 소통해야 하잖아요. 무엇보다 연습실에 매일 나갈 자신이 없어요(웃음).”

한씨가 사회문제에만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에겐 사랑과 같은 혼란 소재도 단순한 사적인 경험이 아니다. “내밀한 경험에서 폭발하는 사적인 감정을 즐기기에 사회의 모순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일상적이면서도 계속해서 모순된 사회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랑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한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사랑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기묘한 일상성을 포착하는. 그러자면 좀 더 내공을 쌓아야 할 듯해요. 차라리 <878미터의 봄> 같은 사회성 짙은 이야기는 조금 거칠고 구성력이 떨어져도 꼭 질러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죠.”

인터뷰 말미, 이토록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그가 영화 등 다른 장르와 비교해 느리고 영향력도 약한 연극을 하는 게 답답하지는 않을까 궁금해졌다.

“그래서 운 좋게 큰 무대에 연이어 공연을 올릴 수 있었지만 다음 공연은 꼭 소극장에서 하려고 해요. 중극장 이상 공연을 하려면 제작비 지원받고 대관 신청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태생이 가난한 장르인 연극은 규모가 크다고 해서 올림도 큰 것은 아니니까요. 작은 무대로라도 사회에 대한 의미 있는 물음을 관객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글 김소연

중학생 시절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을 처음 접한 후 무대예술을 사랑하게 됐다. 요즘은 세월이 흐른 탓인지 창작자들의 열정이 달라졌기 때문인지 공연의 감흥이 예전 같지는 않다. 한국일보 문화부에서 연극과 뮤지컬, 패션 관련 기사를 쓰고 있다.

사진 박정훈



가능한 변화들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켄 베르메르쉬

벨기에 태생으로 현재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로 있는 켄 베르메르쉬(42)는 영국 런던대학에서 고려불교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벨기에 겐트대학 동양학과 재학 시절, 중국을 방문했다가 한국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1992년부터 한국을 오가다가 2003년부터 거주하고 있다.

한국에 산지는 몇 년이나 되었나요?

한국에 온 지 20년 됐어요. 계속 산 건 아닌데, 1992년에 처음 왔으니까요. 2003년부터 계속 살고 있어요. 지금은 학교 근처 교수아파트에서 지내고요. 아내도 아들도 다 같이 있어요. 아들은 열 살인데 한국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에요. 외국어를 잘 못하거든요.(웃음) 그래서 어떨 땐 외국에 나가는 게 불편할 정도예요.(웃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뭔가요?

제가 벨기에에서 학부 시절에 중국학을 전공했어요. 졸업한 다음에 중국 유학을 1년 갔는데요, 그때 한국 사람 몇 명 만나고 얘기하면서 관심이 생겼어요. 벨기에서 온 한 가족을 만났는데 부인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만났고, 중국에서 불교 사찰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구화산이라고 불교 성지, 성산이 있는데 지장보살을 모셔요. 그런데 그 지장보살은 신라 스님의 화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당나라 시대에 그 스님이 어떻게 거기까지 왔을까 궁금했고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중국 유학 중에 벨기에하고 한국하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지원해서 92년에 이렇게 오게 됐어요.

특히 아시아 문화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었나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다 20세기는 미국의 세기,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 그거구나 했죠.(웃음) 80년대부터 갑자기 중국 문화나 문학이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 시작했고요, 그 다음 한국에도 관심을 갖게 됐죠.

동양철학과 종교학을 공부하다가 한국 불교 쪽에 관심을 쏟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전 사실 원래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에요.(웃음) 가족이 다 뭐라고 하죠. 종교 없는 사람. 무신론자. 그렇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불교가 아주 활발하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사찰에 자주 가고, 불교 성산에 가보니까 순례하는 사람도 아주 많았어요. 스님도 여럿 만났고, 사실 중국에 가보기 전에 종교는 제게 별로 의미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유럽보다도 훨씬 더 종교활동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에 가니까 중국보다 훨씬 열심히 믿고 훨씬 종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이해하려면 종교철학을 이해해야 한다, 생각하게 됐죠. 물론 종교 하면 유교, 기독교, 불교 다양하게 있는데 유교는 너무 딱딱하고 진지한 느낌이 들어서 불교가 더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웃음)

그러면 아시아 불교냐 한국 불교에 대해 잘 아실 텐데 특별히 한국 불교의 어떤 점에 마음이 끌렸나요?

음. 모르겠어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도 어떤 사찰에서 한국 스님을 모신 걸 보고 정말 궁금했어요. 어떻게 거기에 가게 됐을까? 사실 저는 한국에서 흔히 보는 종교로서의 불교보다는 불교 역사에 더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먼저 했죠. 그 다음에 공부 좀 하다가 불교 수련회에도 좀 다니면서, 살아 있는(웃음) 불교도 봤어요. 처음에 그냥 불교 역사하고 불교하고 다른 종교는 어떻게 같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런 게 관심이 있었죠.

한국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떤 거였나요?

다른 나라 말을 배울 때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제가 상대방이 쓰는 말을 빌리면 돼요.(웃음) 그런데 한국말은 높임말하고 반말이 있으니까 그게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라고 하는 걸 듣고 그걸 빌려서 '아, 선생님 집사람은 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웃음) 항상 내가 하는 말, 상대가 하는 말이 다르고 거의 똑같이 쓰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벨기에서 지낸 시간도 길었고, 한국에서 지낸 시간도 긴데요. 다국어 문화권에 계시다가 이렇게 단일한 언어를,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언어를 구사하는 곳에서 살아보셨으니까 양쪽의 문화적 차이거나, 그런 것들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큰 차이는 단체 문화죠. 한국에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 아니면 점심시간에 일하는 사람 다 같이 식당에 가서 다 같은 음식 먹어요. 실장이나 교수나 선배나 다 같이 같은 걸 먹잖아요. 우리는 전혀 반대죠.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안 가고 싶은 사람은 안 가고, 이거 먹고 싶은 사람은 이거 먹고, 아닌 사람은 안 먹고요.(웃음) 그게 처음에 낯설었어요.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어려워서 하기 싫었는데(웃음) 지금 오히려 유럽 가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식당에 가잖아요? 아, 나는 이거, 스테이크는 이렇게, 나는 저렇게, 이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오히려 그게 짜증나요.(웃음)

1992년에 한국에 연수차 오셨잖아요. 처음 오셨을 때 생각하던 한국(서울)과 실제로 본 한국(서울)의 느낌이 달랐을 것 같은데요.

아, 실망했죠. 제가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옛날 건물이나 옛날 옷 같은 걸 많이 볼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에이 와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특히 처음에 도시의 모습이 너무 재미없다고 생각



했어요. 다 똑같은 아파트고, 다 똑같은 차라서 재미없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왜요?)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시설이 다 새로 되어 있으니 편리하죠, 사실. 기차나, 지하철이나, 아파트나 전부. 집만 봐도 벨기에는 전부 주택이거든요. 주택이 좋긴 하지만 수리해야 하거든요, 계속. (웃음) 아파트 살면 그럴 필요 없으니 편하고 좋지요.

문화유적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셔서 보고 실망하신 다음에 찾아보러 다니거나 하셨어요?

네, 그렇죠. 경주도 가고, 안동 하회마을도 가고, 다 찾아다녔죠. 불교문화 유적도 보고.

불교문화 유적이라는 게 사실 흔하거나 쉽게 찾아볼 수 있거나 접근성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힘드셨겠어요.

아뇨, 힘들지만... 처음이니깐 힘들죠. 그런데 나중에 뭔가 발견하면 그게 더욱 보람이 느껴지고 좋았어요. 그냥 쉽게 구경할 수 있었다면 재미없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인사만 해도 처음에 갈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대구까지 가야 하고, 또 대구 기차역에서 터미널 찾아야 되고, 버스 타야 되고, 그런데 가보면 와, 너무 좋은 거예요. 700년 이상 된 목판들을 거의 만질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웃음) 사실 지금은 훨씬 쉽게 갈 수 있는데 문화재 자체는 접근할 수 없게 됐어요. 보존 문제 때문에. 그래서인

지 그때가 가기는 불편했지만 훨씬 좋았어요. (웃음)

교수님이 보시기에 한국 사회나 서울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뭐. 보면 한국 사람들은 다 함께 움직이는 것에 익숙해요. 어떨 때는 외국 사람으로서 느끼는 소외감 같은 게 있어요. 사람들을 보면 다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외국 사람만 그런 정보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노래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나올 때 보면 다 알거든요. 나만 몰라요. (웃음) 몇 달 전에 한 외국 사람이 자기 블로그에 한국에 사는 사람이 아이유를 모르면 정말 동굴에서 사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썼는데 저는 아이유가 누군지 몰랐어요. (웃음)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아는데 나만 모르면 답답하죠. 소외감도 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내는 동안 한국이나 서울의 좋은 점을 발견하셨다면?

제가 발견한 서울의 가장 큰 좋은 점은 이렇게 도시의 모습을 완전히 갖고 있으면서도 한 30분 만에 산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이 아주 가까이 있어서 좋아요. 남산, 북한산, 관악산 모두 가까워요. 그리고 산에 가면 약수터 같은 데 운동기구도 있고요. 아, 거울도 있어요. 시계도 있고요. 너무 신기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밖에 거울이나 시계 걸리면 학생이나 젊은 사람들이 낙서하고 파괴하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훨씬 사회질서를 잘 지키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요즘 한국이나 서울과 관련해 특별히 관심 갖는 것은 어떤 것이지요.

제가 아는 교수가 한국어교육 교수고요, 서촌에 살거든요. 경복궁 옆에 있는 옛날 동네. 항상 시내에 갈 때마다 보면요, 물론 요즘 경복궁 아주 예쁘게 단장했는데 옛날 동네들, 사람들 살고 있는 동네는 그냥 다 새건물로 바뀌거든요. 궁궐뿐 아니라 일반 동네도 잘 보존하고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뉴타운 개발 중지한 거 좋다고 생각해요. 개발도 좋지만 새로운 걸 너무 많이 좋아하면 예전 것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거든요.

글 최세희

번역가이자 대중음악 칼럼니스트로 문화를 독해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진 전석병

평창 출생으로 다큐멘터리 사진을 전공했다. 사람 사진을 찍으며 오래된 남산의 어느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2012. 6. 11(월) ~ 16(토)

제26회 국제공연예술협회 서울총회

Cultural Shifts

문.화.변.동.

“세계 공연예술계 최고 리더들이 제시하는 문화예술의 미래!
문화예술계 지적 담론을 통한
글로벌 소통과 공감, 네트워크의 場”



한국 예술의 자존심
황병기



한국 예술가의 초상
강수진



21세기 뉴욕 필의 리더
자린 메타



영원한 템페스트
오태석



영국문화원 UK
캐시 그레험



아시아 대표 예술경영인
벤슨 푸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엘레나 박



브라질 공연예술의 대변인
클라우디아 트니



동서의 아름다운 조우
리차드 용재 오닐

주요연사 중 일부이며, 계속 추가됩니다.



Image from John Lim-He Company / Photo by Youngjo Cho

장소 문화예술공장, 세종문화회관, 남산예술센터, 국립극장, 예술의전당,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평동예술극장
공식 프로그램 아카데미 및 총회 포럼세션, 공식공연, 피치세션, 프로엑스, ISPA 어워드 디너, 폐막 오찬, 기타 부대행사
참가자 35개국 공연예술계 리더, 전문종사자, 문화예술경영·행정 전문가 350~400명

등록 | www.ispa.org 전일팩스 \$490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참가자를 위한 특별가)
초기등록 \$350 (4.13 마감)
문의 | 서울문화재단 ISPA 서울총회 사무국 02-3290-7052~54, ispa2012seoul@sfa.or.kr

Hosted by Media Sponsor

Supported by

Venues
Partners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자라났으며, 학교를 다녔고, 그런 다음 내내 여기 서울에서 살았다. 내가 다닌 직장은 모두 서울에 있었다. 태어나서 여섯 번 이사를 다녔지만 모두 서울에서 돌아다녔다. 그저 차이라면 한강을 사이에 두고 오갔을 뿐이다. 나는 마치 잠시라도 이 도시를 떠날 수 없는 사람처럼, 잠시라도 떠난 다음엔 총충결음으로 되돌아오곤 했다. 베이징에서도, 도쿄에서도, 심지어 파리나 뉴욕에 갔을 때조차 나는 서울을 그리워하곤 했다. 하지만 내 아버지는 6·25전쟁 때 피란을 오셔서 서울에 삶의 터전을 마련한 했기 때문에 내게 늘 언젠가는 고향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어린 시절 나는 여기가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부르던 시절) 친구들에게 나는 가본 적도 없는 평양을 내 고향이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결국 여기가 내 고향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가장 오랫동안 서울을 떠나 있었던 시간은 군대에 갔을 때였다. 나는 강원도 홍천에서 2년 9개월 동안 사병으로 복무했다. 지금과 달리 그때는 홍천에 가려면 마장동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3시간 이상 덜컹거리고 때로는 빙빙 돌면서 고갯길을 하염없이 오르는 길을 가야 했다. 지금도 제대하면서 버스를 타고 서울에 오던 길이 기억에 생생하다. 나는 그때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서울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간절했는지도 모른다.

그런 다음 나는 복학했다. 1983년 봄이었다. 그때 학교는 내가 군대에 가기 전 다니던 때와 완전히 다른 풍경이 되었다. 1980년 5월 광주로부터 불과 3년이 지난 다음이었다. 교실은 뒤숭숭했고, 교정에는 전투경찰이 진을 치고 있었다. 심지어 자조적으로 학생들은 전경들과 함께 등교 해서 함께 하교한다고 말하던 시절이었다. 도서관은 갑자기 늘어난 학생으로 늘 넘쳐났으며, 재학생들은 복학생을 선배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아무도 친해지려 들지 않았다.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어떤 선 같은 것이 놓여 있는 것만 같았다.

영화평론가 정성일의 서울 노스텔지어

남산, 이 청춘을 부탁해



아마도 4월 첫 주였을 것이다. 그날 학교에 오니 모두들 오늘 큰 데모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수업은 이미 휴강하는 분위기였다. 벽보가 가득했고, 복도에는 격문을 쓴 종자들이 휘날리고 있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이상하게 그냥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다. 좀 더 정확하게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다. 그때 텅 빈 운동장에서 우연히 바라보니 저 먼 곳에 남산이 보였다. 내가 다닌 학교에서는 남산이 그렇게 보였다. 내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거기서 있던 남산타워. 언제나 거기 있었던 산. 나는 갑자기 거기에 가고 싶어졌다. 생각해보니 케이블카를 탄 지 무척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학교 앞에서 버스를 타고 남산에 갔다. 나는 지금도 남산에 갈 때는 명동에서 내린 다음 골목길을 따라 케이블카 매표소가 있는 곳까지 걸어 올라간다. 이 골목에는 많은 기억이 어려 있다. 나는 여기서 여러 친구를 만났고, 헤어졌다. 막 꽃이 피고 있었다. 그때 이 골목의 집들은 나무를 많이 키우고 있었다. 나는 여기서 내 스무 살, 스물한 살의 친구들을 만났다. 그들과 밤을 새워 영화 이야기를 했고, 그들과 논쟁했으며, 우정에 대해서 말했다. 군대에 갔다 오자 이상할 정도로 나는 그들 대부분을 다시 만나

지 못했다. 많은 친구가 유학을 떠났고, 더 많은 친구가 영화를 떠났다.

남산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에 올라갔다. 지금은 한류를 타고 언제나 외국인 관광객을 빼곡히 채운 다음 떠나지만, 나는 정확하게 기억한다. 그날 나는 그 케이블카를 혼자 타고 올라갔다. 마치 버스 안내양처럼 나와 함께 탄 안내하는 아가씨는 아무 표정도 없었으며,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았다. 나는 거기서 서울의 풍경을 보았다. 뿌연 연기로 가득 찬 봄날의 서울은 우울하게 보였다. 나는 아무 희망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나는 애늬은이가 되어 있었다. 남산 케이블카는 남산까지 올라가는 데 3분 40초 걸린다. 중간에 내려오는 케이블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반드시 스쳐 지나가게 되어 있으며 그런 다음 남산에 도착한다. 내가 그날 본 서울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을까. 지금도 서울, 하고 떠올리면 그 잠깐 동안 케이블카에서 본 풍경이 마치 어제 일처럼 떠오른다.

그런 다음 전망대에 갔다. 나는 그날 돈이 없어서 남산타워의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못하고 그냥 그 아래 전망대에서 서울을 바라보았다. 정말 한참을 바라보았다. 봄날의 해가 기울고 있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거기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나는 이제 어떻게 어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까. 군대에 다녀온 다음 집은 부모가 났고 아버지는 실직했으며 나는 빨리 졸업하고 돈을 벌어야 했다. 아무것도 약속받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거기 그렇게 서서 멍하니 서울을 바라보았다. 나는 여기에 몇 번이나 더 올까. 나는 그날 해가 저물 때까지 거기서 있었다.

그런 다음 세월이 흘렀다. 나는 그 다음 20세기에 여기에 오지 않았다. 남산에 다시 온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 내 첫 영화 <카페 느와르>를 찍기 위해서 배우들과 스태프들을 이끌고 2009년에 찾아왔다. 나는 그때 정말 스무 살의 마음을 안고 여기에 다시 왔다. 그리고 전망대에 섰다. 거기서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약속을 지킨 것 같은 심정이었다. 물론 그 사이에 서울의 풍경은 많이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긴 시간을 건너뛰어 여기에 다시 온 내 마음은 마치 고향의 추억을 한 줄 움켜쥔 것만 같았다. 조그만 소리로 인사를 했다. 안녕, 나 이제 여기에 왔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나는 그렇게 서울에서 지금도 살고 있다.

글 정성일

영화평론가이자 영화감독. 저서로는 <필사의 탐독-정성일의 한국영화 비평활극> 등이 있으며, <카페 느와르>를 연출했다.

그림 이정현

대학에서 의류학을 공부했고 현재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고 있다. 아날로그와 님의 미학을 몸소 실천 중이다.



서울, 주말이 즐거워진다

봄을 맞아 풍성해진

문화예술 행사와 프로그램



성북예술창작센터 <놀토체험>



성북예술창작센터 음악치료 프로그램

주말의 문이 드디어 활짝 열렸다. 지난해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초·중·고등학교에 주 5일제 수업이 전면적으로 도입된 것. 이제 주말이면 수업에 시달리던 학생들도 가족들과 제법 여유롭게 여가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예상해 본다. 단순히 지루한 한 주가 조금 더 짧아졌다고 생각하기에는 주 5일제 수업이 가져다주는 여파는 생각보다 크다. 레저업계에서는 주말 여행 수요가 50%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여가 패턴 자체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벌써부터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연령대의 가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곳곳에 개설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일찌감치 주말문화 체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서울 각 지역에서 양질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키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문화예술기관 100개소를 '토요문화학교'로 지정해,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아무

리 좋은 예술 프로그램이 있다 치더라도 내 입맛에 꼭 맞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선별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봄을 맞아 쏟아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가족 구성원의 적성과 흥미에 꼭 맞는 알짜배기 프로그램들만 골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같은 서울이라도 살인적인 교통 체증과 고된 나들이의 피로가 부담스럽다면 각 지역에 자리한 서울시 창작공간의 문을 두드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서울 각 지역에 자리한 서울시 창작공간들은 각자 색깔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입주 예술가들과 주민들을 연계해 누구나 손쉽게 문화예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좋은 길잡이가 되어준다.

시네마 키트를 다 모여라

미래 할리우드 키드들을 위한 영화 체험 프로그램은 어린이의 오감을 자극하는 새로운 체험학습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상암동에 위치한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영화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영화와 놀자!>를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다. 영화의 탄생과 원리 체험 활동으로 꾸며지는 <영화와 놀자!>는 유치부 및 초등학생 프로그램인 <늑대와 달님>, 중·고등학생 프로그램인 <수리수리 마술이 그림아 움직여라>로 2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바늘구멍 사진기에서부터 카메라 옵스큐라, 조트로프 등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화의 기원과 원리에 관한 이야기를 무료로 만나볼 수 있다.

영화의 이론에 대해서 익혔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를 만들어볼 순간이다.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에서는 미디어영역 프로그램 <무비무비>를 통해 어린이들이 직접 영화 감독이 되어볼 수 있다. <무비무비>는 플립북, 스마트로프 등 영화의 기본 원리를 이해함은 물론 10세에서 12세까지의 어린이들에 한해 영상기획에서 촬영, 편집까지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심화제작 과정을 제공한다. 미래의 스티븐 스필버그들의 뒤



어난 창의성을 영상을 통해 확인하는 일도 쓸쓸한 즐거움이다.

봄, 몸이 피어나다

스크린이 지루하다면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무대 위로 장소를 옮겨보자. 어린이들을 위한 연극 체험을 비롯해서 아마추어 댄서들을 위한 커뮤니티 댄스 프로그램 등 연령대를 막론하고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펴게 해줄 프로그램이 산재한다.

이번 4월부터 동대문구청에서는 매주 토요일 어린이 연극단 <유스시어터> 프로그램을 연다. 교육연극으로 꾸며지는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자신의 고민이나 관심거리를 주제로 선정해 연극으로 꾸며냄으로써 자연스럽게 외부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협동심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극단모도 대표인 장선연 씨가 언어 표현 부분을 담당하고, 극단모도의 상임 안무가로 있는 이종승 씨가 신체를 활용할 표현 부분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 관악어린이창작센터에서도 올 상반기에 '체험, 감성, 음악'이라는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된 무대를 준비했다. 무대와 객석 구분 없이 한데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통합예술체험극', 가족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감성연극', 그리고 몽환적 이야기를 선율과 함께 풀어내는 '음악극'으로 짜여 있다.

성인들을 위한 무대도 있다. 몸짓 언어나 춤을 통해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치유하고자 출발한 커뮤니티 댄스 프로그램이 직장인은 물론, 학생, 소외 계층을 위해 무대를 활짝 열었다. 지난 3월 28일 LG아트센터에서도 일반인 무용가들이 무대에 올랐다. 정영두(두 댄스 씨어터)의 안무로 진행된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먼저 생각하는 자-프로메테우스의 불>은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선물한 이래 인간이 겪어온 문명의 역사를 몸으로 표현해낸 작품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몇몇 장면은 워크숍에 참가한 일반인들의 아이디어로 구성된 것이다.



서교예술실험센터 <옥상공방>



신당창작아카데미 <체험공방>



홍은예술창작센터 참가자들의 작품



홍은예술창작센터 <몸, 좋다>

본격적으로 커뮤니티 댄스를 체험해보고 싶다면 홍은예술창작센터의 <몸, 좋다>를 체험해보자. 커뮤니티 댄스를 기초로 한 무용실기 프로그램 <몸, 좋다>는 일상적인 움직임과 느낌을 구체화하여 춤으로 에너지를 승화하는 체험이다. 유치부, 초등학생, 주부, 노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프로그램의 말미에는 한국무용인 한량무를 배우는 기회도 주어진다.

미술, 마음의 치유제가 되다

서울 안국동 사비나미술관이 올해 첫 기획전으로 마련한 <소셜 아트(Social Art)>는 관객의 참여를 현대미술 속으로 이끌어내 참여자들에게 놀라운 소통의 즐거움을 전달한다. 김진, 김현주, 난다, 이준, 양진우, 유비호 등 작가 9명의 회화 및 사진, 설치 영상 등 30여 점의 전시작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SNS가 만연하는 시대에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만나 소통하고 위로받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참여작가 김진의 <천일야화>는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해 참여자를 모집한 다음 특정 텍스트를 제시해 그림을 그리게 하고, 도출된 각각각색의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좀 더 본격적인 미술치유 프로그램으로는 한국 JP모간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 <Color Your Expression>이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집단 미술치료로 꾸며지는 이 프로그램은, 서울 및 경기지역의 15개 아동센터의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매주 2시간씩 8그룹으로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사)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에서 기획한 이 프로그램은 박승숙 미술치료연구소에서 커리큘럼의 연구 및 개발을 맡았다. 1년간의 장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미술치료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또래 친구들과 소통하며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북예술창작센터에서도 치유와 소통, 나눔을

위한 다채로운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음악치료, 미술 감상과 창작, 연극놀이, 수집과 목공, 요리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현재까지 참여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음악이나 미술 작업을 통해 불안과 고통을 해소하도록 돕고, 입지 않는 옷이나 헌 천을 찢어 얻은 '실'로 자신만의 개성 있는 옷과 가방 등을 만들 수도 있다. 이는 학업과 교우관계 등으로 억눌린 아이들의 자아를 효과적으로 분출해 준다.

만들고, 오리고, 붙여라!

주말에는 모두 멋진 디자이너로 변신해보자. 소규모 아트마켓이 점점 활성화되는 현 시점에서 크리에이티브가 돋보이는 아티스트가 된다는 건 썩 재미있고 뿌듯한 일이다. 서울 신당동 중앙시장에 위치한 신당창작아카데미에서 토요일마다 운영하는 <나도 예술가>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실크와 양모로 직접 제작한 섬유를 활용해 머리 장식을 만들거나, 양모 섬유를 물에 풀어 나만의 느낌으로 펄트 브로치를 제작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감성 도자 만들기 체험도 정기적으로 참여하기가 부담스러운 직장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또 관악창작어린이놀이터의 <관악창작공방>은

상설체험 프로그램으로 생활 공예 놀이 체험 등으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4월에 진행될 '패키지 디자인'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직접 우유팩과 종이컵을 디자인함으로써 시각디자인의 기본을 체험할 수 있는 놀이과정이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삼성어린이박물관에서도 4월 주말 동안 <구불구불 실그림 병풍> <영뚱한 안경> 등 6~7세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내 최초의 어린이 체험 박물관답게 다양한 연령대의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준비되었다.

가족, 뭉뚱 뭉치면 더욱 즐거워진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도 봄을 맞이해 가족을 위한 주말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상설전시가 열리는 경희궁과 연계한 <주말가족체험교실>이 바로 그것. 자녀와 부모가 함께 즐기는 체험 교실로 박물관을 관람해 전시 관람 후 궁 답사, 다양한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또 3월부터 6월까지 <경희궁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경희궁 답사 및 일월오봉도 만들기 등 궁중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7월부터 11월까지 는 <3대가 함께 듣는 서울이야기>라는 주제로 서울 도시 모형 등을 통해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 서

울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서화판을 이용해 가족들의 개성을 살린 가족 액자를 만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문화예술 체험이 녹아든 풍성한

봄 주말

팍팍했던 예전에 비하면 여가에 대한 소중함이 새롭게 인식되는 요즈음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재미도 없는 특별활동 수업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토요일마다 오전 수업에 턱걸이를 하는 청춘들도 있었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 주말 아침잠을 이겨내고 바깥으로 나가면 봄날은 생각보다 환하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간다. 굳이 주말 문화예술 체험의 유익함에 대해 새롭게 설파하지 않더라도 각종 문화예술 행사들을 따라 자유롭게 생각하고,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다 보면 일상의 시름을 잠시 동안 잊을 수 있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 봄을 맞아 몸에도 기지개를 켜 때, 환한 햇살 받으며 사람도 자연도 푸르게 한 뼉 자라는 치유의 계절이 도래했다.

글 이현수

자유기고가이자 복지법인 <사랑밭 새벽편지> 작가
문화예술은 물론 경계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글을 쓴다.



한국영화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영화야 놀자> 프로그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박물관	<영화와 놀자>	02-3153-2031
관악어린이 창작놀이터	미디어영역 프로그램 <무비무비> 공연영역 프로그램 <관악명랑방석극장>, <관악창작공방>	02-871-7400
신당창작아카데미	<나도예술가>	02-2232-8833
성북예술창작센터	<예술로 토요일> 미술·음악치료프로그램, 연극놀이, 미술감상	02-943-9300
동대문구청	어린이 연극단 <유스시어터>	02-2127-5000
사비나미술관	<소셜아트(Social Art)展>	02-736-4371
서울역사박물관	<주말가족체험교실>	02-724-0274
(사)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한국JP모간의 대표사회공헌프로그램 <Color Your Expression>	02-725-5527
삼성어린이 박물관	<구불구불 실그림 병풍>, <영뚱한 안경>	02-2143-3600

대학로, 공연예술 시장의 바로미터!

‘2011 대학로 연극 실태조사’로 본
대학로



지난 2월 8일 서울연극센터에서 발표한 '대학로 연극 실태조사 보고서'는 대학로의 연극 시장 규모 및 현황을 최초로 수치화한 자료다. 2011년 8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진행된 이번 조사는 2010년 공연 데이터를 기준으로 대학로 연극 시장 규모와 연극 시장을 이루는 주요 구성요소인 작품, 공연장, 연극 종사자, 관람객을 대상으로 총 5개 항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조사 결과에 대한 현장 예술가들의 체감 온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있다. 연극 시장에 대한 수치화된 통계가 처음 나온 것이니 객관적으로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 차가 크지 않았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느껴왔던 대학로 현실과 조사 결과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현장 예술가는 물론이고 주요 일간지나 공공지원기관에서도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그 이유 역시 명확하다. 대학로는 서울, 어느 자치구의 한 지역이 아닌 국내 문화예술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학로 연극 실태조사'는 하나의 통계를 넘어 국내 문화예술 시장의 새로운 이슈들을 재생산해내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012년 봄, 대학로는 두꺼운 외투를 벗었다

'대학로=연극동네'라는 등가의 원칙이 성립된 것은 1981년 문예회관(현 아르코예술극장)이 들어서면서부터였다. 이후 자연스럽게 들어선 극장들이 하나의 인프라를 갖추게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20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00년대 초 소극장이 100개 이상이 운집한 극장 밀집지역으로 성장하면서 대학로는 명실 공히 국내 공연예술의 허브로 자리매김했다.

그렇게 30여 년의 세월이 지났다. 2012년 대학로에는 140개가 넘는 공연장이 들어서 있고, 공연

다시 말해 '대학로 연극 실태조사'는 하나의 통계를 넘어 국내 문화예술 시장의 새로운 이슈들을 재생산해내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89%

대학로 국내 연극 시장의 87% 차지
(2010년 연극 시장 규모 197억 원 추정)

86%

관객 의존도
대학로에서 연극 관람 비중 가장 높아

62%

150석 이하의 공연장에서 최대 관람

49%

가벼운 코미디?
'인간/삶의 의미'를 담은 작품 제작이 가장 많음

25,600,000

연극 한 작품당 월 매출액은 2,560만원
수준으로 총 제작비의 50%도 안 돼

예술인의 70% 이상이 활동하는 거점이 되었다. 한 해 국내에서 무대에 오르는 공연의 80% 이상이 대학로라는 한 지역에서 이뤄진다는 사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도드라진 특징이 되었다. 2004년 5월 서울시가 대학로를 '문화지구'로 지정한 배경 역시 이러한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그래서 대학로를 알면 문화예술의 전체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서울연극센터에서 진행한 '대학로 연극 실태조사' 역시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 프로젝트다. 대학로가 공연예술 시장을 읽는 바로미터가 된다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이곳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이슈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과제다. 더욱이 그것이 국내 문화예술계 전체 시장을 담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면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가슴 아픈 현실을 다시금 목도하는 일이기도 하다. 지인들에게조차 숨기고 감추고 싶은, 들춰내고 싶지 않은 현실이기도 하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 시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쉬 다가서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게 30년 동안 잠자고 있던 대학로가 2012년 이른 봄, 무거운 외투를 아주 조심스럽게 벗었다.

국내 연극 시장 대학로가 선도,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함께 지방문화예술회관이 앞 다투어 개관했다. 문화가 국력이 라고 외치던 그 무렵부터 최근까지 더 이상 지을 곳이 없을 정도로 하드웨어가 급성장했다. 넓은 대지에 공공기금으로 건립된 공연장은 최고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관객들을 맞으면서 향후 문화 소비 경향이 바뀔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 국내 연극 시장은 여전히 대학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좁은 통로를 지나 불편한 좌석에서 무릎을 맞대고 앉아야만 하는 수고

로움을 뒤로하고 관객들은 여전히 대학로를 찾는다. 자극적이고 가벼워진 문화에 대학로 연극이 힘을 잃고 있다고 했던가? 대학로 소극장에서 이뤄지는 공연의 50% 이상이 여전히 삶에 대한 치열함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도 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

반면 연극 한 작품당 월 매출액은 2,560만원으로 집계돼 총 제작비의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학로가 연극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에도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자생력도,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극장은 쉽없이 막을 올린다. 혹시 나머지 50%를 어디선가 메우고 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이것은 말로 설명하기 힘든 기현상이다. 한 해 500편이 넘는 연극이 창작, 유통되는 이러한 대학로의 기현상은 이미 수치로 환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그 불가능한 구조를 가능케 하는 주요 요소가 하나 있다. 바로 창작자들이다.

71%

연극 활동으로 행복감 느낀다

5%

경제적 보상에 만족

2%

대학로 정책에 만족

1,380,000

작품당 보수

적정 보수와 실제 보수 간 차이

20%

지원정책 만족도 20% 미만

대학로 연극 관련 지원정책에 대해 매우 불만족

대학로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행복,
그런데 연극인으로서의 자존감 높으나
경제적 보상은 불만

이번 조사도 결과도 비슷했다. 연극인들의 경제적 만족도 말이다. 2008년 (재)한국연극인복지재단에서 조사한 연극배우들의 보수 수준은 1년 436만원, 한 달 평균 36만원으로 집계됐다. 통계가 갖는 현실 왜곡의 위험성을 차치하고라도 당시 발표는 연극인들의 현실을 대변하는 척도가 되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2011년, 불행히도 이번 실태조사 역시 이 부분에서만큼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공연 한 편에 참가할 경우 연극 종사자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보수의 평균값은 150여 만원이었다. 보통 한 작품을 공연할 때 한 달이 넘는 연습기간을 포함해 환산해보면 2008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연극을 하는 창조행위가 가져오는 행복감과 달리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처우는 연극인을 쓸쓸하게 한다. 연극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20%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현실을 대변한다. 예술을 통해 문화를 향유하고 보다 많은 시민과 그 가치를 공유하고자 한다면, 행복하지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인 예술가들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극단 동 <샘플054씨 외 3인>



게릴라극장 <맥베스>



극단 가변 (사라-0)

‘대학로 공연예술 현황과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

- Q. 극단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 Q. 막연했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반갑다. 그런데 결과를 토대로 한 대안은 뭔가?
- Q.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20%도 안 된다면 지원정책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 3월 6일 서울연극센터에서 진행된 ‘대학로 공연예술 현황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예술가들의 질문이 날카롭다. 대부분의 질문은 향후 대안이 무엇인가로 귀결됐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실태조사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만큼 현실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한 극단의 대표는 실태조사에 극단에 대한 조사가 빠져 있음을 아쉬워하며 “현재 극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갈수록 극단 체제로 연극 활동을 하기가 힘들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또 다른 참가자는 “실태 조사를 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결과가 도출됐으니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진다. 어느 협회 기관장이었던 참가자는 “지원정책에 대한 연극인들의 만족도가 20%도 안 된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지원정책 부분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더 진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실태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실태조사로 본 대학로 연극 환경 시사점

- 대학로 연극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대학로 연극 지원 법률 및 제도 정비
- 작품 활동공간·시설의 확충(연습실 등), 국민의 공공예술 교육 확대 및 인식 변화 유도
- 창작극·실험극 등 대학로 연극 다양성 확대, 대학로 연극의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 등
- 연극 종사자들의 역점 과제 중 ‘연극의 작품성 완성’이 압도적으로 높음(53.3%)

대학로 연극의 발전을 위해 역점을 뒤야 할 정책의 우선순위가 ‘대학로 연극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대학로 연극 지원 법률 및 제도 정비’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간 쏟아져 나왔던 지원정책이,

예술 현장이 요구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또한 예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가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금 환기시키기는 계기도 됐다. 대학로가 일반 상업지구와 달리 문화지구로서 갖는 자긍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도 이견이 없었으며, ‘대학로 같은 연극 중심지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한 연극인과 관객의 응답률이 82%를 상회할 만큼 대학로는 창작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특별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특히 연극 종사자들 스스로가 대학로 환경 개선의 필수 요소로 ‘연극의 작품성 완성’을 꼽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나 관객의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다양한 시도가 연극 환경을 개선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관객이 찾을 수 있는 양질의 작품을 창조해내는 일이라는 것이다. 결국 대학로 연극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인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는 것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서울연극센터에서 진행한 ‘대학로 연극 실태조사’는 연극, 문화예술의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아직 대안이 무엇인지는 질문에 대한 즉답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마련됐지 않은가. 암암리에 공유되던 연극의 현실을 수면으로 떠오르게 한 ‘2011 대학로 연극 실태조사’는 분명 선순환 구조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2011 대학로 연극 실태조사 보고서)는 서울연극센터 홈페이지(<http://www.e-stc.or.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글 최윤우

(사)한국소극장협회 정책실장, 월간 〈한국연극〉 편집장으로 근무했으며 〈아트뷰〉 〈한팩뷰〉 〈연극평론〉 같은 공연예술지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연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매번 연극이 끝난 후의 술자리에만 남아 있다.

지금 서울은

이슈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1980년대가 돌아왔다

향수병에 걸린
대중문화



뮤지컬 <롤리폴리>



뮤지컬 <광화문 연가>

지난해에 이어 복고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초기 복고 열풍을 대표했던 건 '썸시봉'이었다. 주로 1970년대의 통기타, 나팔바지, 고풍스러운 다방 등이 부각됐다. 하지만 최근엔 복고 열풍의 중심 시대가 조금 이동했다. 이젠 1980년대가 전면에 나서는 분위기다. 이런 현상은 대중문화계에서 전방위적으로 나타난다.

먼저 영화계를 보면, 올 초 한국영화 3대 흥행작 중 두 편이 80년대의 분위기를 다루고 있다. 바로 <댄싱퀸>과 <범죄와의 전쟁>이다. <댄싱퀸>은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에 청춘 시절을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초반에 다루는데, 그중에서도 80년대의 느낌이 강하다. 그건 여주인공인 엄정화의 캐릭터만 봐도 알 수 있다. 엄정화는 90년대 초 신촌 나이트클럽을 춤으로 평정해 신촌마돈나라는 별칭으로 군림했던 '댄싱퀸'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신촌이 부각된 것은 문화적으로 90년대보다는 80년대를 더 가깝게 느끼게 한다. 90년대는 압구정 오

렌지와 홍대 앞 인디의 시대였다. 그러므로 <댄싱퀸>은 80년대 '신촌블루스'의 정서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 영화에서 엄정화를 신촌마돈나로 만드는 노래 '할렘 디자이너'도 80년대의 대표적인 댄스음악이다. 이 노래의 주인공인 런던보이즈는 모던토키, 조이 등과 함께 80년대에 나이트클럽과 롤라장을 석권했다. 나는 80년대에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더랬다. 당시 댄스타임 때 '할렘 디자이너' 등이 울려퍼졌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이 영화는 그런 추억을 건드린다.

<범죄와의 전쟁>도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80년대의 느낌이 강한 작품이다. 실제 범죄와의 전쟁이 벌어진 건 90년대 노태우 정부 때였지만, 이 영화는 그전에 조폭들이 성장하는 이야기를 주로 다루기 때문이다. <댄싱퀸>이 스노진 패션으로 80년대 분위기를 그려낸다면, 이 영화는 장발과 구식 양복으로 그 시대를 추억한다.

복고 영화에 항상 등장하는 나이트클럽도 여지없이 나온다. 요즘엔 나이트클럽이란 단어 자체가 사장되는 분위기다. 나이트클럽이 아니라 그냥 클럽이라고들 한다. 나이트클럽은 이제 추억의 상징이 되었다.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와 반짝이는 패션이 관객의 향수를 자극한다.

이런 식으로 80년대를 내세우는 영화는 <위험한 상견례>와 <써니>에서 시작됐다. <위험한 상견례>는 당시 막 시작된 프로야구의 풍경을 그렸다. 부산 지역 구멍가게에서 롯데 껌과 해태 껌을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장면을 요즘 젊은 세대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하기 전의 댄스황제였던 박남정도 등장한다. <범죄와의 전쟁>엔 아이들의 '조상'인 소방차의 노래가 나왔다.

<써니>는 가히 80년대 대중문화의 박물관이라 할 만하다. 신디 로퍼를 필두로 해서 조이, 보니 엠, 리처드 샌더슨, 나미, 조덕배, 최호섭 등 80년대를 수놓은 노래가 줄줄이 나온다. 소피 마르소를 80년

대 대표적인 책받침 스타로 만든 영화 <라붐>의 패러디도 등장한다. 관객들은 이런 설정에 열광했다.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80년대

공연예술계도 80년대 열풍에서 예외가 아니다. 연극 <살고 싶다, 바람처럼, 시처럼>은 80년대 시장을 배경으로 서민들의 애환, 사랑 등을 그렸다. <씨니>처럼 이 작품도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다. 이런 설정은 30~40대의 감성을 직접적으로 건드린다. 관객도 함께 추억에 젖어들게 하는 것이다.

장기공연 중인 뮤지컬 <광화문 연가>도 주인공의 회상을 통해 80년대의 풍경을 그리는 설정이다. 이 작품에선 80년대 최고의 발라드 스타였던 이문세의 노래들이 나온다. 당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심야 FM라디오를 통해 애청했을 노래들이다. 이 작품에는 또 80년대의 시위 장면도 나오는데, <씨니> <댄싱퀸> 등 복고 작품에 흔히 등장하는 추억의 설정이다. 80년대를 살았던 사람은 그때의 데모와 최루탄의 기억을 잊을 수 없다.

뮤지컬 <달고나>도 80년대 독재의 풍경과 함께 ‘굴목길’ ‘너 나 좋아해, 나 너 좋아해’ 등 당시의 히트곡들을 다룬다. 뮤지컬 <롤리폴리>도 마치 <씨니> 같은 구도로 80년대의 풍경을 그려나간다.

가요계에선 80년대를 상징하는 이름인 조용필의 위치가 날로 확고해지고 있다. 박정현이 부른 조용필의 노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는 <나는 가수다> 최대의 히트곡으로 떠올랐다. 그 외에도 80년대의 노래들이 여러 오디션 형식의 프로그램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걸그룹 티아라는 노래 ‘롤리폴리’와 ‘러비더비’로 80년대 분위기를 재현했고, 유세윤의 UV는 ‘이태원 프리덤’을 80년대 분위기로 불렀다. 한편 80년대 록밴드 붐을 일으켰던 임재범, 김태원, 김도균, 유현상 등이 방송계에 컴백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보니엠이나 듀란듀란 같은 과거 인기 가수들의 내한 공연도 기획되고 있다.

사람들의 감성을 가장 절묘하게 자극하는 시대가 바로 80년대다.

바로 그때 이들이 인생의 가장 빛나는 한때를 보냈으니까. 복고는 이들을 가슴 뛰던 청춘 시절로 이끈다.

게 그 다음 차례로 80년대가 뜨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 80년대는 70년대보다 더 현재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단순한 추억 이상으로 요즘의 수요자들에게 다가간다는 점도 80년대가 뜬 이유라고 하겠다.

70년대를 생각하면 까만 교복과 흑백TV가 떠오른다. 가요계 분위기도 지금과 확연히 달랐다. 영화도 요즘 영화보다 60년대 영화에 더 가까웠다. 반면에 80년대는 교복 자유화와 컬러TV의 시대였다. 영화도 요즘 영화에 가깝고, 노래들도 이문세, 들국화, 부활, 변진섭 등 요즘 노래들과 크게 다를 것 없는 분위기였다. 즉 80년대는 현재성과 추억이 절묘하게 만나는 지점인 것이다.

과거 대학문화의 주류였던 운동권문화나 시위 문화로 봐도 80년대와 70년대 사이엔 큰 차이가 있다. 어느모로 보나 80년대가 현재의 직접적인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그 이전 시대의 문화가 모체이겠지만, 가시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예컨대 록음악으로 얘기하자면, 근본적인 한국 록음악의 모체는 신중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재 한국 록음악계의 직접적인 기



영화 <댄싱퀸>

원은 80년대 들국화, 시나위, 부활, 크래쉬 등에 있는 구도와 같다. 80년대에 비로소 라디오 음악방송에서 가요와 팝송의 비율이 역전되기 시작했고, 그때의 흐름이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문화 생산 주체들은 대체로 당시에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다. 미녀스타 책받침, 교복자유화, 스노진, 최루탄, 컬러TV 등을 향유했던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 문화 생산자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자랐던 시대를 표현하는 셈이다.

문화의 소비 주체도 그 연령대의 사람들이다. 요즘 30~40대의 문화적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이들은 과거 고도성장기의 '일개미' 스타일과는 다른 인생관을 갖고 있다. 개성도 강하고, 문화의 흐름에도 민감하다. 직장인 밴드 열풍이 이런 것을 웅변한다. 마침 시대도 '아이폰'이 등장한 이후부터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분위기다. 단순히 일만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아이폰 같은 창조적 혁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 경쟁력의 차원에서도 문화적 감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의 감성을 가장 절묘하게 자극하는 시대가 바로 80년대다. 바로 그때 이들이 인생의 가장 빛나는 한때를 보냈으니까. 복고는 이들을 가슴 뛰던 청춘 시절로 이끈다.

한편 80년대는 젊은 세대에게 새로움이기도 하다. 새로움은 새로움인데 70년대처럼 완전히 이질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익숙한 새로움이면서 편안한 새로움이다. 현재와 80년대가 문화적으로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트렌드로 쉽게 다가갈 수 있다.

기성세대도 그렇고 젊은 세대도 그렇고, 현재가 만족스럽다면 굳이 과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가 충분히 풍요롭고 미래에도 풍요로울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면 뭐 하러 과거를 자꾸 돌아보겠나? 과거가 뜬다는 건 현재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야기다. 또 미래가 불안하다는 이야기다.



영화 <댄싱퀸>



뮤지컬 <달고나>



뮤지컬 <달고나>

30~40대에게 현재를 상징하는 단어는 구조조정이다. 젊은 세대에겐 실업이다. 한마디로 삭막한 사회인 것이다. 과거의 따뜻함이 그리울 수밖에 없다. 디지털의 화려함도 삭막하긴 마찬가지다. 디지털 댄스음악, 인터넷 통신, 스마트폰 등 디지털이 우리 삶을 엄습하고 있다. 편안하고 신기하긴 한데, 정신이 점점 엉클어져간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그럴 때 '촌스러운' 인간적 정서가 남아 있는 과거는 얼마나 매력적인가! 게다가 80년대는 현재의 직접적인 기원이기 때문에 이질성도 별로 없고, 우리를 둘러싼 것들의 역사를 알아간다는 점도 흥미진진한 경험이다. 이런 연유로 80년대가 뜨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문화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과거를 반추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외국 시장을 보며 자라 신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킬 정도가 됐다면, 이젠 스스로를 돌아보며 정체성을 다질 시기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복고는 바람직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기도 하다.

다만 이것이 지나치게 낭만적인 향수 위주로만 가서는 곤란하다. 사람이 과거를 자꾸 돌아보면서 아련한 추억에 빠지는 건 노년기에 나타나는 징후다. 꿈이 있는 한 청춘이라고 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본다. 꿈을 잃은 사람만 옛날 생각에 젖어돌며 시간을 보낸다. 복고가 그렇게 흘러서 안 된다. 또 기획자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고통을 회피하면서 그저 과거의 것들을 재포장하는 데에만 열을 올리는 것도 곤란하다. 이걸 우리 문화의 잠재력을 갉아먹는 일이다. 복고가 손쉬운 상업적 코드 정도로 사용돼선 안 된다는 이야기다. 현재의 결핍을 채워주고, 새로운 상상력의 원천이 되는 그런 복고가 건강한 복고다.

글 하재근
문화평론가. 저서로는 <TV쇼크> <TV로 읽는 대인배 윤리학> 등이 있다.

지금 서울은

이미지 서울

고려

피어나라



발길마다 활짝 푸르게 피어나는 햇살.
꽃망울처럼 해사하게 터지는 웃음소리.
발걸음도 가볍게 폴짝,
뛰어오를 때마다 설레는 계절이 골목 가득가득 차오르는 날.

사진 박정훈

이사람이 출연한 뮤지컬 〈서편제〉

창작 뮤지컬과 국악 사이로 난 새로운 소리길

2010년 첫선을 보이고 올해 다시 무대에 오른 뮤지컬 〈서편제〉는 영화 〈서편제〉(1993)와 많은 점이 닮아 있다. 소리밖에 모르는 아비 유봉은 서로 피가 다른 딸 송화와 아들 동호에게 소리 인생을 강요하고, 때마침 들어온 외래 문물에 밀려난 판소리와 같이 세상과 가족 속에서 그의 입지 또한 좁아진다. 한(恨)의 뿌리를 심어주기 위해 송화에게 악을 먹여 눈을 멀게 하는, 스크린 속의 장면들은 무대에서도 재연된다. 다만 동호의 행방이 다르다. 스크린이 동호를 아비에 대한 반항아로 그렸다면 무대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소리가 있어”라며 로커로 변신시킨다. 영화 〈서편제〉에 없는 록의 등장은 동호의 또 다른 소리 인생이 추가되었기에 가능했다.

국악의 들숨과 뮤지컬의 날숨

뮤지컬 〈서편제〉는 국악도, 창작 국악도 아니다. 하지만 국악에 대한 관심을 부추길 만한 요소는 충분히 있다. ‘아리랑’이 나오는 것은 기본. 유봉(서범석 분)이 부른 ‘유랑의 기억’에서 세마치장단과 통소 소리가 어우러진 것처럼 국악적인 색채-오케스트라에는 팽과리, 모듬북, 통소, 장구가 사용되었고, 신시사이저로 가야금, 아쟁, 양금 소리를 연출했다-와 작곡가 윤일상의 선율은 서로를 단단히 엮는다. 〈춘향가〉 중 사랑가 대목, 〈심청가〉 중 심봉사 물에 빠지는 대목도 들을 수 있다. 또한 1막과

2막에서 각각 동호의 모친과 유봉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에서는 전통 굿에서 볼 수 있는, 베를 길게 늘어뜨려 그 위에 종이배를 띄우며 극락왕생을 비는 전통의례가 등장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송화 역을 맡은 젊은 소리꾼 이 사람의 등장은 뮤지컬계는 물론 외부에 있는 국악인들의 눈길을 끌 만했다(송화 역에 이자람 외 이영미, 차지연이 캐스팅되었다). ‘아마도이자람밴드’-브레히트의 〈사천가〉-판소리 완창, 이 세 축을 맹렬히 회전시키며 다양한 소리 세계를 보여주는 그녀는 최근 국악에 극(劇)의 형식을 도입하며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 젊은 국악인 중 대표주자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녀의 출연은 국내 뮤지컬의 지형도에서 창작 뮤지컬에 속하는 이 작품을 ‘한국적’ 창작 뮤지컬이라는 또 다른 좌표축에 올려놓는 데 이바지하는 듯했다.

시선을 끌고 올림을

배려한 무대

초연과 크게 달라진 것은

무대였다. 공연 시작 전부터 들려온 오케스트라 튜닝 소리의 발원지가 궁금했는데 막이 오름과 동시에 무대 뒤편에 숨기고 있던 오케스트라를 드러내는 막 또한 올라갔다. 청각으로만 느낄 수 있던 오케스트라를 시각의 영역으로 재배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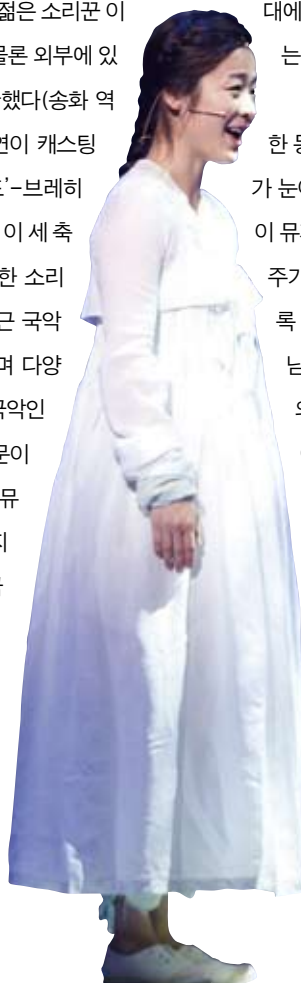
이러한 재배치는 시각적 변화로만 그치지 않았다. 모듬북과 장구, 팽과리 같은 타악기의 울림이 오케스트라 피트 위로 상승해 방향 없이 휘발되지 않도록, 관객의 귀를 정면으로 때려 소리의 전달력을 높였다. 그리고 로커가 된 동호가 등장해 노래 부를 때는 로커의 무대를 받쳐주는 록밴드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초연과 달리 무대를 화려한 영상으로 채웠다. 작은 한지를 조각조각 덧붙인 무대는 한국 고유의 여백의미를 표현함과 동시에 시골, 대나무 등 한국적 정서가 담긴 애니메이션이 무

대에 펼쳐질 때, 영상을 적극적으로 빨아들이는 흰 캔버스가 되기도 했다.

흥미를 끈 것은 2막이다. 어린 시절에 대한 동호와 송화의 회상 장면으로 시작해 송화가 눈이 멀게 되는 과정을 그린 1막보다는 2막이 뮤지컬적인 흥미를 유발하는 대목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유봉의 죽음, 동호가 펼치는 록 무대, 동호와 송화의 그리움과 마지막 만남이 주를 이루는 2막. 유봉의 죽음과 장례 의례에서는 전통적인 굿과 한국 창작무용이 가미되었고, 록과 판소리로 상징되는 동호와 송화의 어긋난 길을 회전무대를 통해 효과적으로 보여주어 완성도를 높였다.

〈서편제〉에 이자람이란

윤일상의 음악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르게 분배되어 감동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그의 손을 거친 넘버들은 일단 귀에 익숙하고 감미롭게 감겼다. 윤일상은 가사 전달을 위해 느리고 서정적인



Review

서울문화재단
www.seoulculture.or.kr



발라드풍의 선율로 대부분의 넘버를 구성한 듯했다. 하지만 동호와 유봉의 대립, 동호의 방황(예를 들어 '철없는 혈기') 장면에서 두 인물의 내면 심리를 표현해주는 격한 리듬의 타악기와 부드러운 선율이 만났을 때는 음악이 한데 섞이지 못한 물과 기름처럼 느껴졌다.

유봉과 동호의 대립, 그런 동호를 보듬어주는 송화가 엮어가는 소리 공부의 과정은 영화와 달리 밝고 경쾌하다. 예를 들어 세 명의 배우가 관객과 정면으로 마주해 북을 두드리는 '소리공부'. 득음을 위해 송화에게 똥물을 먹이려고 장난을 거는 유봉과 동호의 모습은 영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

하지만 이자람의 출연은 이상하게도 무대의 리얼리티를 떨어뜨렸다. 동호가 송화에게 왜 그리 못

하느냐며 욕박지르고 한 수 가르치는 장면에서 유봉의 소리 뒤에 나오는 송화의 소리는 누가 들어도 송화가 더 잘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출연진 중 유일하게 판소리를 제대로 구사할 줄 아는 이자람의 존재는 다른 배우들이 판소리에 기울인 최대치의 노력을 군사치로 만드느라 했다. 하지만 배우들의 노력은 곳곳에서 엿보였다. 유봉 역을 맡은 서범석은 단가 '이산저산'과 이자람의 북 장단에 맞춰 갈고닦은 판소리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고, 이자람이 부른 <춘향가> 중 사랑가 대목을 반주하는 김다현(동호 역)은 짧은 시간 안에 판소리의 음악적 문법을 터득하기 위해 노력한 모습이 역력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리얼리티의 문제는 '한'을 추구하며, 소리예술가로서 광기를 부리고, 고집을 꺾지 않는 유봉의 모습에서 충분히 문제 삼을 만했다.

<서편제>는 한국 뮤지컬의 앞길에 다른 '소리길'을 내며, 국악과 뮤지컬이라는 쟁점 모색과 그 필요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자람이 한때 몸담았던, '국악 뮤지컬'을 내세운 타루, '한국적 뮤지컬'을 시도한 1960년대 예그린 악단이 있다. <서편제>는 미완으로 그쳤던 이들의 과제를 다시 환기시켜준다. 국악계와 뮤지컬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자극을 주었으면 한다.

글 송현민

공연 보고 이야기해주는 남자(약칭 '공연 보이남')로, 이런저런무대연구소를 준비하고 있다. 음악평론으로 제13회 객석예술평론상을 수상했고, '한국적'이라는 수사가 붙은 음악, 연극, 무용, 뮤지컬, 미술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영화 〈말하는 건축가〉

감응의 건축가,
정기용과
통(通)하다



불행히도 건축가 정기용의 목소리는 응어리가 진 것처럼 탁했다. 스크린 위에서 지친 음성으로 힘들게 입을 열었다. 말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소리를 토해낸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항암 치료로 인해 성대가 결절된 상태지만 쉬지 않고 말을 건네기 때문이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목소리가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들려도 90분 후에는 정겨움과 아련함으로 가득 차 마음 한편을 내주게 된다. 〈고양이를 부탁해〉〈태풍태양〉처럼 청춘들의 자화상을 내밀하게 포착해온 정재은 감독은 2009년 12월 정기용을 만나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고 제안했다. 어떤 것도 꺼릴 게 없던 그는 마음껏 찍으라고 흔쾌히 수락했다. 정재은 감독의 다큐멘터리 〈말하는 건축가〉는 일민미술관에서 열린 정기용 건축전의 준비 과정을 따라가고 있다. 전체적인 구성은 건축전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 이 과정에서 건축가와 미술관 큐레이터의 갈등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예산과 건강상의 문제로 전시 중 일부(서울관)를 폐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도 가감 없이 담겨 있다.

〈감응: 풍토, 풍경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2010년 11월 12일에서 2011년 1월 30일까지 열린 건축전은 1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영화의 빠대는 건축전이지만, 정기용이 참여했던 무주 프로젝트, 기적의 도서관, 동대문운동장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한 건축가의 초상을 다양한 보정으로 채색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3월 11일, 그가 타계(1945~2011)하기 전까지 건축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말들이 영상에 강렬하게 담겨 있다.

소통하는 건축, 사람과 사람을 위한

영화는 2010년 봄, 정기용이 부산시 공무원과 함께 무주 공공 프로젝트 현장을 답사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작한다. 안성면 주민자치센터와 무주 읍내 등나무 운동장(공설운동장)을 살펴보다가 건축가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설치된 태양열 집열판을 발견하고 돌연 크게 화를 낸다. 집열판이 흙물처럼 자리 잡고 미관을 망치고 있던 게 화근이었다. “아직은 이런 걸로 화를 내면 안 되지”라고 말하지만 결국 이후 답사 스케줄을 모두 취소하고 만다. 왜 이

렇게 화를 내는지는 자연과 함께 인간답게 살려는 그의 의지를 이해하면 쉽게 납득이 간다. 하나의 지형이나 땅이 가진 잠재력과 그 땅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작용과 반작용이 감성적으로 일어난다. 이때 건축의 이미지나 형상이 싹트는 과정을 정기용은 감응(感應)으로 요약한다. 바로 그의 건축 철학을 관통하는 단어다.

다큐멘터리는 짧게 압축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정기용의 무주 프로젝트에 관한 저서 〈감응의 건축〉을 보면 더 심도 있게 공감할 수 있다. 안성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게 된 그는 ‘공간은 직접 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용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너무 당연한 논리지만, 그동안 쉽게 간과되었던 게 사실이다. 여기에는 주민을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공간의 주인으로 봐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담겨 있다. 무엇이 다수의 보편적인 요구인지 알고, 정확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당시 주민들이 “면사무소는 뭐 하러 짓나? 목욕탕이나 지어주지.”라고 말하는 걸 듣고, 바로 공중목욕탕을 센터에 설치했다. 그는 “주민들이 발가벗고 같이 목욕을 한다는 것은 공동체를 지속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다. 서로에게 같은 동네에 산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서로 알몸이 되는 편안함, 그것은 목욕탕만이 공동체에 선사할 수 있는 선물.”이라고 그 공동의 가치를 평가한다.

또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없는 무주 공설운동장에 주민들이 좀처럼 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등나무 그늘을 만들었다.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인 공설운동장을 식물과 주민이 주인이 되는 공간으로 바꾸어놓았다. 운동장 주위에 심어놓은 등나무가 스탠드 방향으로 뻗어가며 자라날 수 있게 함으로써 관중석에 짙은 그늘을 드리웠다.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등나무 운동장은 늦은 봄 등꽃이 필 때면 자줏빛 색채와 향기로운 냄새가 퍼지는 산책로로 다시 태어난다. 등나무 운동장에는 건축과 자연, 그리고 시간과의 감응까지 존재다. “자연은 어떤 의미로는



시간과 동의어인데, 시간이 건축물과 서로 관입될 때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고 말한다. 두 작업은 정기용이 생각한 공공 건축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강박을 벗어난 건축 이야기

20세기 이후 건축의 역사는 고층건물 신드롬에 사로잡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대 건축이 폭발적으로 진행되었다. 전시 행정이 권력의 풍경을 생산하거나 무작정 아이콘이 되기를 희망하는 건축물들이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채 자본의 논리를 쫓았다. 하지만 정기용의 건축은 이들과 태생적으로 거리가 멀다. 유려하고 화려하진 않지만 주변과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하는 고민의 흔적이 무주에 만든 작은 버스정류장에서도 표출

된다. 이 소박하면서도 살갑게 느껴지는 정류장만 봐도 건축가의 진심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주변의 거대한 풍경과 맞설 디자인의 힘을 강조하면서도 사람과 사람, 풍경과 사람을 이어주는 정류장의 존재 이유를 부각시켰다. 즉 버스정류장을 하나의 방이 있는 집으로 만들었다. 이 버스정류장은 의자가 ‘ㄱ’자여서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쉽게 교차되고, “어디가세요?”라고 자연스럽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관계를 만든다. 우연히 같은 공간에 있게 된 사람 간에 ‘관계’를 이어주는 곳이다. 더욱이 정류장이 때로는 버스가 아니라 기다림을 기다리는 곳이면 좋겠다는 건축가의 바람이 담겨 있다. 주변의 풍경과 맞서는 동시에 공존하는 건축적 지혜는 망자의 공간인 추모의 집(무주공설납골당)에서도 볼 수 있다. 마치 주변의 인삼밭처럼 반복되는 기둥과 경

사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납골당 한가운데에는 소나무가 자라는 정원이 있다. 녹색의 생명이 존재하는 밝은 공간을 통해 죽음을 현실의 공간으로 불러온다. 살아 있는 자들과 마을과 주변의 경관이 일상적으로 관계 맺을 때 죽음은 삶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제안한다.

무주 프로젝트 외에도 어린이를 위한 기적의 도서관도 정기용의 중요한 성과다. 그는 “준비 중인 건축전에 딱딱한 개념들만 나열하는 게 아쉽다. 전시 공간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주고 싶다.”면서 정재은 감독에게 직접 건축전에 사용할 영상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정 감독은 전국의 기적의 도서관 6곳을 2주에 걸쳐서 촬영했다. 영화에도 이때 찍은 영상들, 도서관의 멋진 외관들이 차례로 등장하지만 하나하나의 다채로움을 고스란히 담고



순천 기적의 도서관 ©사진작가 김재경, 기용건축사무소



있지는 못하다. 이 도서관들의 색다른 매력을 느끼려면 정기용의 저서 <기적의 도서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순천, 진해, 제주, 서귀포, 정읍, 김해. 지역마다 모두 다른 아이템과 다른 꼴로 만들어졌다. 각각 지역과 대지의 조건들이 공동의 원칙과 결합되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소나무를 베지 않고 고스란히 품을 수 있도록 설계한 서귀포 도서관은 정기용의 건축기행 스케치집 <기적의 풍경>에서 제주도의 땅이 “나를 이대로 춤추게 하라”고 요청하던 가르침을 떠올리게 만든다. 도서관마다 내부적인 특성을 엿보기 위해 책에 담긴 설계도나 사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나만 예로 든다면 비닐하우스 형태로 건축이 된 정읍 기적의 도서관의

경우, 아이들이 꿈꾸면서 느리게 자라날 수 있도록 무지개와 달팽이의 이미지를 활용한 것이 신선하다. 여기엔 옥외에 설치한 섬마를 열람실이 있다. 물이 채워지면 일종의 섬이 된다. 놀랍게도 정기용은 물도 책이라고 주장한다. 언어로 쓰인 것이 아니라 물과 빛과 움직임으로 쓴 책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서관 측은 이곳을 그저 수영장으로 활용하는 아이들 때문에 끝내 물을 빼버렸다. 그렇게 물은 배우는 거라고 말하던 정기용은 ‘물로 쓴 책’이 사라졌다 아쉬움을 전하고 있다. 도서관이 엄숙한 곳이 아니라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간이자 자유롭게 책을 보는 공간이라는 개념의 변화만으로도 작지만 큰 기적을 놓고 있다.

나의 집은 백만 평

위의 건축물들이 농촌의 공동체를 위해 생태적인 건축이 잉태되는 순간을 보여줬다면 정기용이라는 건축가에게 사적인 감동을 주는 곳은 아마도 춘천 자두나무집일 것이다. 이곳은 화가 정성명의 집이다. 2000년에 완공됐지만 주인이 집을 고칠 일이 있다고 연락을 해오자 정기용은 맑은 가을에 아픈 몸을 이끌고 방문했다. 딸의 죽음 이후 어디론가 숨어들고 싶은 집주인을 위해 나지막한 마루를 만들어 자연과 가까워지도록 하고, 한옥의 난반사 원리를 이용해 상처 입은 마음을 빛으로 감싸주었던 집이다. 죽음을 앞둔 정기용은 마당에 있는 딸의 무덤에서 “초영아!”라고 속삭인다. 치친 나머지 잠시 방에서 잠을 청한 건축가는 “내가 이 집에서 몇 달만 살 수 있다면 병이 다 나을 텐데”라는 말을 남긴다. 카메라는 쇠약해진 정기용의 모습을 애처롭지만 경건하게 담아내고 있다.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설계한 집에서 자신이 위안을 찾는 이 장면은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건축가의 해안을 엿보게 한다.

그래서일까? 죽음을 앞둔 정기용의 일상은 더욱 소중하고 특별하게 다가온다. 시사회가 끝난 후,

Review

서울문화재단
Korea Cultural Foundation
www.kcf.or.kr



정재은 감독을 직접 만났다. “정기용 선생님이 밥 먹자고 이야기하는 게 참 마음에 들었다.”고 인사를 했더니, 정 감독은 웃으며 “참 이상한 시선으로 영화를 본다.”고 핀잔을 주었다. 하지만 역시 “그때 내가 직접 밥을 사드린 게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애뜻하게 회고했다. 물론 <말하는 건축가>는 정기용의 건축적 성과물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대한 태도로부터 많은 화확 작용을 파생시킨다.

영화 속의 정적인 여운은 다분히 정기용의 인간다운 면모로부터 나온다. 직원들과의 마지막 봄나들이, 안성 주민자치센터 목욕탕에 몸을 직접 담그는 모습,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 그의 유연함과 자유로운 삶이 느껴지는 장면들이다. 정 감독과 대화를 나누다가 “영화를 보니 작은 아파트에 사는 삶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

다.”고 씩씩한 고백을 하고 말았다. 그러자 “누구나 현실의 집과는 다른 자유로운 마음의 집이 있게 마련.”이라고 위로의 답을 잊지 않았다. 사실상 그건 건축가 정기용의 사유이기도 했다. 작은 다가구주택에 살면서도 ‘나의 집은 백만 평’이라는 글(<건축가는 어떤 집에서 살까>에 수록)에서 정기용은 “내가 산책하는 곳, 내가 집에 들어올 때 걸어가길 골목, 이 모든 것이 나의 집이다. 집을 이렇게 확장해야 한다.”고 적은 바 있다. 영화에 담긴 한 장면처럼 그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작은 빛마저 소중하게 느낄 줄 알았다. “어떤 의미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들의 감각과 감성을 통해 나오기도 한다. 감각과 감성이 의미를 느끼고 합성해내는 것이다.”라고 말하던 그의 깨달음은 소소한 생활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정기용의 건축, 그에 관한 다큐멘터리, 그의

책을 만나면 꼭 닫혔던 마음이 열린다. 삶의 감성이 자유로워진다. 감응과 소통의 건축을 설파했던 정기용의 실제 삶이 그의 철학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한 명의 건축가. 그의 풍경과 건축이 우리에게 아지랑이처럼 피어나는 기쁨과 설렘을 선사했다. 곧 완전한 봄이 찾아오면, 그의 숨결이 담긴 곳으로 떠나고 싶다.

글 전종혁

영화지 <프리미어> 출신의 영화평론가. 각종 영화제와 시네마테크에서 모데레이터로 활동 중이다. 주로 영화와 미술에 관한 기사를 쓰면서 ‘문화 백수’를 꿈꾸고 있다.



김광만의 서울 마이크로 탐사

백담파(白塔派)의 슬픔과 예술, 벼를 사귀다

미크로한 역사가 매크로한 역사를 넘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설 수 있다는 각성이 우리 시대에 이르러 사회학, 인류학에서 일어나고 있다. 미크로하게 도시를 본다는 것은 공간 개념과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까지 입체적으로 대입해 간접적으로 살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문화+서울」은 바로 서울의 문화가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여기에서, 바로 이 시간까지, 살고 있다는 확신이고 감격이어야 한다. 앞으로 서울이란 도시를 수직, 수평의 프레임으로 다양한 문화와 삶의 궤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250년 전, 진정한 벼, '제2의 나'를 생각하며 쓴 아름다운 글이 하나 있다.

“만약 한 사람의 지기를 얻게 된다면 나는 마땅히 10년간 뽕나무를 심고, 1년간 누에를 쳐서 순수 오색실로 물을 들이리라. 염홍에 한 빛깔을 이룬다면, 50일 만에 다섯 가지 빛깔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를 따뜻한 봄볕에 쬔 뒤, 어린 아내를 시켜 백 번 단련한 금침을 가지고서 내 친구의 얼굴을 수놓게 하여 귀한 비단으로 장식하고 오래된 옥으로 축을 만들어 아마득히 높은 산과 양양히 흘러가는 강물, 그 사이에서 이를 펼쳐 놓고 서로 마주 보며 말없이 있다가, 날이 뉘엿해지면 품에 안고서 돌아오리라.” - 이덕무, 〈선굴당농소〉, 정민역

이 글을 쓴 아정 이덕무(1741~1793)가 남산골 대흥동을 떠나 대사동

(큰 절골, 지금의 탑골공원 옆 인사동 일대)으로 이사한 지 얼마 후 백담을 중심으로 서얼 출신의 문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뜻이 맞아 '백담시사(白塔詩社)'라는 문예동인 모임을 결성한다. 1767년, 초정 박제가(1750~1805)가 야녀 백동수(1743~1816)의 집에서 이덕무를 만난 바로 그해다.

역사는 그 속에서 살던 인물과 공간(현장), 시대(시간)가 엮어낸 흥미진진한 드라마다. 하지만 인물과 시간은 곧 흘러가버리고 오직 공간만이 층층의 역사를 지키게 된다. 특히 서울은 수도로 정한 지 600년의 역사적 층위가 겹겹이 포개져 기괴한 형태로 도심부의 공간을 이루는 세계에 유례가 드문 역사무대다.

백담파의 활동도 백담이라는 원각사 10층탑(1467년 건립)이 있었던 탑골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백담파는 비록 서얼이었지만 그 사회적 한계

를 뛰어넘어 18세기 후반 지성사를 수놓았던 이덕무, 백동수, 박제가, 유득공(1748~1807)과 사죽인 이서구(1754~1825), 박지원(1737~1805) 등이 합세해 이루어낸 모임이자 문예 부흥운동의 용광로였다. 백담파는 서얼과 양반이라는 서로의 관계도 뛰어넘고 장유유서가 그리도 분명했던 조선시대에 뜻이 맞으면 나이를 묻지 않고 사귀는 과격적인 집단이었다.

가장 연장자였던 정철조(1730~1781), 홍대용(1731~1783), 박지원(1737~1805) 연배에서부터 서유본(1762~1822), 서유구(1764~1845) 연배까지 무려 서른다섯 살의 나이 차이를 넘나들며 교제했다. 물론 연장자는 당연히 좌장으로서의 소임을 맡았고 후배들로부터는 깍듯한 존경을 받았다. 그렇다 해도 백담파의 중심축은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이서구로 대표되는 후4가(조선 후기의 4대 시인)와 백동수, 성대중, 윤가기(1747~1802) 등의 청년들이었다. (애써 구분하면, 백담파는 고문 - 홍대용, 회장 - 박지원, 총무 - 이덕무 체제였다 할 수 있다.)

이들은 당시 한양 어느 곳에서도 보였던 마천루이자 랜드마크, 백담을 중심으로 살았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이곳의 집값이 남산 다음으로 쌌기 때문이다. 백담을 가운데 두고 북쪽 전의감동에 박지원과 이덕무의 집, 서쪽으로 이서구의 사랑방과 서상수의 공부방인 관재, 여기에서 북동쪽으로 꺾어지면 유금과 유득공의 집이 있었다.

시사 모임의 아지트로 쓰인 곳은 주로 서상수의 '관재'였다. 이 공부방의 내력은 박지원의 유명한 문장, '관재기'로 남아 있다. 백담에서 조금 떨어져 박제가는 청교동(지금의 을지로 5가 근방), 백동수는 남산 밑 훈도방의 주자동에 살았다.

당시 서울에는 사대문 안에 20만 명, 성 밖에 10만 명 정도의 시민이 살았다 한다. 종로를 기준으로 동서남북중 5부로 나뉘고 그 중 종로에서 남산에 이르는 남부는 상인들과 부자들이 많이 살았지만 남산에 가까울수록 백동수의 할아버지처럼 퇴직한 관리나 박제가처럼 가난한 선비들이 주로 살았다.

백담파의 활동 고리는 남산에서 탐골공원까지의 구역이었다. 남산의 여러 개울과 누각, 정자는 물론 청계천, 광통교, 수표교 등의 아름다운 다리들이 문학과 예술의 토론장이거나 풍류지였다. 광통교 일대에는 지금의 인사동처럼 싸구려 중국제 골동서화들이 차고 넘쳤다. 여기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갑자기 '벽(癖)'과 '치(癡)' 예찬론이 쏟아져 나온 것도 특기할 만한 당시의 풍조였다. 일종의 마니아 예찬론으로서 무언가에 미친다는 이 경향은 이 지역을 또한 동지적 결속 아래 열광적 문예의 분출 지대로 만들었다. 마치 한창때의 용산 전자상가와 테크노마트, 압구정 로데오거리, 대학교와 홍대앞 예술거리를 모두 합쳐놓은 것 같은 열기가 넘쳤다.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끈 신지식인들

바야흐로 조선의 18세기는 우리 문화사에서 아주 매력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시기였다. 18세기는 조선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아주 특별한 세기였는데, 유럽의 계몽주의 학자들도 중세의 종교와 지배라는 억눌림에서 벗어나 분출하는 지식을 재배치하고 놀렸던 호기심을 백과전서적 저작에 투영하고 있었다. 조선의 지식인들 또한 주자학 일변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지식 경영에 몰입했다.

그러나 이렇게 활력으로 요동을 치는 시대였음에도 백담파의 많은 동인들은 울분과 슬픔, 가난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천체적인 재주를 발휘할 기회가 없었고 갈고닦은 문장과 경륜을 펼칠 수 없는 한계 때문이었다. 이런 모든 병폐의 근원은 서얼 제도였다.

조선 후기 사회에서 서얼은 양반의 피를 타고났다 하더라도, 인습적으로 '양반 사족층 - 일반 양민 - 서얼이되 직업이 있는 자 - 서얼 무직자 - 천인'이라는 위계 속에 놓여 있었다. 이것도 본인 당대에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서얼이면 손자도 서얼이 되어 내림 되는 굴레, 조선판 '주홍 글씨'였던 것이다.

백담파가 살던 18세기에는 영조와 정조의 서얼 등용으로 차별이 줄어들어 그나마 덜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굴레는 벗을 수 없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양반의 직업이라 할 수 있는 공직에 서얼들은 나설 수 있는 길이 적고 그에 따라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경제적 소외와 박탈이었다. 특히 백담파의 대부분인 서얼 지식인층은 오히려 더 어려운 처지였다. 양반이되 양반 대접을 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몸을 천인들과 함부로 섞을 수도 없는 처지의 경계인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궁핍한 날의 빛'들이었고 죽을 때까지 가난과 차별의 질곡에서 벗어나보지 못한 영원히 반 쪽짜리 인생이었다. 몰락한 양반의 후예로서 서얼들과 어울리고 백담시사의 좌장이 되었던 연암 박지원도 오죽했으면 이덕무와 박제가가 장년의 나이로 9품의 검서관이 되어 관직에 오르자 크게 기뻐하며 세상에 특별한 재주를 가진 이들이니 잘릴 일도 없고 이제야 굶어 죽지 않게 되었다며 이렇게 편지를 썼다.

'어떻게 사람한테 매미나 지렁이처럼 물만 먹고 살라고 하겠나.'

어느 정도는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겠으나 이전에 이덕무가 당장 먹을 것이 없어 맹자 한 질을 팔아 식량을 샀던 일이 있었기에 순수한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는다. 양반 후예이지만 박지원마저 가난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니 서얼들은 오죽했을까? 연암은 가끔 서얼 박제가에게 돈을 꾸달라

지금 서울은

연재



는 편지를 보낸다. 자기보다 무려 열네 살 아래 친구에게 가난 구조 요청을 할 정도로 당시는 너나없이 모두 궁핍했던 것이다.

‘공자가 진채에서 당한 것보다 곤경이 심하나도를 실천하느라 그런 것은 아닐세. 안희의 가난에 망령되어 비교하려 들면 무엇을 줄거냐고 묻겠지. 무릎을 굽히지 않은 지 오래인 나처럼 청렴한 인간 없음을 어찌겠나. 꾸벅꾸벅 질하노니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네. 여기 술병까지 보내니 가득 채워 보냄이 어떠한가?’ - 안대회역

박제가의 답장이 이리하다.

‘열흘간의 장맛비에 밥 싸 들고 찾아가는 벗이 못되어 부끄럽습니다. 200냥의 공방(돈)은 편지 들고 온 하인 편에 보냅니다. 술병은 일 없습니다. 세상에 양주의 학은 없는 법이지요,’ - <고전산문산책>, 안대회역

돈은 찢주되 끝내 술병만은 채워 보내지 않겠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이 답장에는 진정한 벗으로서의 허물없는 도리가 흐르고 있다. 술까지 보내어 좋은 것을 한꺼번에 다 누리게 하는 ‘양주의 학’을 베풀 수 없겠는데, 왜 나하면 소망하는 것이 다 이뤄지는 건 인생의 순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 200냥에 비해 술 한 병이야 하찮을 수 있으나 술이 있어도 보낼 수 없다는 의리다. 아마 어찌면 일부러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없다고 함

으로써 이쪽도 스스로 미안함을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꺾달
라는 사람이나 꺾주는 사람 피차간에 미안함으로 서로에게 양금이 남지
않은 거래가 이뤄진 셈이기 때문이다.

재기 발랄한 백담파의 우정은 참으로 활기차고 재미있고 또 박진감 넘
쳤다. 이들은 서로의 재능을 아끼고 인정하며 또한 속된 말로 서로를 ‘갈
켰다’ 특히 박제가와 유득공은 아주 절친한 악우로 만나기만 하면 자기들
끼리 투닥거리고 골탕을 먹었다.

‘초정(박제가)과 냉재(유득공)는 악인연이라/기묘한 조롱과 해학으로
막상막하 다투네/오후에 청장관(이덕무)이 교감을 마치고서/소리 없이
걸어와서는 백중간에 서네/성흠(이희경)은 흰칠한 키가 마치 황새 같으
나/콜록콜록 객혈하고는 끄꿍대며 신음하네/바로 이때 청성(성대중)이
주인이 되어/드높게 앉은 자리 다른 산을 내려다보네/한 자리는 비워두
고 뚱뚱한 나를(이기원) 앉게 하니/곤륜산 옥사이에 괴석이 끼어든 풀이
라/거리낌없이 돌아가며 회극을 하느라고/천상부터 지하까지 모든 일을
짓까부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박제가는 한번 백담 근방을 방문하면 집에 돌아가는
것을 잊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이집저집에 머물렀다. 그때 지은 시문과 칙
독(편지)이 곧잘 책을 만들어도 좋을 정도가 되었으며, 술과 음식이 있으면
낮을 이어 밤을 지새우곤 했다. 박제가는 신흠 첫날밤에도 장인 댁 말을 끌
어내 안장도 없이 올라타고는 동자 한 명만 데리고 술집 순례를 끝마친 뒤
밤 열두 시를 알리는 삼경 북소리를 따라 여러 벼의 집을 두루 심방하고는
백담을 돌아 처가로 갔다. 달빛은 길에 가득하고 백담 주변은 어슴푸레 했
다. “이러한 때에 벼를 찾지 않으면 벼는 있어 무엇하리”라던 박제가였다.

‘초경(밤8시)에 유균을 만나고/사경(새벽 2시)에 이자를 만났네./...’
‘울 때는 달이 희미하더만/술 취하자 눈이 잔뜩 쌓였군./친구가 없다면/
내 어이 견디리/나는 ‘이소’를 안고/그대는 해금을 품고/이 밤에 문을 나
서/무관(이덕무)을 찾아가세.’ - 박제가의 ‘밤에 유균의 집을 방문해’

‘객은 ‘이소’를 품에 안고서/눈 오는 밤 나를 찾았네./그대의 불평스러운
맘을 알기에/내 한 번 ‘광릉산’을 연주하노라.’ - 이에 대한 유균의 회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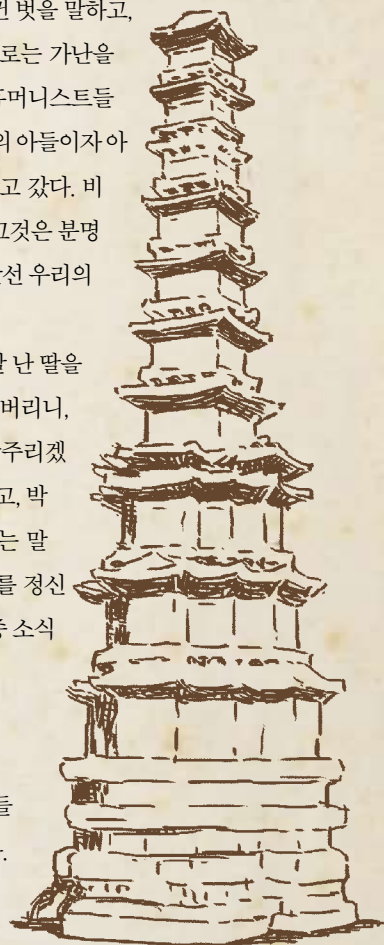
이들은 아홉 살의 나이 차이에도 눈 오는 날의 운치를 나뉘 가졌던 것
인데 그렇다고 이들이 늘 술타령으로 세월을 보낸 것은 아니다. 알다시피

박제가의 목숨을 걸고 현실을 위한 학문을 주장했고 시력을 잃어가면서
까지 책을 썼던 사람이다. 이들 백담파 서열들과 함께했던 이서구는 우의
정, 남궁철은 영의정까지 되었다.

우리보다 250년 앞서 종로3가 탑골공원 근방에 살았던 이들 백담파 동
인들은 현실에 불만을 품은 서열이자 기인이었고, 학자이자 문인, 예술
애호가였으며 신세대 마니아였다. 또한 이들은, ‘천하에서
가장 친밀한 벗으로는 궁궐할 때 사귄 벗을 말하고,
우정의 깊이를 가장 잘 드러낸 것으로는 가난을
상의할 때’를 꼽았던 절대 순수의 휴머니스트들
이었다. 그들은 더도 덜도 아닌 이 땅의 아들이자 아
버지, 아내의 지아비로서 한 삶을 살고 갔다. 비
록 지금의 우리 처지와는 다르지만 그것은 분명
나라와 시대를 고쳐하고 슬퍼했던 앞선 우리의
자화상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덕무가 세 살 난 딸을
묻고서 ‘시월 빈 산에다 영원히 너를 버리니,
땅속에는 젖이 없으니 너는 이제 굶주리겠
구나’ 라는 안쓰러움에 동참할 수 있고, 박
제가 시집 간 둘째 딸이 위독하다는 말
을 듣고 폭우가 쏟아지는 밤길 80리를 정신
없이 달려갔으나 말 위에서 딸의 임종 소식
을 듣고서는 ‘들판을 향해 통곡했다’
는 그 심정에 함께 입술을 깨물며 같
은 들판에 설 수 있는 것이다.

바로 한 공간인 여기에 지금껏 그들
은 우리와 함께 살아오고 있는 것이다.



글 김광만

시인으로 출발해 다큐멘터리 작가를 오랫동안 했으며 지금은 독립프로덕션 PD로 활동 중이다.
누구도 관심 두지 않은 역사, 쉬 드러나지 않은 진실, 잊히고 숨겨진 것의 정체를 끝끝내 밝히는
일을 즐긴다.

그림 조성현

페어트레이드 포트나이트에서 피플스 슈퍼마켓을 만나다

슈퍼마켓에만 가면 다들 참 치졸해진다. 10원 차이 때문에 10리 길 마다 않고 차를 몰고 쇼핑을 나선다. 그런데 한 한국인이 런던의 한 슈퍼마켓 운영에 보태라고 50파운드, 우리 돈 약 9만 원을 부쳤다. 어떤 슈퍼마켓이길래?

그날은 매년 있는 페어트레이드 포트나이트의 첫날이었다. 포트나이트(Fortnight)란, 14일이란 뜻으로 2주를 의미한다. 매년 2월 마지막 주부터 3월 첫 주까지 영국 공정무역재단에서는 공정무역을 알리기 위한 행사를 전역에서 실시한다. 우리말로 하자면, 공정무역의 주간쯤으로 되겠다. 한편, 피플스 슈퍼마켓(the people's supermarket)에서는 이 기간에 공정무역과 연계된 독립 디자인들과 그들의 작품을 전시 판매하기로 했다. 지난 호에 소개한, 내 친구 크리스 호튼 군의 공정무역 카펫 노트 러그도 초대되었다. 슈퍼마켓의 쇼윈도에 카펫을 설치하러 가는 길에 나도 동참했다. 길이 2m, 무게 3kg이 넘는 카펫 석 장을 싣고 오느라 탔던 택시 안에서는 공교롭게도 슈퍼마켓에 관한 좌담이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다. 최근 영국 정부에서는 장기 실업자들이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슈퍼마켓에 허드렛일자리라도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정부가 급여를 대신 지불하는 제도를 시행

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 일자리들이 대형 슈퍼마켓에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이미 하루에만 수억씩 벌어들이는 기업에 그 같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는냐는 게 좌담의 주제였다.

그런데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들어선 슈퍼마켓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지하층에 위치한 사무실에서는 회원들이 둘러앉아 비상 대책 회의 중이었다. 실은 전시가 시작되기 며칠 전 피플스 슈퍼마켓은 단체 이메일을 돌렸다. ‘우리는 이번 주에 문 닫을지도 모릅니다.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캄든 구청(슈퍼마켓은 행정구역상 캄든에 위치한다)에서 이곳을 상업시설로 구분하고 높은 세금을 부과했다. 이번 주까지 세금을 내지 못하면 영업 허가가 취소될 위기다. 슈퍼마켓 측은 큰돈이 없기도 했고, 주민들의 협동조합에 상업 시설과 같은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게 억울했다. 미래를 위해, 절세 요청을 위해 몇 차례 회의도 했지만 캄든 구청은 법이 그러하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 “그러나 피플스 슈퍼마켓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대안 슈퍼마켓이다. 설마 캄든 구청 직원들이 피플스 슈퍼마켓의 문을 닫게 한 장본인들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진 않을 거다. 지불 기한을 연기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려고 한다.” 자원 봉사하러 나온 회원 중 마이클은 어깨를 으쓱하며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런던의 공정무역, 착한 소비 이야기 II

한국에서 온 50파운드의 희망,
피플스 슈퍼마켓



입구에서 판매되는 과일은 매일 런던 인근에서 수확, 배달되어 신선하다.





피플스 슈퍼마켓 내부, 계산원은 모두 자원봉사자들이다.



갓 구운 빵, 친환경, 재활용 제품들을 위주로 판매한다.

공정무역, 대형 슈퍼마켓에 맞서다

피플스 슈퍼마켓은 일종의 협동조합이다. 즉,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슈퍼마켓에서 장을 볼 때마다 정가의 20%를 할인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단, 한 달에 4시간씩 슈퍼마켓에서 무상 근무를 하고, 회기마다 열리는 회원의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즉, 근무도 하고 발언권도 갖는 등 경영과 운영에 참여하는 조건이다. 한편, 슈퍼마켓에서는 따로 직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으니 인건비를 줄이고, 회원이라는 고정 고객을 확보하는 경제적인 이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 슈퍼마켓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대형 슈퍼마켓 체인들이 있다. 이미 런던 구석구석 테스코, 세인즈버리, 웨이트로스 등이 침투했고 구멍가게들은 그 수가 확연하게 줄었다.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다. 영문으로는 슈퍼슈퍼마켓(Super-Supermarket), 한국어로는 기업형 슈퍼마켓이라는 불리는 이 식품 소매상들은 전 세계 대도시의 뜨거운 감자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유통 대기업들이 체인점 방식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대형 마트보다 작고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규모가 큰 슈퍼마켓을 의미한다. 서울만 해도 갖가지 편의 시설, 다양한 물건과 저렴한 가격, 깔끔한 포장 등으로 슈퍼마

켓들이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를 초토화한 지 오래다. 한편, 지금껏 슈퍼마켓을 운영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을 못 봤는데, 어떻게 이들 대형 슈퍼마켓은 급속도로 세를 늘리고 있는 걸까?

페어 트레이드 디자인의 모임에서 만난 누군가가 이들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아프리카의 케냐에서 제작된 그림카드를 공정무역으로 영국에 판매하는 재단의 운영자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 중 한 곳에서 이 카드를 입고하겠다며 연락해왔고, 당연하다는 듯 제작 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제시했다. 그녀는 밀지는 거래에 동의했다. 이 체인점에서 카드가 판매되면 더 많은 사람이 공정무역과 이 카드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될 테니. 이렇듯 촘촘한 유통망을 무기로 공급자들을 후려치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전략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어쨌든 싸니까 우리는 대형 슈퍼마켓에 가고, 손님 떨어진 동네 슈퍼는 업종을 변경하거나 문을 닫고, 남은 곳은 대형 슈퍼마켓뿐이고, 공급 단가는 계속 낮아지고 악순환은 어디서나 계속되고 있다.

부엌 딸린 슈퍼마켓

한편, '피플스 슈퍼마켓'은 겉보기에도 다른 동네 슈퍼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곳에는 없는 희귀

한정 상품을 파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입장은 확실하다. 첫째, 런던 혹은 영국에서 생산된 식자재를 입고한다. 푸드 마일, 즉 음식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둘째, 채소는 개별 포장하지 않는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셋째, 채소와 과일은 생김새보다 신선도가 우선이다. 공급 단계에서 예쁘지 않다고 제외되고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넷째, 닭장이 아닌 방목해 키운 닭의 달걀만 입고한다. 다섯째, 친환경·공정무역 상품을 우선적으로 입고한다.

피플스 슈퍼마켓 한 칸에는 '부엌'이 있다. 이곳 '부엌 요리'는 론칭한 이래 현재까지 슈퍼마켓 전체 매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슈퍼마켓에 입고된 채소 등 식자재의 유통기한이 아슬아슬해지면 여기 부엌으로 옮겨진다. 채소 주스부터 파스타까지 그날그날 재료에 따라 다른 식품들로 조리되어 판매된다. 대형 체인 슈퍼마켓에서도 이와 같은 조리 식품을 판매하지만 분명 다르다. 피플스 슈퍼마켓에서는 유통기한 직전의 식자재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숨기기는커녕,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적극 알리고 있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슈퍼마켓들에서 매일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



슈퍼마켓의 위기 상황을 알리는 공고. 나쁜 소식도 즉시 회원들에게 알리는 것도 이곳의 특징이다.

은 엄청나다. 런던, 뉴욕 등 대도시에서는 대형 슈퍼마켓의 음식물 쓰레기 트럭, 즉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포장이 훼손됐지만 멀쩡한 음식물이 담긴 보물단지를 전문적으로 습격하는 ‘꾼’들까지 있다.

피플스 슈퍼마켓의 발기인이자 유명한 채식 전문 레스토랑의 요리사 아서 포츠 도슨(Athur Potts Dawson). 그가 열었던 음식물 쓰레기 만찬은 꽤나 유명하다. 피플스 슈퍼마켓 오픈을 위한 기금 조성 자선 파티에서였다. 그날 게스트들에게 대접한 진수성찬은 대형 슈퍼마켓에서 투척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서 찾아낸 갖가지 재료로 만들어졌다. 그는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로 주어 음식에 사용되는 채소를 기르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피플스 슈퍼마켓의 음식물 쓰레기 역시 최종 단계에서 근처 정원의 비료가 된다. 한편, 또 다른 발기인의 한 사람이자 현재 슈퍼마켓의 CEO를 맡고 있는 케이스 볼스(Kate Bulls)는 영국의 대형 체인 소매상 맥스앤스펜서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했었다.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가진 더 많은 사람과 심시일반으로 좋은 슈퍼마켓을 열어보자고 뜻을 모은 게 2009년의 가을의 일이다. 2010년 6월 정식으로 문을 열기 전까지 슈퍼마켓은 기획 단계부터 주목을 받았다. 기획부터

오픈까지 9개월간의 이야기를 BBC에서 4부작 다큐멘터리로 방영하기도 했다. 가장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채소의 공급 단가를 낮추는 과정. 어쨌든 슈퍼마켓에서 가격 경쟁력은 중요하다. 그래서 내놓은 아이디어가 못생긴 채소였다. 대부분의 체인 슈퍼마켓에서는 오이든, 호박이든, 표면에 흠 없고 좌우 대칭의 형태를 가진 것만을 입고한다. 따라서 좀 못생긴 채소들은 공급 과정에서 탈락되고 대개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피플스 슈퍼마켓에서는 외관이 완벽하지 않지만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전략을 쓴다.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또 다른 해법이기도 하다.

당신의 건강한 소비를 응원합니다

피플스 슈퍼마켓에서의 쇼핑은 색다른 경험이 될 거다. 여기 회원이자 자원봉사자들은 상품을 진열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일에는 아직 서툴다. 모두들 행동이 재치 없고 확실히 느긋한 구석이 있다. “시금치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냉장고를 들여다보더니) 그렇게. 뭐 만드실 건데요?” “김밥.” “시금치 없으면 가지 넣어도 되는데.” “뭐?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일단, 소금에 절인 후에.” 월요일 오후에 슈퍼마켓에서 엿들은 대화다(한국식으로 좀 각색했지만). 모두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슈퍼마켓은 파티를 열기에 안성맞춤인 공간이다.

술과 안주가 여기저기 널려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의사든, 공사장의 인부든, 실업자로 10년을 살아왔든 간에 매일 빵과 우유가 필요하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열리는 피플스 슈퍼마켓의 파티는 그래서 꼭 참석해볼 만하다. 상품 진열하는 일에는 미숙했던 그 자원봉사 청년이 데뷔 앨범을 준비하는 힙합 아티스트로 자신을 소개하거나, 상추 부스러기를 쓸고 있던 아저씨가 은퇴한 변호사였고 취미로 드럼을 연주한다는 등 기대치 못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슈

퍼마켓에서 나누는 대화치고는 문화적이지 않은가. “인간은 문명을 건설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쇼핑몰이나 짓고 있다.” 여행작가 빌 브라이슨이 한 말이다. 피플스 슈퍼마켓은 쇼핑몰에서는 멀고 문명에서는 가깝다.

덧붙여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3월 3일자 신문에 피플스 슈퍼마켓이 7,000파운드를 모금했고, 무사히 5,000파운드의 세금을 납부했을 뿐 아니라 한 자선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후원을 받기로 했다는 요지의 기사를 실었다. 굵은 글씨체로 슈퍼마켓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부터 50파운드를 기부받기도 했다. 북한인지 남한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기업, 기업가들

사회적 기업이란 쉽게 말해 정승처럼 벌어, 정승처럼 쓰는 단체다.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노동이 자본을 대체할 수 있고 사회, 환경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피플스 슈퍼마켓이 대표적인 예로, 회원들이 매달 4시간의 자원봉사로 계산원이나 창고 직원을 고용하고 지불해야 할 임금을 대체한다. 또, 이윤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돌리는 기업들 역시 사회적 기업으로 분류된다. 가장 쉬운 구분법은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는 상업 시설이다. 공공의 선을 추구할 때에야 자원봉사자들이 무료로 노동을 제공할 테니까. 영국에서의 사회적 기업은 전체 상업 규모에서 2004년 1.2%를 차지했다가 2006년에는 5%로 드라마틱하게 성장했다. 그중 코퍼레이트 그룹(Co-operative Group)은 현재 슈퍼마켓, 은행, 상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 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내지갑에서 나간 돈은 어디로 갈까? 이 물건은 누가 어디서 무엇으로 만들었나? 바로 이 질문에 허신타회에게 대답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들.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글 박루니

1977년생. <TTL> <보그> <하퍼스바자> 등 월간지에서 피쳐 에디터로 활동. 친구들과 함께 뉴욕에서 디자이너로 사는 법에 대한 안내서 <친절한 뉴욕>을 공동 집필했고, 2008년 발간했다. 런던에 체류하며 착한 소비에 관한 책을 집필 중이다.

파리 시네마테크 〈팀 버튼 특별전〉

파리를 매혹시킨
어른들을 위한
동화

<http://www.cinematheque.fr>



전시회장 내부 모습

미국의 영화감독 팀 버튼(Tim Burton)의 30년 영화 인생을 조명하는 특별전이 파리의 시네마테크 프랑스에서 개막했다. 2009년 뉴욕의 현대미술관 모마(MoMA)에서의 전시 성공 이후 호주 멜버른, 캐나다 토론토, 다시 미국 로스엔젤레스를 거쳐 올봄 프랑스에 입성한 것이다.

1982년 단편 애니메이션 〈빈센트〉로 데뷔한 팀 버튼은 그의 영화 인생에서 최초의 극영화인 〈피위의 대모험〉을 시작으로, 〈비틀쥬스〉 〈벳맨〉 〈가위손〉 같은 히트작을 세상에 내놓는다. 이후 〈배트맨 리턴〉 〈에드워드〉 〈화성침공〉 〈찰리와 초콜릿 공장〉 〈슬리피 할로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등으로 이어지는 필모그래피만 봐도 그의 기괴한 상상력으로 빚어진 그로테스크하고도 환상적인 세계가 머릿속에 그려진다.

전시는 크게 팀 버튼의 유년기, 월트디즈니에서 일하던 시기, 장편영화 감독으로 데뷔한 이후의 시기,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이루어진다. 전시장 입구에는 그가 집필했던 일러스트 동화책 〈굴소년의

우울한 죽음〉(1997)에 등장한 캐릭터들의 스케치와 애니메이션 필름, 미니어처를 시작으로, 창작 시절의 드로잉, 비디오 자료, 영화를 위한 스케치, 모형, 스토리보드, 소품 700여 점이 공개되었다.

그의 영화 속에 등장하는 피조물들은 사람과 시체, 괴물, 동물 형상이 잡종 교배된 듯한 생명체로 나타난다. 좀비들의 세계에 사는 유령 신부, 헬러윈 마을의 해골 귀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날선 가위로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인간 가위손. 팀 버튼은 그가 창조한 캐릭터를 통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둠, 우울한 세계를 보여준다. 최악의 영화감독, 무능한 천재로 불렸던 에드 우드와 어린 시절의 불행을 간직한 다크 히어로 배트맨은 팀 버튼의 알터에고(alter ego·분신)로 투사된 감독 자신의 모습이다.

천재 괴짜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영화감독인 동시에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가진 예술가 팀 버튼. 그는 어둠과 빛이라는 화두, 즉 이 세상 모든 곳에 있는 역설로서 선인과 악인의 구분, 도덕과 비도덕, 미추의 개념을 전복시키고 소외된 자들을 위로한다. 그의 영화가 보여주는 세상은 팝과 고딕, 초현실주의가 뒤섞인 엉뚱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로 가득한 어른들의 동화라 할 만하다.

글 서동희

파리4대학(Universite de Paris-Sorbonne(Paris4))에서 미술사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동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다. 한국의 여러 잡지에 프랑스의 현대미술 전시회와 작가를 소개하는 글을 기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Acoustic66 헤드라인 공연으로 큰 호응을 얻었던 젊은 싱어송라이터 로버트 오코너가 3월 말 다시 찾아온다.

더블린 시티센터, 더블린의 상징 중 하나인 하프 브리지와 이웃한 그레이트 스트랜드 스트리트 (Great Strand street)에 이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형식의 문화공간이 등장했다. 태생부터 일반 공연장과 다르다. 이곳은 아일랜드 현지 교회인 데스티니 교회(Destiny Christian Church)가 주일 예배와 다양한 교회 사역을 위해 사용하는 건물. 데스티니 교회의 브렌든 목사와 교회 리더 몇몇이 지난해 9월, 경기침체로 어두워진 도시에 활기와 희망을 불어넣고자 시작한 작은 이벤트는 어느새 매달 200여 명의 사람을 불러 모으는 이벤트로 자리매김했다.

아일랜드는 그야말로 '뮤지션의 나라'다. 어느 도시, 어느 마을을 가든 거리마다 라이브음악으로 넘쳐난다. 술을 좋아하는 민족으로 유명한 아일랜드 사람들답게 이 나라에서 가장 흔한 라이브무대는 바로 펍(pub)이다. 맥주를 마시며 음악을 즐기는 펍 문화가 아이리시 문화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 때문에 '술을 심하게 마시는 민족'이라는 오명을 얻은 것도 사실이다.

Acoustic66는 알코올 프리 존이다. 대신 1부와 2부 사이 모든 뮤지션과 관객이 음식과 다과를 함께 즐긴다. 공간과 음식은 교회에서 무료로 제공

하고, 뮤지션들은 공연료를 따로 받지 않고 참여한다. 순수하게 자신의 음악을 소개하고 싶은 뮤지션과 순수하게 그 음악을 감상하고 싶은 청중. 이것이 상업성을 완전히 배제하고도 이 무대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이유다. 매달 마지막 금요일 저녁 7시에 시작되는 공연은 시인의 시 낭독, 밴드 또는 싱어송라이터의 노래와 연주로 다채롭게 구성된다.

Acoustic66팀 리더인 존 프렛(John Pratt)은 '앞으로 이 무대가 퍼브의 대안공간으로서 새로운 문화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 오는 3월 30일에 펼쳐질 3월 공연은 아이리시 싱어송라이터인 손 오닐, 엘 그레이, 캐서린 그린, 로버트 오코너의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글 이현구

잡지기자, 카피라이터, 사보편집자를 두루 거쳐, 문화예술 중심의 다양한 글을 기고하는 프리랜서 라이터로 독립했다. 현재 유럽의 작은 섬나라 아일랜드에서 비바람과 싸우는 법을 배우며 새로운 글쓰기를 고민하고 있다.

Acoustic66

음악과 시,
나눔이 있는
더블린의 열린
라이브 무대





‘콜라, 준다고요?!’ 즐겁게 느끼는 콜라주 수업

홍은예술창작센터 미술실기 프로그램 감(感)좋다, 콜라주&스토리텔링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첫 토요일, 서대문구 홍은동 옛 서부교통사업소에 자리 잡은 홍은예술창작센터에 꼬마 예술가들이 모였다. 홍은예술창작센터에서 진행되는 미술 실기 프로그램 <감(感)좋다>의 첫 번째 프로그램, 콜라주&스토리텔링 수업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자유롭게 즐기고, 느끼는 대로 오리고 붙여보기. 자기만의 내면 이야기를 만들어 서로 표현하고 소통하는 감(感) 좋은 콜라주&스토리텔링 교실로 들어가보자.



이번 수업은 <감(感) 좋다> 프로그램의 첫 번째 순서로 '콜라주&스토리텔링'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총 4주간 진행되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첫 번째 관문인 셈이다. 흥은예술창작센터 입주 작가가 직접 펼치는 수업이라니, 예술가의 넘치는 크리에이티브가 아이들과 새로운 공감대를 탄생시키기를 바라며, 학부모와 아이들이 들뜬 마음으로 수업 현장에 하나 둘 모여들었다. 흥은예술창작센터의 <감(感) 좋다>는 지난 3월 10일부터 매주 토요일 진행되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무엇보다 15명 내외를 대상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 게다가 무료 수업이라는 점이 시작 전부터 기대감에 찬 엄마들의 수다를 더욱 즐겁게 해주었다.

필자와 이제 열세 살, 열 살 난 아이 역시 설렘으로 마음이 잔뜩 부풀어 있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란 참으로 미묘한 나이다.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드는, 서로 다른 시간과 기억들을 하나 둘씩 공유하기 시작하는 나이. 이제 갓 사춘기에 들어선 큰아들과 새롭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하며 2층 교육실로 올라가는 길에는 '나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레이시아 작가(로슬리산 이스마일)과 한국 어린이들이 함께 만든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흰 벽을 따라 잡지 사진을 오려 붙여 표현한 여러 사람의 모습이 경사면을 따라 총총히 이어져 있다.

콜라? 콜라주? 그게 뭐가요!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콜라주 기법 같은데, 콜라주가 무엇일까요?"

"콜라병 터뜨리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 콜라주라고."

"그러니까 콜라 줘요?"

아이들은 그림이 재미있는지 재질재질 말장난이 한창이다. 벽면을 따라 콜라주에 대한 설명이 이어져 있다. 콜라주(collage)란 신문이나 잡지 등의 인쇄물에 있는 이미지를 오려 붙여 색다른 구도와 형태로 만들어내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미술의 표현기법이다. 콜라주에 대한 설명 아래로 알록달록 신기하게 펼쳐진 콜라주가 신기한지 아이들은 모두 벽에 붙어서 저마다 그림이 재미있는지 몸을 숙여 자세히 보기도 한다.

최근 미술 수업에 콜라주가 부쩍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저 여러 가지 그림을 덧대고 또 그려보는 일련의 과정이 주는 흥미로움 때문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각자의 표현 과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림의 내용이나 색채, 변화, 구도 등을 통해 어린이 자신의 바람을 파악하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림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아이들도 손쉽게 수업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전체적인 느낌은 그냥 아무런 형식 없이 재미있게 즐기고 느끼며 소통할 수 있는 수업이란 것이었다. 어렵지 않게 콜라주에 접근하기 위해 먼저 간단한 이론 수업이 진행됐다. 먼저 강아지 사진이 한 장 등장한다. 그런데 이 그림 조금 독특하다. 귀가 엉뚱하게 붙어 있기도 하고, 잘 살펴보면 부위별로 소재가 전혀 다른 재료를 쓰기도 했다. 그런데 멀리서 한눈에 보면 그저 한 마리의 강아지가 보인다. 그리고 이어 이론 수업을 진행한 백정기 작가의 콜라주에 관한 간단한 개념 설명이 따른다. 선생님은 콜라주는 저 강아지 사진처럼 신문이나 잡지 등의 인쇄물에 있는 이미지를 오려 붙여 색다른 구도와 형태로 만들어내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미술의 표현기법이라고. 그리고 콜라주는 스토리텔링, 즉 이야기가 있는 흐름이라고 덧붙인다. 콜라주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굴뚝에서 연



기가 나오는 이미지, 여기에 르네 마그리트, 조르지 브라크의 작품들이 이어진다. 예술을 보는 또 다른 눈이 트인 아이들이 저마다 탄성을 지르며 진지한 표정으로 수업에 열중한다. 인상적인 장면은 광고에 이용된 콜라주 기법이다. 지하철역과 같은 장소에 빨간색 의자가 있고 의자 뒤에 광고판이 보인다. 노란색 배경의 하단에 한 흑인의 머리카락만이 공중에 떠 있다. 의자에 사람이 앉으면 마치 흑인 머리가 자기 머리가 되어 두 개가 모여 새로운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광고 사진이었다. 흑인은 음악을 좋아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도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mp3 광고라고 한다. 발상이 참 재미있다. 이미지와 이미지가 만나 새로운 감정과 발상을 이끌어내는 콜라주의 즐거움이 점점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오리고 붙이고, 마음껏 표현하기

“콜라주는 왜 그리지 않고 붙일까요?”

“돈이 없어서요. 힘들어서요.”

“재료 아끼려고요.”

“독특한 자기만의 주의를 가지고 싶어서요.”

재치 충만한 아이들의 답이 쏟아져 나오고, 몸을 배배 꼬는 아이, 중간에 화장실에 자꾸 가려는 아이들이 생길 무렵 드디어 실습 시간이 되었다. 선생님이 나누어 주는 재료들은 지난해에 쓰던 폼폼잇과 리플릿을 재 활용한 것이다. 홍은예술창작센터 설립 취지처럼 대량생산 대량소비·폐기로 가는 것이 아닌, 대안을 찾아가는 작업의 일환이다.

오리고 붙이고, 점·선·면을 그리지 않고, 종이를 접거나 구부려서도 만 들어보고, 스케치할 때 가위로 꼭 눌러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제법 진지해보였다. 그림을 먼저 끝낸 아이들은 선생님과 이어그림 그리기를 했다. 먼저 네모를 그리면 다음 사람은 다리를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팔을 그린다. 선과 선을 주고받는 일은 말로 하는 것과는 또 다른 방식의 대화가 되어 선생님과 아이를 이어준다. 서로 신나게 웃고 떠드는 사이에 모두의 작품이 거의 완성되어갈 즈음, 서로의 작품에 대해 소개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들뜬 표정으로, 또 자랑스럽게 자신의 그림을 소개하는 아이들. 캔버스 가득 에너지로 뿜어져 나오는 저마다의 개성만큼이나 아이들은 스스로 발견한 새로운 어휘로 그림을 소개한다. ‘SF 로맨스’ ‘민들레 위 작은 아이’ ‘강아지야’ ‘날아라(개고기 되기 싫어!)’ 등 제목만큼 재미있는 내용이 많았다.

‘콜라주&스토리텔링’ 수업은 아이들만큼이나 참관한 학부모에게도 가슴속에 가르침 하나씩을 선사했다. 근사한 작품을 의기양양하게 들고 돌아가는 아이들은 전보다 표정이 한결 풍부해진 느낌이다. 매일 쏟아지는 숙제와 공부에 짓눌린 아이의 어깨가 조금 활짝 펴진 느낌도 들었다. 배우는 즐거움을 알게 하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아이에게는 충분한 것이 아니었을까.

글 김나영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많은 추억을 만들까 고민하는 평범한 엄마.

사진 박정훈



오리고 붙이고 쓱싹쓱싹, 제 작품이랍니다!



01



03



04



02



05

Sf로만스 · 김경서(대신초등학교 5학년)

저는 집이 홍은예술창작센터 근처예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매일매일 와요. 2층에 책 보러요. 책 카페 이름 '책 eat 수다'예요. 재미있는 이름이죠? 여기서 읽은 책들을 상상해서 그림을 그려 보았어요.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이 타임 머신을 타고 외계인과 중세시대에 만나는 이야기예요. 외계인이라 노란색이 나는 것으로 머리를 크게, 귀는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와장창' 글자는 둘 사이의 비극적인 사랑을 암시하는 거예요. 남자끼리니까요.

01. 본격적인 수업 전 콜라주 이론 알기 시간.
02. 르네마그리트의 그림을 보며 콜라주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03. 신문을 보며 본격적으로 머리 속에 작품 스토리를 구상해본다.
04. 마음에 드는 그림을 요리조리 오려 붙이기.
05. 완성된 콜라주를 보며 나만의 스토리 발표하기.

강아지야 날아라! · 한희정(보라매초등학교 4학년)

저는 강아지가 주인공이에요. 텔레비전 안에 개고기란 글자가 암시하듯이, 농구선수 같은 사람이 공 대신에 강아지를 잡아서 농구 골대에 슛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농구 골대에 총이 하늘을 향해 있어요. 하늘 위에서도 불쌍한 강아지는 쥐를 피해 도망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강아지야 날아라! 개고기 되기 싫어'입니다. 콜라주 수업할 때 선생님께서 연필이나 그림은 점, 선, 면을 그리지만, 콜라주는 접거나 붙이고, 오려서도 만들 수 있다고 하셔서, 농구 골대를 핑크색 종이를 접어서 만든 것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민들레 · 황현태(영훈초등학교 6학년)

저는 '라푼젤'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생각하며 콜라주를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펜 대신 다른 것들을 이용해도 된다고 하셔서 가위를 꼭꼭 눌러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은 연필이나 물감으로 그리는 것 인줄 알았는데 붙이는 것만이 아니라 눌러서도 만드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꼭꼭 누른 자국들은 민들레 씨가 날리는 장면이에요. 민들레 위에 작은 아이가 서서 하늘 위에 떠다니는 노란 별자리를 구경한 것이예요.

CULTURAL CALENDAR

4월의 재단소식



구분	사업	장소	일시	문의
공연창작 활성화 지원사업				
연극	제8회 여성연출가전	스타시티 B2(오씨어터)	04.04(수)~06.03(일)	연출집단여고 070-8836-6235 070-741-6235
	2012 서울연극제 참가작 <낙타풀>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04.25(수)~04.29(일)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02-3668-0029
	우리나라 우투리 1.1	원더스페이스	04.26(목)~04.28(토)	원더스페이스 02-6711-1400
음악	연극 그리고 또 하루	아르코 예술극장 소극장	04.25(수)~04.29(일)	아르코 예술극장 소극장 02-760-4840
	2012 한국여성작가회 봄 정기연주회 <The Panorama>	세종체임버홀	04.07(토)~04.07(토)	세종체임버홀 02-399-1111
	어린이 창작 오페레타 <부니부니>	국립중앙박물관 극장용	04.14(토)~05.20(일)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1544-5955
	제21회 델로스 정기작품 발표회 <한국의 소리 I>	세라믹 팔레스홀	04.19(목)~04.19(목)	세라믹 팔레스홀 02-3411-4668
	음악가들의 창작공간 신나라 작곡발표	부암아트홀	04.20(금)~04.20(금)	부암아트홀 02-391-9631
	칸타타 담마파다 3	KBS홀	04.29(일)~04.29(일)	니르바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 02-2157-0778
	파르텟21 제38회 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04.30(월)~04.30(월)	파르텟21 02-586-0945
무용	잠자는 숲속의 미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04.05(목)~04.08(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인포샵) 02-399-1114-6
	2012 제26회 춤작가12인전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04.10(화)~04.15(일)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 02-760-4840
전통	창작국악뮤지컬 <천상지에天上之愛>	국악소극장 창덕궁	03.01(목)~05.31(목)	국악소극장 창덕궁 02-742-7273
	여수연 해금독주회 Beyond the World	국립국악원 우면당	04.08(일)~04.08(일)	국립국악원 우면당 02-580-3333
	채주병 거문고 독주회	국립국악원 우면당	04.15(일)~04.15(일)	국립국악원 우면당 02-580-3333
	Passage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04.18(수)~04.18(수)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02-2280-4114
시각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전시	아트라운지 디방 2012 출사표	평창동 435번지 아트라운지 디방	04.02(월)~04.30(월)	아트라운지 디방 02-379-3085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12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전관 및 야외	04.07(토)~04.13(금)	(사)한국조각가협회 02-720-9101
	2012동방의 요괴들-Best of Best 展	충무아트홀	04.13(금)~04.29(일)	동방의 요괴들 운영위원회 02-797-2117
	이진영 개인전	서울시 종로구 창성동 122-9 쿤스트독 갤러리	04.13(금)~04.26(목)	쿤스트독갤러리 02-722-8897
다원예술창작활성화 지원사업				
다원예술	이태리의 정원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 극장	04.03(화)~04.04(수)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 극장 02-3279-2233
	The Movie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 극장	04.11(수)~04.12(목)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 극장 02-3279-2233
	북조선 펑크록커 리성웅	아트선재센터	03.16(금)~04.18(수)	아트선재센터 02-733-8945
남산예술센터				
공연	<878미터의 봄>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03.20(화)~04.08(일)	02-758-2150
	<푸르른 날에>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04.21(토)~05.20(일)	
서교예술실험센터				
프로그램	<서교동 하늘공작소 심화과정>	서교예술실험센터 2층 3호실	03.31~05.26 (매주 토)	02-333-0246
	<서교동 하늘공작소 하루과정>	서교예술실험센터 옥상공방	03.31~06.16 (매주 토)	
	<하찌아저씨와 함께 하는 우쿨렐레 데이트>	서교예술실험센터 2층 3호실	02.16(목)~04.06(금)	
	<하찌아저씨와 함께 하는 우쿨렐레 데이트-결과공연>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전시장(예정)	04.06(금)	
금천예술공장				
프로그램	2012 예술재능 나누기 <예술가의 방>	금천예술공장 워크숍룸	04.12(목)	02-807-4135
	2012 입주작가 제안 프로젝트	금천예술공장 PS333 전시실	04.19(목)~05.17(목)	02-807-4136
신당창작아카데미				
상설전시	<생활사 박물관> 프로젝트	신당창작아카데미 생활사박물관	상시 오픈(일 제외)	02-2232-8833
프로그램	예술교육프로그램 <나도 예술가-일일체험>	신당창작아카데미 전시실1	03.10~05.05(매주 토)	
	예술교육프로그램 <나도 예술가-디자인 워크숍 I>	신당창작아카데미 전시실2	03.17~04.07(매주 토)	
	예술교육프로그램 <나도 예술가-디자인 워크숍 II>	신당창작아카데미 전시실2	04.14~05.05(매주 토)	
	예술교육프로그램 <나도 예술가-유리공예 워크숍>	신당창작아카데미 전시실2	04.07~04.28(매주 목)	

								
가든파이브 <금난새와 함께하는 스프링 콘서트>		남산예술센터 <878미터의 봄>		홍은예술창작센터 미술실기프로그램 <감(感), 좋다>				
구분	사업	장소	일시	문의				
신당창작아케이드								
프로그램	예술교육프로그램 <나도 예술가-북아트 워크숍>	신당창작아케이드 공방 10호	03.17~05.05(매주 토)	02-2232-8833				
	예술교육프로그램 <나도 예술가-금속공예 워크숍>	신당창작아케이드 공방 10호	04.04~05.23(매주 수)					
연희문학창작촌								
프로그램	2012 봄학기 연희문학학교 <박형준 시인의 시창작교실>	연희문학창작촌 세미나실	03.13(화)~05.29(화)	02-324-4600, 4690				
	2012 봄학기 연희문학학교 <원종국 소설가의 소설창작교실>	연희문학창작촌 문학미디어랩	03.13(화)~05.29(화)					
	미래문학IN	연희문학창작촌 문학미디어랩	04.12(목)					
	4월 연희목요낭독극장	연희문학창작촌 야외무대 열림	04.26(목)					
문래예술공장								
프로그램	시민 예술창작 워크숍 <장롱 속 기타 꺼내기> 6기	문래예술공장 3층 녹음실	04.16(월)~06.21(목)	02-2676-4300 0505-388-965				
공연	[대관] 공연창작집단 뛰다 <내가 그랬다고 너는 말하지 못한다>	문래예술공장 2층 박스씨어터	04.20(금)~04.22(일)					
성북예술창작센터								
전시	2011 하반기 공방 워크숍 <월요일 N 하늘공방> 결과 전시회	성북예술창작센터 갤러리 <맺음>	02.15~04.14					
프로그램	브런치시네마 & 시네마카페	성북예술창작센터 음악실 <공간>	04월 매주(수,목)	02-943-9300				
	공감시네마	성북예술창작센터 음악실 <공간>	04월 매주(금)					
	예술로 토요일	성북예술창작센터 스튜디오 및 전역	04월 21일(토)					
	옥상공방	성북예술창작센터 옥상공방	4월 매주(월,수,금)					
	음악으로 소통해(밴드/색소폰/통기타)	성북예술창작센터 음악실 <공간> 및 주민창작(밴드)실	4월 매주 평일					
	커뮤니아트 프로젝트	성북예술창작센터 스튜디오 및 외부공간	4월 중					
	미술치료 프로그램 <아트만>	스튜디오 <#4>	4월 매주(목,금)					
	음악치료 프로그램 <속명음악연구회>	스튜디오 <#5>	4월 매주(월,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성북예술창작센터 내	4월 내					
	작가협업 창의체험 프로젝트	성북예술창작센터 및 외부공간	4월 내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프로그램	<국악아, 책이랑 놀자!> (서울문화재단 '2012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공모' 선정사업)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04.26(목)~11.29(목)	02-871-7400, 7417	
공연영역 프로그램 <관악명랑방석극장>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04.28(토)					
상설체험 프로그램 <관악창작공방>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상설					
홍은예술창작센터								
프로그램	무용 실기 프로그램 <몸, 좋다>	홍은예술창작센터	04.02~04.30(매주 월)	02-304-9100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무용놀이'	홍은예술창작센터	04.02~04.30(매주 월)					
	무용 실기 프로그램 <몸, 좋다>	홍은예술창작센터	04.02~04.30(매주 월)					
	'움직임 놀이를 통한 창의력 개발'	홍은예술창작센터	04.18~04.25(매주 수)					
	무용 실기 프로그램 <몸, 좋다> '장애인 움직임 워크숍'	홍은예술창작센터	04.12~04.26(매주 목)					
	무용 실기 프로그램 <몸, 좋다> '살아나는 몸, 나, 너'	홍은예술창작센터	04.06~04.27(매주 금)					
	무용 실기 프로그램 <몸, 좋다> '한량무(한국무용)'	홍은예술창작센터	04.07~04.28(매주 토)					
	미술 실기 프로그램 <감(感), 좋다>	홍은예술창작센터	02.20~06.15(매주 토)					
	'검은 눈동자와 움직이는 발'	홍은예술창작센터	3월~6월(예정)					
	무용 이론 프로그램 <몸, 읽다>	홍은예술창작센터						
	지역연계프로젝트 <세탁기 장식장>	홍은예술창작센터						
	가든파이브(문화예술프로젝트)							
공연	금난새와 함께하는 스프링콘서트	가든파이브 아트홀	03.31(토)~04.01(일)	02-2157-8780				
	명작발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가든파이브 아트홀	04.06(금)~04.08(일)					
	스타킹버블맨의 뽀뽀이 버블쇼	가든파이브 아트홀	04.13(금)~04.29(일)					

SFAC NEWS

4월의 재단소식



신당창작아카데미 북아트 수업 모습

서교예술실험센터 공방 프로그램 시작

서교동 하늘공작소

서울시창작공간 서교예술실험센터는 2012년 봄 시민프로그램으로 <서교동 하늘공작소>를 3월 31일부터 진행한다. 전문 목공 강사와 함께 일정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목공용품을 만드는 이 프로그램은 하루 과정과 심화 과정이 있으며, 하루 과정은 당일 주어진 시간 동안 목재 조명 키트와 재활용품 활용 조명 중 택 일해 제작하고, 심화 과정은 수강생의 기호에 맞게 다용도 서랍장을 디자인해 8주 동안 제작한다. 3월 31일 시작해 매주 토요일에 진행하며 하루 과정 총 12회, 심화 과정 총 8회로 구성된다.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신청은 3월 12일(월)부터 30일(금)까지 서교예술실험센터 공식 카페(<http://cafe.naver.com/seoulartspace/>)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별도의 수강료 있음)

7명의 해외 입주예술가 기획전, 4월 19일부터 열려

금천예술공장 입주예술가 제안 프로젝트



입주작가 제임스 로버트의 작품

서울시창작공간 금천예술공장은 입주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제안과 아이디어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입주예술가 제안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개관 이후 다양한 창작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금천예술공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입주 예술가들의 다양한 제안을 보다 유연하고 역동적으로 기획해, 특색 있는 프로젝트로 운영할 계획이다.

첫 프로젝트는 7명의 해외 입주 예술가의 제안을 바탕으로 한 기획전시로, 4월 19일부터 5월 17일까지 금천예술공장 PS333전시장에서 열린다. 참가 예술가는 애덤 톰슨(Adam Thompson·영국), 가브리엘 리코(Gabriel Rico Jimenez·멕시코), 제임스 로버트(James Robert Southard·미국), 조디 우드(Jody Wood·미국), 레슬리 조인스(Leslie Joynes·미국), 켄틴 코넷(Quentin Cornet·프랑스) 등 4개국에서 온 7명이다.

서울시창작공간 홈페이지 <http://www.seoulartspace.or.kr> 금천예술공장 블로그 http://blog.naver.com/sas_g/
기간 2012. 04.19(목)~05.17(목) (총 29일) 장소 금천예술공장 3층 PS333

예술가 작업실도 구경하고, 예술 강연도 듣자!

2012년 금천예술공장 예술재능 나누기 프로그램 <예술가의 방>

금천예술공장의 2012년 예술재능 나누기 프로그램 <예술가의 방>이 4월부터 12월까지 두 달에 한 번씩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국내외 입주 예술가들의 창작스튜디오를 관람하고 창작활동 과정 및 작품 제작 강연으로 구성된 <예술가의 방>은 관심 있는 일반 단체, 대학생,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두 달에 한 번 예약 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4월 12일 열리는 첫 프로그램에는 제임스 로버트(미국)와 안정주(국내 3기) 두 예술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금천예술공장의 <예술가의 방>은 지난해 처음 시작, 총 10회에 걸쳐 7개국 23팀의 예술가들과 750여 명의 학생 및 단체가 참여해 예술재능 나눔과 예술체험 활동 모두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문의 02 -807-4135 / geumcheon@sfac.or.kr

2011 <예술가의 방>의 한 코너

다채로운 공예특성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새롭게 선보여

신당창작아케이드 예술교육 프로그램 <나도 예술가> 개강



신당창작아케이드 <나도 예술가> 수업 장면

신당창작아케이드는 공예체험교실의 새 장을 연 <나도 예술가> 프로그램을 2012년 공예특성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단순 체험에서 기술, 지식, 창의적인 생각을 불어넣어 일상을 좀 더 예술화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아 기획되었다.

2012년 상반기 프로그램은 크게 세 프로젝트로, 도자·섬유·금속·

유리·북아트·디자인 분야를 아우르는 공예 체험으로 진행된다. 기존의 '일일 체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4주 혹은 8주간 진행되는 심화 프로그램으로 <공예·디자인 교육 워크숍>을 신규 개설 운영한다.

<일일체험>은 신당창작아케이드에 입주한 섬유·도자·금속 예술가들과 함께한다. 작가가 선택한 초벌 도자에 전사기법으로 접시 만들기, 양모 펠트를 이용한 볼 브로치 만들기, 나무함에 금속 이름판 달기, 핀칭 성형(어떠한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손으로 제작하는 기법) 위에 질감을 낸 감성 도자 만들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공예·디자인 교육 워크숍>은 입주 예술가와 함께하는 수업을 통해 기본적인 공예 제작 기술을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일상에 예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4월에는 입주 예술가 '해아'가 4주 심화 프로그램으로 <펠트 가방의 디자인과 제작의 이해>를 진행한다. 이번 디자인 워크숍에서는 최근 많이 사용되는 펠트 섬유를 활용해 일반 패브릭과 구분되는 펠트 소재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제작 과정과 표현 기법을 습득한다. 참여자 모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는 기본 디자인 위에 제작자의 취향을 가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입주 예술가 유정아는 일상의 숨은 텍스처(질감)를 찾아 유리 콜라주로 표현하고 다양한 형식의 몰드 뜨기 기법을 배워보는 <숨은 텍스처, 쓰는 텍스처>를 진행한다. 4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인근 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사전 섭외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다. 8주 워크숍으로는 금속예술가 정형규가 진행하는 장신구 제작 프로그램과 안경희의 '예술책 만들기를 통한 재능나눔 프로젝트'인 <책.상(冊.想)클럽>을 만날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동대문벨트 내 특성화고(高) 청소년(공예디자인 관련 전공)과 함께하는 <예술교육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예술가들에게 직접 제작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담아 내 손으로 작품을 만드는 몰입의 즐거움을 통해 일상을 다르게 경험해볼 수 있다. 상반기 프로그램은 3월 10일(토)부터 5월 5일(토)까지 9주간 운영되며 모든 프로그램의 참가비는 무료다. 서울시창작공간 홈페이지(www.seoulartspace.or.kr)에서 사전 신청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문의 02-2232-8833

인근지역 직장인과 일반인 대상, 10주 강습 프로그램

문래예술공장 시민 예술창작 워크숍 <장롱 속 기타 꺼내기> 6기 수강생 모집

서울시창작공간 문래예술공장의 <장롱 속 기타 꺼내기>는 10주 완성 통기타 강좌로 문래동 및 영등포 인근지역의 직장인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문래예술공장이 지역 사람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주고,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미 지난해 시작되어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3월 28일부터 4월 12일까지 제6기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이번 강좌는 4월 16일부터 시작해 6월 21일까지 총 10주 동안 진행된다. 총 10주의 강습을 받은 후, 스스로 악보나 코드표를 보고 연주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기간 04.16(월)~06.21(목) 매주 월·화·수·목요일
오후반(16:00~17:30) 야간반(19:30~21:00)
문의 문래예술공장 3층 녹음실(02-2676-4300)

화려한 무대 펼쳐보이는 꿈의 세계

명작발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한국의 대표적 안무가 제임스 전의 참신하고 기발한 해석으로 호평을 받은 서울발레시어터의 가족발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가든파라드 아트홀에서 공연된다. 어린이에게는 무한한 상상력을, 어른들에게는 과거의 동심을 회상할 수 있는 온 가족을 위한 가족발레 공연이다. 본 공연은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이어진다.

문의 www.g5culture.or.kr 02-2157-8780

젊은 작가들이 몰고 온 문학의 봄바람

연희문학창작촌, 4월 연희목요일낭독극장 개최

서울시창작공간 연희문학창작촌은 시민을 위한 정기 문학 낭독회 〈연희목요일낭독극장〉의 2012년 두 번째 무대를 4월 26일(목) 저녁 7시 30분 연희문학창작촌 야외무대 열림에 마련한다. 연희문학창작촌 입주 작가의 신간 중심으로 운영되며 작가에게는 창작 콘텐츠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문학 향유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단순히 작품을 낭독하는 형식이 아닌, 문학 텍스트와 음악, 무용, 극이 만나는 실험적인 공연이 펼쳐진다. 문학인이 공연의 연출을 맡아 작품과 독자를 이어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감동을 선사한다.

〈연희목요일낭독극장〉은 매달 꾸준히 정기적으로 진행돼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연희목요일낭독극장’이라는 새로운 공식을 만들면서 낭독 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작가와 독자와의 ‘내밀하고 정겨운’ 직접 소통을 추구, 열성적인 고정 팬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월 초대작가는 김종광, 김성중 소설가다.

문의 연희문학창작촌 운영사무실(02-324-4600, 4690)

감(感), 좋다! 몸, 좋다! 몸, 읽다!

홍은예술창작센터, 감성을 자극하는 미술·무용 프로그램 다수 진행

서울시창작공간 홍은예술창작센터는 미술과 무용 분야에서 실기 및 이론 수업을 4월 한 달 동안 진행한다. 먼저 미술 실기 프로그램 〈감(感), 좋다〉는 2012년 입주 예술가 이우성 씨의 ‘검은 눈동자와 움직이는 발’로, 작가와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속에 간직해오던 예술적 감성을 이끌어내 인체 드로잉을 통해 표현해보는 프로그램이다. 4월 7일부터 5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홍은예술창작센터 교육연습실 및 무용연습실에서 진행된다.

4월 둘째 주부터 시작되는 성인 여성 대상 무용 실기 프로그램 ‘살아나는 몸, 나, 너’는 홍은예술창작센터에서 운영 중인 〈몸, 좋다〉프로그램의 일부로, 나의 몸을 돌아보고 움직임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생활 속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몸으로 표출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감성을 일깨우는 시간을 통해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3월 24일부터 시작해서 6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되는 무용이론 프로그램 〈몸, 읽다〉는 2012년 홍은예술창작센터 무용 분야 입주 예술단체(개인)들이 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진 및 영상자료를 활용해 예술가들이 지금까지 무대에 올렸던 작품과 각 작품의 기획 의도, 내용 및 움직임에 대해 소개한



홍은예술창작센터 무용실기 프로그램 〈몸, 좋다〉

다. 무용 공연을 보며 ‘저 동작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공연은 도대체 왜 만든 걸까?’ 등 평소 궁금했던 사람이라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수업이 될 것이다. 홍은예술창작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프로그램별 자세한 사항 및 참여 문의는 홍은예술창작센터 운영사무실(02-304-9100, 9735)로 하면 된다.

매월 셋째 토요일

성북예술창작센터로 가자!

성북예술창작센터 2012년 입주작가

토요프로그램 〈예술로 토요일〉

서울시창작공간 성북예술창작센터는 2012년 상반기 주말 프로그램으로 지난 3월17일 시작해 6월 1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상반기 예술로 토요일〉을 진행하고 있다. 연극, 미술, 예술치료, 무용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8팀이 단순한 창작기법·기술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직접 느껴보는 색다른 예술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4월21일 〈예술로 토요일〉은 총 7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연극 프로그램은 동화책을 연극으로 바꿔보는 〈풍덩! 침방!〉(극단 마실), 학교의 폭력문제를 중고등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풀어보는 〈포럼연극 눈사람〉(극단 프락시스) 등 두 개가 준비되어 있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스트레스와 불안한 심리 증상을 스스로 발견하고 치유해보는 시간으로,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발산해 정서를 안정시키고 미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악기를 두드려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어 있다. 이외에 육체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명상과 요가를 통해 풀어보는 ‘몸풀이 동작치유’, 안 입는 옷이나 헌 천을 사용해 가방이나 장신구를 만드는 ‘새 천 줄게, 헌 천 다오’ 등 다양한 시각/무용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상반기 〈예술로토요일〉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센터 내 입주단체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며, 성북예술창작센터를 방문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가비는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성북예술창작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2-943-9300

어린이 창의력 신장 프로그램의 대명사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4월 프로그램

〈국악아, 놀자!〉 〈관악명랑방석극장〉 〈관악창작공방〉

새로운 어린이 예술 인프라를 창출하고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는 등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서울시 창작공간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가 4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번에 마련된 세 가지 프로그램은 2012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 〈국악아, 놀자!〉, 공연영역 프로그램 〈관악명랑방석극장〉, 상설 체험 프로그램 〈관악창작공방〉이다.

초등 3~4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국악아, 놀자!〉는 전래동화를 국악으로 풀어 장단놀이와 노래·애니메이션 등으로 만들어보는 약 7개월간의 장기 프로그램이다. 책 속의 글자를 살아 있는 말장단과 노래로 만들어보는 경험은 책 읽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키우고 참여 어린이들에게 예술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문화재단 '2012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악놀이연구소'가 진행한다. 기간은 4월 26일(목)부터 11월 29일(목)까지이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20명이 참여한다.

매달 네 번째 토요일에 열리는 공연영역 프로그램 〈관악명랑방석극장〉은 이번 달에는 4월 28일(토)에 체험 연극 〈가방 속의 울퉁이〉로 열린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많은 울퉁이의 이야기로, 5~7세 어린이 60명이 2회에 걸쳐 관람할 수 있다. 이 공연은 다양한 신체표현인 몸풀놀이와 특별한 연극놀이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상력 훈련소 몸풀'의 작품이다.

상설 체험 프로그램 〈관악창작공방〉에서는 어린이가 직접 우유팩과 종이컵을 디자인한다. 미취학 어린이들은 주로 종이컵 디자인을, 8세 이상의 어린이는 우유팩 디자인을 하게 된다. 디자인을 마친 작품은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에 전시할 수 있으며, 또는 소장하기를 원한다면 가져가도 된다. 상시 체험이 가능하나, 강사의 도움 아래 디자인을 할 수도 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음 시간에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를 방문해보자.

3월 14일(수)부터 4월 30일(월)까지 매주 월·수요일 오전 11시(6~7세), 오후 3시(8세 이상).

〈관악명랑방석극장〉은 서울시창작공간 홈페이지(www.seoulartspace.or.kr)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참가할 수 있으며, 그 외 4월 프로그램은 별도 예약접수를 받지 않는다. 문의는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운영사무실(02-871-7400)로 하면 된다.



〈국악아, 놀자!〉



〈관악명랑방석극장〉



〈관악창작공방〉

대한민국 공연문화 발전 포문 활짝

제26회 ISPA 국제공연예술협회 서울총회

조기 등록 마감



오는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 '제26회 ISPA 국제공연예술협회 서울총회'의 조기 등록이 4월 13일로 마감된다. 문.화.변.동을 주제로 한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기술적 동인이 공연예술 창작과 향유 방식에 어떠한 변화들을 일으켰는지에 대해 동서양 전문가들의 비전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다. 워크숍, 회의 세션, 교류행사, 공식 쇼케이스, 홍보부스 전시 그리고 ISPA의 전통행사인 ISPA 어워드디너 등으로 구성된 총회는 공연예술계의 지식 공유뿐만 아니라 창의적 감성을 충전하는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하고자 하는 공연예술단체 및 종사자는 총회 등록이 필요하며 4월 13일까지 할인된 가격이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www.ispa.org/seoul2012korean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02-3290-7052~7054

ispa2012seoul@sfac.or.kr

당신의 얼굴이 문화, 그리고 서울입니다

「문화+서울」에서는 서울의 다양한 공연, 전시,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서울의 전시장, 공연장 등에서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도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문화+서울」은 문화예술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참여하신 분들께는 해당 호 월간지를 보내드립니다.

홍은예술창작센터 <감(感) 좋다> 강사이은우

콜라주 수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제가 콜라주 수업을 한 이유는 다른 수업보다 콜라주가 미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였습니다. 그림 그리는 아이들 수준의 편차와 상관없이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죠. 또 평소 인쇄물 매체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요. 홍은예술창작센터의 지원 덕에 재능기부처럼 미술을 가르쳐볼 수 있게 되어 제게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첫 수업이라 더 설레네요.

아이들은 잘 따라오고 있나요?

앞으로 3회가 더 남았는데 아이들이 스토리를 생각보다 잘 만들어서 뿌듯하더군요. 다음 시간에는 크레파스도 이용해볼까봐요.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시다면.

콜라주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결국 콜라주는 센스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보고, 감각을 키우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작품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틀에 자신을 가두지 말고 자신 있게, 그리고 재미있게 표현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또 최대한 에너지 넘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금천예술공장 <아티스트 인 스쿨> 참가자 한상진

어떻게 <아티스트 인 스쿨>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제가 문일고등학교 미술부에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 미술부는 전부터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외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직접 참여해보니 어떠세요?

사실 매번 지각을 해서 선생님께 죄송해요. (웃음) 그런데 활동은 정말 재미있고 좋아요! 특히 그림을 안 보고 그린다는 점. 어렵긴 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림 그리는 소재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없는 걸 창조해서 그리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선생님들도 다들 유쾌하시고, 음악도 신나고 좋네요!

금천예술공장에 대해 전부터 알고 있었나요? 느낌이 어때요?

전엔 전혀 몰랐어요. 처음에 말로만 들었을 때는 진짜 굴뚝에서 연기 나고 기계 소리 쿵쿵 울리고, 막 어둡고 무서운 공장 같은 곳인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 왜! 공장(?)이라고 하기엔 너무 깨끗해서 놀랐어요. 저희 워크숍룸 문 바로 앞에 밴드부실도 있던데, 만약 밴드 공연 프로그램도 있다면 참가하고 싶어요.

아마 인터뷰 기사가 나올 쯤이면 벽화가 거의 완성되어 있을 텐데요.

전 사람들이 지나가다 '와, 우리나라에도 저런 벽화가 있구나' 할 만한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잘못 그리면 낙서 같은 그림이 나올까 불안하기도 한데 엄청 노력해야겠지요? 있다면 참가하고 싶어요



연극 <878미터의 봄> 관람객 윤진모

오늘이 공연 오픈일인데 어떻게 관람하게 되셨나요?

남산예술센터에서 선보이는 독특한 소재의 극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대부분 미리 공연 정보를 살펴보고 끌리는 작품을 골라 찾아옵니다. 탄광촌은 요즘 세 대들예겐 아주 낯선 장르겠죠.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새롭게 풀어낼 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했어요.

공연 관람 소감은 어떠세요?

극 중에 보면 '찌질한 사람들끼리 왜 서로 생채기 내느냐'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살면서 다들 힘든 일이 있는데 절망 구렁이나 아픔 속에서 서로 간의 깊은 사랑을 되짚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담하면서도 후반부 극적인 감정으로 치닫는 것도 좋았고요.

남산예술센터에는 자주 오시는 편이신가요?

서울예대가 제 모교이기도 해서 대학 시절부터 연극 보러 자주 다녔어요. 지난 번 <풍찬노숙>도 정말 재미있게 본 작품이에요. 남산예술센터는 중극장 규모라 편안하고, 무대 장치나 객석 배치가 마음에 들어요. 아! 그리고 보니 <878미터의 봄> 무대 연출 이야기를 빼놔네요. 배경 무대 연출 정말 멋졌습니다!



「문화+서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의 독자분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 폴로 교수님의 북촌 사랑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전 스카이웨이를 드라이브 하다가 감사원, 삼청동에 가게 됐는데 거의 막다른 벼랑 같은 곳에서 가슴을 쓸어내렸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다음 호에는 커피 위주가 아닌 '차' 카페를 소개하는 쪽지가 있었으면 해요.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유선영 서울시 성북구 정릉 1동



'서울너머로 해외트렌드'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는 공정무역 하면 초콜릿과 후추, 설탕같이 먹는 것들만 생각했는데 카펫도 공정무역 제품이 있군요. 흥미로운 기사였어요. 그리고 인사동이나 북촌 외에도 서울 변두리의 활기찬 동네 이야기도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서은 서울시 구로 2동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에서 이 책을 접하게 되었어요. 관악구만 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 위층에 마을 주민을 위한 도서관이 동마다 있는데요. 그곳에서 봉사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책 읽는 서울 시민' 같은 주제를 다뤄주었으면 합니다.

김상희 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동



'쉽게 만나는 온오프라인 인문학 라이브러리' 기사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레드박스'가 저의 눈길을 끌더군요. 저희 동네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니, 꼭 방문해 인문학의 재미에 푹 빠져봐야겠습니다. 다음 번에 소개하는 장소의 약도나 위치 등을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상철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 3동

「문화+서울」은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요청이 불가합니다. 아래의 기관을 방문하셔서 무료로 비치된 잡지를 확인하거나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로 들어오셔서 e-book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극장,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다산플라자, LG아트센터, 두산아트센터, 충무아트홀, 난타전용극장, 동숭아트센터, 아르코미술관, 대학로예술극장, KT&G 상상마당, 성곡미술관, 백암아트홀, 코엑스 아트홀, 상명아트센터, 서울연극센터, 대학로연습실, 남산예술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신당창작아케이드, 금천예술공장, 연희문화창작촌, 문래예술공장, 성북예술창작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장애인창작스튜디오, 흥은예술창작센터, 가든파이프

서울시창작공간

홍은예술창작센터

2012년도 상반기 프로그램

몸, 좋다

무용실기 프로그램

몸, 읽다

무용이론 프로그램

감(感),
좋다

미술실기 프로그램

기간 2012년 3월~6월

장소 서울시창작공간 홍은예술창작센터

문의 ☎02-304-9100 / ☎02-304-9735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명지 2길 14 (홍은동 304-1)

<http://www.seoulartspace.or.kr>

+ 서울시창작공간은 서울시에서 서울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예술창작 지원공간입니다.

주최

Hi Seoul
SOUL OF ASIA

주관

문화재단
CREATIVE
SEOUL

홍은예술창작센터

홍은예술창작센터

